

# 충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 중간지원조직 구축 및 역할을 중심으로 -

박 경 철·조 영 재



## 발 간 사

도시민들에게는 휴양과 활력을 주고 농민들에게는 안정적 소득과 보람을 가져다주기 위해 시작된 도농교류사업은 향후 도시와 농촌의 공동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갈수록 주목을 받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방농정으로 인해 농민들의 시름이 더해지면서 농업과 농촌이 단순히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공익적 가치를 활용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그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부터 시작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을 비롯한 각종 농촌체험관광 활동, 1사1촌운동, 농사랑운동, 귀농귀촌사업, 직거래와 로컬푸드사업, 각종 지역축제 등 도농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져 왔다. 특히 충남에서는 청양의 알프스마을을 대표로 하는 농촌체험마을이 육성되면서 많은 도시민들이 찾고 있고, <도심 속 학교는 만들기>사업과 <고향마실페스티벌>사업은 도시주민들과 아이들이 좀 더 편리하고 재미있게 농업과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충남도의 도농교류사업은 다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KTX공주역 개설을 비롯한 교통 환경의 개선, 세종시의 확장, 백제문화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귀농 귀촌인의 증가, 농산물직거래와 로컬푸드의 확대, 서산·당진·태안·보령 등 서해안권 지자체의 빠른 성장과 대중국 교류 활성화 기대 등 향후 도농교류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변수들이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도농교류사업은 지역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농촌체험마을과 체험농장의 확대 등 그 동안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급속한 성장이 있어왔지만 앞으로의 도농교류사업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이들 간 협력적 체계를 구축해 지역차원에서 대응하는 시스템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충남도 도농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015년 12월 30일

충남연구원장 강 현 수



# 연구 요약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농어촌은 건강과 휴양의 공간을 넘어 교육과 문화의 공간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이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 정책도 기존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개념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인성학교 등 농촌공간을 단순히 관광 및 체험을 넘어 건강과 휴양, 교육과 가치 차원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충남도 또한, 그 동안 청양 알프스마을을 대표로 하는 특성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육성하고 도시 소비자와 농촌의 생산자가 함께 만나는 <도심 속 학교농 만들기>, <고향마실페스티벌>과 같은 도농교류 사업을 통해 도농상생 방안을 모색해 왔다. 최근 들어서는 교통여건의 발달, 세종시의 확장, 백제문화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으로 농촌체험관광에도 전기를 맞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 예정인 중학교 자유학기제도 농촌체험관광에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정부 차원의 많은 지원으로 농촌체험마을과 체험농장이 급증해 지역 내 경쟁이 심화되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농촌체험마을과 체험농장의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 차원에서도 8년 이상 되는 체험마을의 마을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축소할 방침이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충남도 차원에서 현재 농촌체험마을 등 도농교류 활동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농 간 지속가능한 상생발전모델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단계에서 충남도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도농교류와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도농교류와 농촌체험관광의 범위가 넓고 관련 사업이 적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을 전부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군 단위에서 구축되고 있는 도농교류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축과 바람직한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 2. 주요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충남도가 3농혁신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30대 과제 중의 하나인 도농교류 활성화사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본 연구의 제1장에서는 연구 필요성과 목적, 연구 범위, 연구 방법, 분석틀과 연구 흐름도를 설명했다. 연구 필요성과 목적은 앞서 설명했듯이 도농교류 및 농어촌체험관광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의 제시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개별 체험마을과 농장에 대한 지원 정책보다는 각 시·군 단위에서 어떻게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행정과 현장을 연결해 도농교류와 체험관광을 활성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 연구의 범위는 충남도와 각 시·군이며 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도자와 실무진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 통계자료 분석, 인터뷰조사,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어촌체험마을관리시스템(RUCOS) 내에 구축되어 있는 체험마을 데이터를 활용해 충남도 농촌체험마을의 방문객 및 경영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충남도 내 농촌체험휴양마을 지도자와 실무진을 대상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와 정책 동향을 분석했다. 선행 연구는 크게, 농어촌체험, 도농교류, 중간지원조직, 농특산물 판매, 그리고 외국 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양평군의 농촌나드리에 대해 분석한 이차희 등(2014)의 연구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또한,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관광과 관련한 정부정책 내용과 기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 향후 도농교류사업에 영향에 미칠 정책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심사제, 자유학기제,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관련한 정책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충남도 도농교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했다. 여기에서는 충남도 3농혁신정책에서 도농교류사업의 내용과 목표를 살펴보았고, 도농교류 현황과 성과는 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체험마을관리시스템(RUCOS) 내 통계자료를 활용해 충남도 농촌체험마을의 방문객 추이, 소득 추이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충남도 도농교류와 농촌체험관광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했다.

제4장에서는 도농교류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충남도 차원의 중간지원조직인 (사)충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와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

회의 조직현황과 사업 추진 내용을 살펴봤다. (사)충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충남도 내 120개 농어촌체험마을을 통합 관리 지원하는 조직이며 충남도의 대표적인 도농교류사업인 <고향마실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도심 속 학교논 만들기>사업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각 시·군의 경우 홍성군의 홍성농어촌체험관광협회와 홍성농어촌체험관광지원센터의 현황과 사업 추진 내용을 살펴봤으며, 청양군의 경우, 시·군 도농교류사업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모델로 평가되고 있는 청양군 도농교류센터 <칠갑마중>의 조직 현황과 사업 추진 내용을 살펴왔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 현황을 통해 중간지원조직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제5장에서는 충남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재 체험휴양마을의 운영 현황과 어려운 점, 향후 운영 방향과 계획에 관한 의견을 조사해 분석했다. 현재 충남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120개 마을 가운데 총 59개 마을의 지도자와 사무장이 응답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체험마을 담당자들은 현재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인력과 시설면에서 가장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도농교류는 앞으로 계속 강화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체험마을 간 어떤 식으로든 협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협력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농촌나드리’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충남도와 각 시·군에서 운영비와 관리비의 지원은 필요하되 운영은 각 시·군 협의회가 주도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제6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고 향후 도농교류와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구축 및 역할과 관련해 정책적 방안을 제시했다.

### 3. 정책적 제언

충남도는 우수한 교통여건과 풍부한 자연 및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그 동안 많은 농촌체험과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해 성과 또한 적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명성을 알린 청양알프스마을, 충남도가 처음 시작해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는 <도심 속의 학교논 만들기>, 중부권에서는 처음이자 최대 규모로 개최되고 있는 <고향마을페스티벌>은 현재 도시민들에게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세종특별자치시의 확대, 백제문화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KTX 공주역 개설 등 여러 호재가 작용하면서 충남도의 농촌마을을 찾는 방문객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농교류사업 전반에는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 핵심주제는 첫째, 도농교류와 농어촌 체험관광을 통해 어떻게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것인가 이고, 둘째, 이러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 내 도농교류사업을 어떻게 재구조화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앞서 몇몇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농교류와 농어촌체험관광 관련 중간지원조직 사례를 소개했듯이 이러한 통합적 관리 방식인 중간지원조직이 향후 도농교류와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정책에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도농교류와 농어촌 체험을 통한 지역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1)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방안

농촌체험과 관련한 정책 변화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이 중학교 자유학기제이다. 따라서 농촌체험마을과 체험농장의 방문객이 학생들인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물론 농촌체험마을과 농장에는 학생들만이 오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들도 많이 찾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 체험마을과 농장 운영에 있어 개별 방문객과 1사1촌이나 기관 간 결연을 통한 방문이 줄고 있는 상태에서 향후 학교와 연계한 도농교류 활동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체험활동은 가급적 학습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선호한다. 일례로 공주시의 한 농장에서는 농촌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국제무역 거래와 관련한 게임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단순한 농사체험으로는 한계가 있다.

둘째, 학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스토리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마을이야기 등 스토리텔링은 일반 마을주민 수준이 아니라 전문적인 해설사 수준의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셋째, 숙박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은 가급적 줄일 필요가 있다. 사실 농촌주변에 좋은 숙박시설들은 많다. 현재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관광은 주로 단일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에 지나친 투자는 낭비일 수 있다. 숙박시설보다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과 이를 채울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



넷째, 체험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직접 찾아가는 체험활동 프로그램 행사의 확대도 필요하다. 2014년 대전에서, 2015년 세종시에 개최됐던 <고향마실 페스티벌>은 현재 중부권 최대이자 최고의 도농교류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서울과 대전, 천안 등 충남의 친환경농업인들이 도시의 학교로 직접 찾아가 진행하고 있는 <도심 속 학교는 만들기> 사업은 도시의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예산의 한계가 있겠지만 이러한 행사는 유지내지 확대 진행할 필요가 있다.

## 2) 도농교류 및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축 방안

현재 충남도와 각 시·군에서는 도농교류와 농어촌체험관광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점도 제기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의 구축을 통한 도농교류와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충남도가 추진 중인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과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충남도는 현재 충남도 전체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하는 한편, 각 시·군의 중간지원조직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도 도농교류 및 농어촌체험관광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은 이와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각 지역의 형편에 맞는 중간지원조직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충남도에는 11개의 시·군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있는데 그 운영 형태는 각각 다르다. 또한 현재 도농교류 및 농어촌체험관광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구축되어 있는 시·군은 홍성군과 청양군 두 곳이고 구축됐다가 중단된 시·군은 공주시이다. 이들 세 지역의 중간지원조직 형태는 모두 다르며 운영 방식 또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할 경우 하나의 모델보다는 지역의 사정에 맞는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모든 시·군이 양평농촌나드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셋째, 앞으로 도농교류 및 농어촌체험관광사업은 개별 마을단위 지원에서 시·군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시·군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 사실 그동안 정부 정

책으로 인해 농어촌체험관광마을과 시설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마을사무장 지원이 8년을 끝으로 축소됨에 따라 개별 마을들은 자구책을 강구해야 하나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마을은 사무장 등 기타 지원을 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러한 마을들에 대해 일일이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체험마을들은 자동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별 마을에 대한 지원보다는 시·군 차원에서 도농교류 및 체험관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확대와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가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민간의 중간에서 단순한 업무 지원 및 조정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내 체험해설사를 키우고 젊은 인력들이 지역 내로 들어와 지역에서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내지 멘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 내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의 육성이 필요하다. 반드시 각 시·군 단위 중간지원조직일 필요는 없다. 체험마을 단위, 체험농장 단위, 구역 단위 협의 및 협력체의 구축이 필요하다. 공주시에서 시도되고 있는 구역 단위 체험농가 간 협업체인 공주드림팜협동조합도 하나의 좋은 모델이다. 물론 새로운 협력체를 만들 경우에는 기존의 관련 조직과 협력과 협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간지원조직의 구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수한 인력과 재정 확보이다. 이것은 모든 조직의 운영원리이기도 하다. 조직이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가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재정이 있어야 한다. 현재 유행중인 중간지원조직은 어떤 면에서는 전시 및 성과주의 행정의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도농교류와 농어촌체험관광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처럼 중요한 중간지원조직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중간지원조직 자체도 어느 정도 행정과 회원들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사업개발 혹은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통해 자립적인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목 차

##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및 범위 .....2
  - 1) 연구 목적 .....2
  - 2) 연구 범위 .....3
3. 연구 방법 .....3
4. 분석틀 및 흐름도 .....5

## 제2장 선행연구 및 정책동향 .....7

1. 선행연구 분석 .....7
  - 1) 농어촌체험관광 관련 연구 .....7
  - 2) 도농교류 관련 연구 .....9
  - 3) 농촌체험관광과 중간지원조직 관련 연구 .....10
  - 4) 도농교류와 농특산물 판매 관련 연구 .....12
  - 5) 외국의 도농교류 관련 사례 연구 .....13
2. 정책동향 분석 .....14
  - 1) 농어촌체험 및 도농교류 관련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15
  - 2) 농어촌관광사업 등급 결정사업 추진 .....17
  - 3) 자유학기제 시행 .....20
  - 4)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22

## 제3장 충남도 도농교류 현황 및 문제점 .....25

1. 충남도 도농교류 정책 현황 .....25
  - 1) 민선 5기 도농교류사업의 현황과 성과 .....25
  - 2) 민선 6기 도농교류사업의 정책 방향 .....27
2. 충남 농촌체험마을 운영 현황 .....30
  - 1) 농어촌체험마을 지정 현황 .....30
  -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방문 목적 및 체류 유형 .....32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매출액 현황 .....	34
3. 개별 농촌체험마을의 운영 현황 .....	35
1) 개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방문 목적 및 체류 유형 .....	35
2) 개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매출액 현황 .....	37

## 제4장 도농교류 중간지원조직 현황과 과제 .....39

1.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및 역할 .....	39
1) 개념 .....	39
2) 역할과 기능 .....	40
2. 도농교류 관련 충남도 중간지원조직의 현황 .....	41
1) (사)충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	41
2)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	44
3. 각 시·군의 현황 .....	47
1) 사)홍성군농촌체험관광협의회 .....	47
2) 청양군 칠갑마중 .....	52
3) 공주나드리센터 .....	58
4. 중간지원조직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	61
1) 리더십문제 .....	61
2) 경영능력의 문제 .....	62
3) 거버넌스문제 .....	63
4) 자율적 관리의 문제 .....	64
5) 전문인력의 육성문제 .....	65
6) 개선 과제 .....	67

## 제5장 체험마을 현황 및 담당자 의견 분석 .....69

1. 조사의 개요 .....	69
1) 조사 배경 .....	69
2) 조사 지역 현황 .....	70
2. 주요 조사 결과 .....	71
1) 기본 현황 .....	71
2) 체험마을 인력 및 운영 현황 .....	72
3) 도농교류 담당자의 의견 .....	78
4) 중간지원조직화에 대한 의견 .....	83

3. 요약 및 시사점 .....	91
<b>제6장 결론 .....</b>	<b>93</b>
1. 연구의 요약 .....	93
2. 정책적 제언 .....	95
1)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방안 .....	96
2) 도농교류 및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축 방안 .....	97
<b>참고 문헌 .....</b>	<b>99</b>
<b>부 록 .....</b>	<b>103</b>

## 표 목 차

[표 1-1]	설문조사 내용	4
[표 2-1]	양평농촌나드리와 이천농촌나들이 간 역할 및 성과 비교	11
[표 3-1]	전국 대비 충남도 농어촌체험마을 지정 현황	31
[표 3-2]	전국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2015)	32
[표 3-3]	충남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방문 목적별 방문 인원	33
[표 3-4]	충남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체류 목적별 방문 인원	33
[표 3-5]	충남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수입 유형별 매출액	34
[표 3-6]	개별 농어촌체험휴양마을별 방문 인원 및 체류 유형	36
[표 3-7]	개별 농어촌체험휴양마을별 매출액 현황	38
[표 4-1]	홍성농어촌체험협회의 체험마을 및 농장 참여 현황	47
[표 4-2]	홍성농어촌체험관광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및 내용	49
[표 5-1]	각 시·군 설문 응답자 현황	70
[표 5-2]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의 어려움별 중간지원조직 동의 정도	85
[표 5-3]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주체와 상황에 따른 중간지원조직 동의 정도	86
[표 5-4]	마을 내 역할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역할	88
[표 5-5]	마을 내 역할과 체험마을 운영기간에 따른 중간지원조직 지원 방향	90

## 그림 목 차

[그림 1-1] 본 연구의 분석틀 .....	5
[그림 1-2] 연구진행 흐름도 .....	6
[그림 2-1] 도농교류협력사업 구성과 교류효과 .....	14
[그림 2-2] 경관/서비스, 숙박, 체험, 음식 등 네 분야에서 만점을 받은 청양알프스마을 .....	20
[그림 2-3] 자유학기제 실시 목적 .....	21
[그림 2-4]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관한 개념도 .....	23
[그림 3-1] 민선 6기 3농혁신의 비전과 5대 혁신 전략 .....	28
[그림 3-2] 민선 6기 3농혁신 〈소비혁신〉 추진 개념도 .....	29
[그림 3-3] 2단계 3농혁신 정책의 소비혁신 과제와 중점사업 .....	30
[그림 3-4] 1사1촌을 통해 자매결연을 체결한 마을의 예(태안군 대야도마을) .....	33
[그림 4-1] 충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조직도 .....	42
[그림 4-2] 고향마실페스티벌 개최 현황 .....	43
[그림 4-3] 충청남도 「도심 속 학교논 만들기」 활동 모습 .....	46
[그림 4-4] 충청남도 도심 속 학교논 만들기 보도 자료 .....	46
[그림 4-5] 홍성군 농어촌체험관광 중간지원조직의 현황도(2015. 10) .....	48
[그림 4-6] 청양군 도농교류센터 「칠갑마중」의 연계 현황 .....	55
[그림 4-7] 공주시 농촌체험관광 관련 단체와 중간지원조직 현황 .....	58
[그림 5-1] 응답자 마을의 형태 .....	71
[그림 5-2] 체험마을의 운영기간 .....	71
[그림 5-3] 체험마을 운영 기간 중 원활히 운영된 기간 .....	72
[그림 5-4] 마을사무장 근무 여부 .....	72
[그림 5-5] 현 마을사무장의 근무 기간 .....	73
[그림 5-6] 마을사무장이 없는 이유 .....	73
[그림 5-7] 체험휴양마을 운영의 어려운 점 .....	74
[그림 5-8] 체험휴양마을의 역점 사업 .....	74
[그림 5-9] 체험객의 거주지 .....	75
[그림 5-10] 체험객의 유치 방법 .....	75
[그림 5-11] 체험휴양마을의 1사1촌 자매결연 현황 .....	76
[그림 5-12] 체험휴양마을의 1사1촌 교류 현황 .....	76
[그림 5-13] 체험휴양마을의 향후 1사1촌 교류 계획 .....	77

[그림 5-14] 체험프로그램의 선호도 .....	77
[그림 5-15] 체험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 .....	78
[그림 5-16] 도농교류의 영향 요인 .....	79
[그림 5-17] 도농교류 영향 요인의 향후 영향 정도 .....	79
[그림 5-18] 향후 변화에 대한 준비 정도 .....	79
[그림 5-19] 향후 변화에 대한 역점 준비 사업 .....	80
[그림 5-20] 마을사무장의 8년 일몰제에 대한 의견 .....	80
[그림 5-21] 세월호사건, 메르스사태와 같은 위기 대처 방안 .....	81
[그림 5-22] 중국 요우커의 유치에 대한 관심도 .....	82
[그림 5-23] 중국 요우커 유치를 위한 준비사업 .....	82
[그림 5-24] 중국 요우커 유치에 관심 없는 이유 .....	83
[그림 5-25] 체험휴양마을 간 협력 현황 및 의향 .....	83
[그림 5-26]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여부 .....	84
[그림 5-27]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역할 .....	87
[그림 5-28] 중간지원조직 참여 범위 .....	89
[그림 5-29] 중간지원조직의 적합한 운영 방식 .....	89
[그림 5-30]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관의 지원 방향 .....	90



# 제1장 서론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농촌과 도시는 대립과 경쟁의 공간이 아닌 협력과 상생의 공간으로 재인식됨에 따라 최근 중앙 및 지방정부, 그리고 많은 사회단체에서 도농교류를 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활력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충남도에서도 관련법(도농교류촉진법)을 제정하고 충남도에서도 이에 관한 조례(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등)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다소 주춤하긴 하지만 1사1촌, 농어촌응원, 행정기관 간 교류협력, 농촌재능기부 등 사회운동 차원에서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범국민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들어 농어촌은 건강과 휴양의 공간을 넘어 교육과 문화의 공간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이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고 정부 정책도 기존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개념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인성학교 등 농촌공간을 단순히 관광 및 체험을 넘어 건강과 휴양, 교육과 가치 차원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도농교류는 도시민의 농촌방문으로 인한 지역 내 소득창출뿐만 아니라 도농 간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농촌지역 내 농산물을 농촌을 방문한 도시민에게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 도농교류의 중요성이 점점 중시되고 있다.

하지만 도농교류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농어촌체험마을들이 최근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체험마을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2016년 이후부터는 8년 이상 근무하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에 대한 정부 지원도 줄어들게 되면서 농촌체험마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정부 차원의 지나친 지원으로 우후죽순처럼 증가한 농촌체험마을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현재 근근이 운영되고 있는 마을도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 운영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따라서 충남도 차원에서 현재 농촌체험마을 등 도농교류 활동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농 간 지속가능한 상생발전모델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차별화된 도농

교류를 통해 도시민들에게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대하고 농촌주민들도 이를 통해 소득을 향상시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농교류와 농촌체험관광의 범위가 넓고 관련 사업이 적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을 전부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군 단위에서 구축되고 있는 도농교류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많은 연구에서 밝혔듯이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해주는 핵심역할을 하기 때문에 행정과 사회 각 영역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청도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구축 상황과 실태 그리고 문제점을 살펴보고 도농교류와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및 범위

###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첫째, 농촌체험 등 도농교류 관련 통계분석을 통해 충청도 도농교류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해 충청도 도농교류의 특성 및 문제점을 도출한다.

둘째,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충청도, 그리고 각 시·군의 정책 및 활동을 분석하고 시사점 도출한다.

셋째,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리 및 운영자 등 도농교류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정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점 도출한다.

넷째, 충청도 및 각 시·군 단위에서의 도농교류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구축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도농교류와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구현해 낼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구축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 2) 연구 범위

연구 범위는 크게 공간적 범위와 내용적 범위로 나뉜다. 먼저 공간적 범위는 충남도를 범위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시·군의 사례에 좀 더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두 번째, 내용적 범위는 현재 시·군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구축과 역할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 이유는 현재 충남도와 각 시·군에서 이뤄지는 도농교류사업은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 행정기관 자체적으로도 도농교류를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험마을, 체험농장 등에서도 다양한 도농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체험마을과 체험농장, 그리고 행정기관에서의 도농교류사업 등을 다 다룬다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홍성군, 청양군, 공주시 등 각 시·군에서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도농교류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농교류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모색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관광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해 다양한 연구 방법을 사용했다. 첫째는 문헌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도농교류와 농어촌체험 관련 국내외 논문과 연구보고서 그리고 관련 문헌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농촌체험 관련 언론보도 자료와 농촌체험관광 관련 포털 및 관련 홈페이지도 참고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각종 통계 및 자료 분석이다. 통계 분석은 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어촌체험마을 관리시스템(RUCOS) 상의 체험마을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농림부와 농어촌공사가 실시한 농어촌체험마을 등급심사 결과 자료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충남도의 농촌체험관광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향에 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실시이다. 조사 대상은 충남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대표(위원장) 혹은 사무장이며 조사 내용은 충남도 내 농촌체험마을 대상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에 관한 내용이다. 사실 도농교류와 농촌체험관광 관련 마을과 농장 그리고 단체 등이 많이 존재하나 그 범위를 농촌체험휴양마을로 한정했다. 그 외 다른 체험마을과 체험농장을 다 다루기에는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방향을 모두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현재 (사)충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감안해 이들 마을로 한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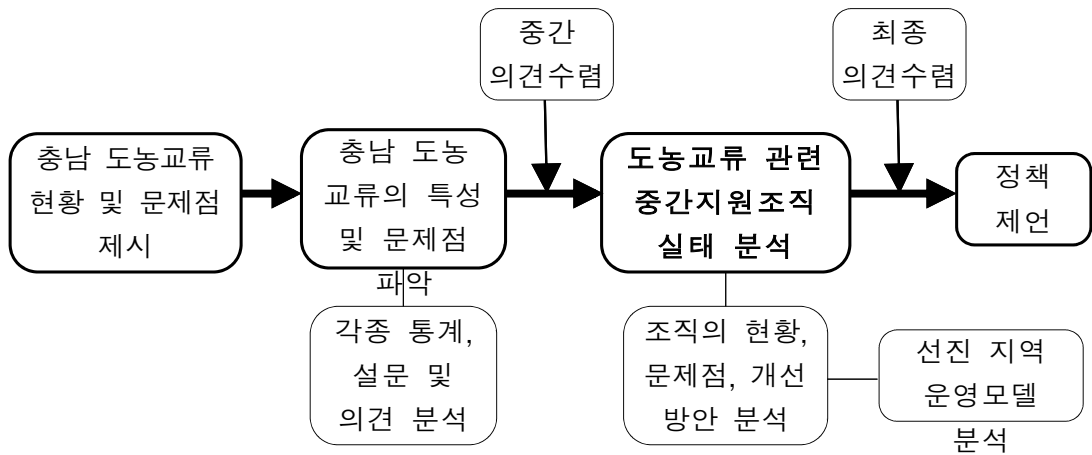
**[표 1-1] 설문조사 내용**

부문	조사 및 분석 내용
체험마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시설 및 전담인력</li> <li>- 주민 참여 및 운영 프로그램</li> <li>- 방문객 및 경제적 성과</li> </ul>
체험마을 운영상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적, 제도적 미비점</li> <li>- 전담인력의 육성 및 지원 부족</li> <li>- 마을주민과의 협력 과정상의 어려움</li> <li>- 도시민과의 지속적인 유대 형성의 어려움</li> </ul>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적, 제도적 지원 방안</li> <li>- 전담인력의 역량 강화 및 안정화 방안</li> <li>- 지속적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li> <li>- 관리의 효율과 가치 창출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육성 방안 등</li> </ul>

네 번째는 심층인터뷰 조사이다. 인터뷰 대상은 행정기관 담당자,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 관련 단체의 대표 및 실무진, 농촌체험휴양마을 대표 및 사무장, 농촌체험 농장 대표 등이다. 설문 방식은 직접 방문 인터뷰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 및 담당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집단 인터뷰를 실시했다.

#### 4. 분석틀 및 흐름도

본 연구는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기부터 시작해 제6장 요약 및 정책 제언까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뉘며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그림 1-1, 1-2)



[그림 1-1] 본 연구의 분석틀



[그림 1-2] 연구진행 흐름도

## 제2장 선행연구 및 정책동향

### 1. 선행연구 분석

도농교류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크게 다섯 부문으로, 첫째는 농어촌체험관광 관련 연구, 둘째는 도농교류 연구, 셋째는 농촌체험관광과 중간지원조직 관련 연구, 넷째는 도농교류와 농특산물 판매와 관련한 연구, 마지막으로 외국의 도농교류 관련 사례 연구 등이다. 부문별 선행연구에 대해 정리·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1) 농어촌체험관광 관련 연구

손재영(2014)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정선군의 농어촌체험마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용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먼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의 구성요소로 관광자원, 관광사업, 관광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선군의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정했고 연구기간도 짧아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송완구·박정화·조용현(2011)은 “농촌관광 체험요인이 지속적인 교류의사에 미치는 영향”에서 농촌관광의 체험요인을 체계화하여 농촌체험관광의 성격을 규명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관광의 문제점을 파악한 뒤, 농촌관광의 체험요인과 신뢰, 만족의 영향관계 및 지속적인 교류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도출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 농촌관광 체험요인은 신뢰도, 만족도, 지속적인 교류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와 만족도도 지속적인 교류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신뢰도도 만족도

와 주민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유식·지경배(2008)는 “농촌체험마을 방문객 선호체험프로그램과 방문만족도 및 성과에 관한 연구: 강원도 농촌관광마을 방문객을 중심으로”라는 연구에서 강원도의 대표적인 농촌관광지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일반적인 방문특성과 선호도를 조사하고 선호하는 농촌체험과 농촌관광 후 어떠한 체험상품이 농촌관광객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농촌관광마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태도 및 친절함이 농촌체험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거나 재방문 및 추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좀 더 농촌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화장실 등 부족한 부대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태도 및 참여가 농촌관광의 성공과 경쟁력 확보에 주요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곤·오민재(2009)는 “농촌관광 목적지 속성에 따른 관광객 유형별 동기 및 체험 분석” 연구에서 농촌관광의 목적지 속성별 관광객 유형에 따라 농촌관광 동기와 농촌관광체험을 인식함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의 요구가 무엇이며 어떤 체험요소를 선호하는지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모든 동기요인에서 농촌관광 목적지 속성에 따른 각각의 관광객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정결과 모든 동기요인에서 ‘중도적 관광활동형’과 ‘소극적 관광활동형’, ‘소극적 관광활동형’과 ‘적극적 관광활동형’, ‘소극적 관광활동형’과 ‘적극적 관광활동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인배·강신점·최영국(2005)은 “충청남도 농촌체험관광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충청남도 67개 사업추진 마을을 대상으로 농촌체험관광 실태를 분석하고 문당리, 오학리, 상갑리를 대상으로 사례 분석해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충청남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마을 입지특성에 맞는 소재 발굴, 둘째, 수요자에 적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셋째, 인력과 조직의 관리·운영 강화, 넷째, 체험프로그램의 외부 전문인력 활용과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투자 필요, 다섯째, 정책지원과 법제도 요건 구비, 여섯째, 홍보와 영업에 대한 집중 노력 필요, 일곱째, 사업평가와 매뉴얼 작성 활용이다.

마지막으로 이상호(2007)는 “유형별 특성에 기반한 경북지역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경북지역 내 농업·농촌·농업인이 지니고 있는 특성별로 농촌체험마을의 유형을 분류



하고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 연구는 경북지역 235개 읍면의 농촌체험마을을 요인분석을 통해 크게 자연환경자원형, 농어촌관광자원형, 역사문화자원형, 사회인구자원형, 일반 기타 자원형 등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자원유형별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 2) 도농교류 관련 연구

김두환(2013)은 “낙후농촌의 지속적 수익 창출 위한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과정과 특징: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칠갑산권역 천장리(알프스마을) 사례 연구”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마을 주민의 수익 창출에 성공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충남 청양군의 알프스마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과정과 그 특징을 밝히고 그 특징이 수익 창출에 유효하였는지 분석했다. 조사 및 분석 결과, 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는 도농교류 활동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수익을 창출할 새로운 활동을 계속 개발했다. 특히 기존의 활동과 새로운 활동을 연계 및 융합하며 수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활동을 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방문자가 증가해 식당, 숙박, 체험, 농산물 판매에 대한 매출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두범·유정규·정환영(2010)은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추진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에서 「도시 및 농어촌교류추진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도농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청남도 내 농어촌체험마을(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등)의 도농교류 실태 및 성과를 분석하고, 도시와 농촌주민의 도농교류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충청남도 도농교류정책의 정책방향과 발전과제를 모색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첫째, 도농교류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하다. 특히 단기간 내에 성과를 창출하려는 조급함을 버리고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도농교류를 바라보는 행정기관과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근거하여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도농교류 추진이 요구된다.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을 대표하는 독자적 도농교류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기초자치단체는 마을단위의 도농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개발과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도농교류조례 제정 및 도농교류전담부서의 설치가 요구된다. 다섯째, 도농교류 전문가들의 컨설팅 및 코칭 강화가 시급하다. 여섯째, 도농교류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도농교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 도시 및 농어촌교류 촉진법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과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사 교육과정 등을 개발하여 도농교류와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농촌체험마을의 도농교류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고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원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 3) 농촌체험관광과 중간지원조직 관련 연구

이차화·탁영란·김민서·손용훈(2014)은 “농촌체험관광 중간지원조직 역할에 관한 근거이론적 분석: 양평군·이천시 농촌나드리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연구에서 경기도 양평군과 이천시의 농촌체험마을 중간조직인 농촌나드리를 대상으로 지역차원의 농촌체험관광 중간조직이 어떻게 형성되어서 작동하고 있는지 그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그 역할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이 연구는 국내 농촌체험관광 중간조직의 사례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질적 연구방법 가운데 하나인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사용하여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 기능은 같지만 양평군과 이천시의 농촌나드리는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기능은 같지만 설립 배경과 목적이 다르다 보니 다른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에 대한 인식 차원에서 양평군 농촌나드리는 개발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민간 주도로 설립됐지만 이천군 농촌나드리는 지역활성화 목적으로 관 주도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고, 이 때문에 조직 운영면에서도 양평군 농촌나드리는 체험마을과 방문객 대상으로 그 역할 수행이 우수한 반면, 이천군 농촌나드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평군 농촌나드리는 지역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활성화를 추구했다면 이천군 농촌나드리는 이러한 토대가 미약해 체험마을 갈등 해결 등 여러 방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저자는 농촌체험관광 중간지원조직은 비영리조직으로써 농촌체험마을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컨설팅 업체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성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했다.

[표 2-1] 양평농촌나드리와 이천농촌나들이 간 역할 및 성과 비교

구분		양평농촌나드리	이천농촌나드리	비고
배경	형성 주체	민 주도	관 주도	
	지역에 대한 인식	개발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지역활성화	
운영 방식	관의 관여정도	간접 지원	직접 관여	
	지역밀착형	지역기반, 체험마을에 밀착	지역 기반	지역기반 및 지역 정보 수집, 체험마을 관리 집중 정도
	중간지원조직 전문성	체험마을, 방문객 대상 역할 수행 우수	체험마을 대상 역할 수행 미흡	이천농촌나드리는 정보제공자, 연결자 역할에 한정
	재정의존도	운영자금에 양평군 지원금이 상당부분 차지함(2순위)	이천시 지원금에 상당부분 의존함(1순위)	
	공동체지향성	역할 수행 시 체험마을 공동체 우선	미흡	체험마을 간 형평성, 나드리 공정성과 투명성 강조 정도
과제	이슈	체험마을 질적수준 향상, 갈등 완화 등 체험마을에 집중	나드리에 집중	
	장기적 과제	노동력 저투입을 통한 고소득 창출	-	
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체험마을사업 매출 및 방문객수 지속적 증가	(좌동)	
	지역공동체 형성	아직까지 이해관계자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여 가능성 정도로 언급 가능	체험마을 갈등 완화 등 역할 미흡	

출처: 이차희 등(2014), p.86 표15 재정리.

그 밖에 도농교류나 농촌체험관광과는 다르지만 이와 유사한 사회적경제 부문의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연구로는 마상진(2011)의 “사회적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육성과 네트워크 활성화” 연구, 송두범(2011)의 “충남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연구, 김재현 등(2011)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연구”, 엄형식·마상진(2014)의 “유럽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현황과 시사점”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마상진(2011)의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사와 의미, 역할, 종류와 관련한 이론과 관련법을 고찰하고 184개의 농촌 사회적기업, 44개 사회적기업 중간지

원조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중간지원조직의 조직구조, 조직역량, 서비스 실태와 관련 개선 요구를 조사했다.

최근 들어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중간지원조직 연구로는 김기홍 등(2015a.b), 박경철 등(2015a.b), 조영재 등(2015)이 충남의 5개 시·군(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홍성군, 예산군)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사회적경제와 마을만들기 사업은 도농교류사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구축사업은 도농교류사업과 긴밀히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4) 도농교류와 농특산물 판매 관련 연구

정구조진·현정·설봉식(2009)은 “농촌체험관광이 농특산물 구매 및 직거래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농촌체험활동에 있어서 관광객들의 만족도와 농특산물 구입처 및 품목 등의 선호도를 분석하고, 관광객들의 인구통계적인 요소들이 실제 구매와 직거래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농촌체험관광사업의 주체인 농가의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서는 농촌환경, 농촌이미지, 편의시설 등의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중 주민서비스 향상, 농특산물 품질과 차별화 제고, 고연령층 유치 방안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는 농특산물을 주로 개별농가와 마을의 상설 특산물코너를 통해 판매하고, 품목의 다양화, 제품 차별화, 이미지 차별화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주문의 불편함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명시했다.

안태영·김창곤(2010)은 “도농교류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 유통 전략: 곡성군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연구에서 도농교류 활동을 통한 곡성군의 농산물 직거래 사례를 중심으로 도농교류 유형, 도농교류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 현황을 살펴보고, 도농교류 활동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의 문제점 및 지역 농산물 브랜드화 전략을 검토했다. 이 연구는 도농교류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에서 마케팅 요소인 유통경로(Place)에 대한 전략에서부터 상품전략(Product), 가격전략(Price) 그리고 판매촉진전략(Promotion)이 전제되어야 하며 곡성군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다이웨이·곽춘려(2014)는 “중국 농촌체험관광 요인이 농특산물 구매 및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중국 화동지역(華東地域)의 사례를 바탕으로 농촌체험관광을 경험한 중

국민을 대상으로 농촌관광의 체험요인을 분석하고 체험객들이 농촌의 풍부한 자원요소와 쾌적한 생활, 체험 등에 얼마나 만족하고, 농특산물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구매하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재방문 의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등을 규명했다. 특히, 이 연구는 중국 농촌체험관광의 요인을 ‘농·특산물의 특성’, ‘교육성과 프로그램’, ‘휴양일탈성’, ‘시설편리성’, ‘문화·자연환경’ 등 5개 요인을 도출하고 이러한 요인이 농특산물의 구매와 재방문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했다.

## 5) 외국의 도농교류 관련 사례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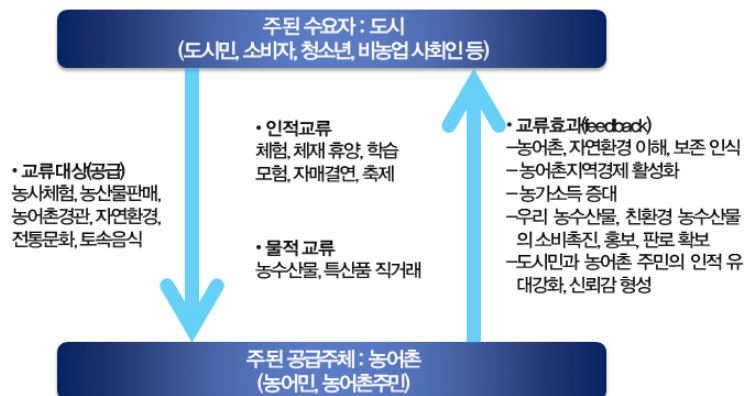
배중남(2010)은 “지속적인 도농교류의 조건에 관한 고찰: 일본의 세타가야구(世田谷區)와 가와바촌(川場村)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연구에서 지역경제구조와 농업구조 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차원에서 일본 세타가야구와 가와바촌의 지난 30년간 지속적인 도농교류 추진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도농교류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세타가야구는 구민들의 제2의 고향 만들기라는 목표를 가지고 가와바촌과 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농촌과 상호협력·합작하여 도농교류 거점시설 건립과 거점시설을 전문으로 관리 운영하는 기업을 설립하고 이 기업이 그 역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조례 및 시행령 제정, 행정부서 내 전담조직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도농교류를 지속해 왔다는 점을 주목했다.

정석호·정환영(2012)의 “일본의 지역주민에 의한 도농교류: 일본 야마가타현 카네야마읍 타니구치 지구를 사례로”라는 연구에서 일본 야마가타현 카네야마읍 타니구치 지구의 도농교류의 정책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례를 통해 도농교류의 실태와 시사점을 도출하고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타니구치의 도농교류는 폐교 활용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방법은 개인 리더에 의한 것이 아닌 마을을 둘러싼 단체, 주민 등의 마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것이었고 마을 네트워크는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개발 공급하고, 도농교류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의 개발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도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도농교류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 2. 정책동향 분석

우리나라의 도농교류는 1990년대 초중반 농촌관광 즉, 그린투어리즘이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도시와 농촌 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도모한 것은 1990년대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이 국제화, 시장화에 직면하면서 농업생산과 판매만으로는 농민의 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촌공간은 하나의 체험과 관광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농업은 직거래를 통해 농민들에게는 유통 비용을 줄여주고 도시민들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자는 제도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한 것이다.

유학열 등(2012)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 간 교류는 크게 인적교류와 물적교류로 나뉘는데 인적교류는 체험, 체재 휴양, 학습, 모험, 자매결연, 축제 등이 있고 물적교류는 농수산물과 특산품의 직거래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농촌은 농사체험, 농산물 판매, 농어촌경관, 자연환경, 전통문화, 토속음식 등을 도시민에게 제공해 다양한 교류효과를 달성하게 되는데 그 주된 효과는 1)농어촌, 자연환경 이해 및 보존 의식 증대, 2)농어촌지역경제 활성화, 3)농가 소득 증대, 4)우리 농수산물, 친환경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 홍보, 판로 확보, 5)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의 인적 유대강화와 신뢰감 형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도농교류협력사업의 유형으로는 1)농어촌체험사업, 2)농어촌 전통·문화체험사업, 3)농어촌 폐교 공간 활용사업, 4)농어촌재능기부사업 등이 있다고 했다.



[그림 2-1] 도농교류협력사업 구성과 교류효과

출처: 유학열 등(2012), 어린이 농산어촌체험형 교육체험 활성화 방안연구, 충남연구원

따라서 정부에서는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도시민들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농민들에게는 소득 증대를 가져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실시해왔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많은 관련 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최근 들어 도농교류와 농촌체험관광에 영향을 줄만한 사업들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농어촌체험 및 도농교류 관련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우리나라 농정 변화는 1990년대 초 UR 타결 전후로 나눌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식량부족으로 인한 생산기반 시설의 확충과 신품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1990년대 초 UR 이후에는 개방화와 국제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농의 규모화와 농산물의 고품질화를 위해 매진했다. 이를 위해 농업예산 42조와 농특세 15조를 투입해 생산기반 정비와 농촌개발사업을 확대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개방화가 가속화되는 한편,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휴식과 웰빙의 공간으로써의 농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농촌관광, 로컬푸드, 경관관리 등에 관한 정책 수요가 높아졌다. 이러한 정책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부, 농진청 등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마을과 권역단위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특히 두드러진 정책변화는 농림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실시한 도농교류와 농어촌체험관광사업이었다. 이전에는 농촌공간이 단순히 농업생산의 기반에 국한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도시민들은 점차 건강과 휴식을 추구하기 위해 농촌을 찾기 시작했다. 농촌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산업화와 개방화로 인해 농업경쟁력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 도농 간 소득격차가 점차 심화되자 농촌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늘면서 우리나라 농촌은 고령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 농어촌체험관광을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이 시기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베이비붐세대가 점차 은퇴를 시작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쾌적한 전원생활을 위해 귀농·귀촌을 시작하면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어촌체험관광의 도입은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늦고 제도적, 환경적 여건도 갖춰지지 않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현재도 과도기에 있는 상태이다. 1980년대 관광농원, 1990년대 말 팜스테이로 시작한 우리나라 농촌관광은 초창기에 관광농원을 통해

단순히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이후 농촌체험관광이 양적 성장단계에 접어들면서 도시의 소비자들 가운데에는 농촌의 문화를 주민과 함께 향유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는 도시민과 농촌주민이 서로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네트워크와 교류를 통해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즉, 도시 소비자가 농촌을 찾아 단순히 농촌을 체험하고 일부 농산물을 구매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의 생태문화역사로까지 관심이 확대되면서 농촌 활성화와 같은 공공 목적을 위한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농특산물과 같은 농산품과 체험, 관광, 휴양 등을 포함한 물적 교류까지 포함한 다양한 교류가 도시와 농촌 간에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1984년 관광농원, 1991년 농가민박, 그리고 1999년 팜스테이마을 지정을 시작으로 2002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며, 2004년에는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1사1촌운동, 산촌생태마을 등 그 영역을 확대했다. 이처럼 농촌체험 관련 사업이 양적으로 급속하게 팽창되면서 농촌마을에서도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되었고 농촌체험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들이 불거지자 정부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농교류를 정부 차원에서 촉진시키기 위해 2008년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도농교류촉진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의해 그동안 농림부를 포함해 5개 부처 9개 사업으로 조성된 농촌체험마을들<sup>1)</sup>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돼 관리를 일원화하고 그동안 정부는 도농교류와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했다.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개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개최
- 농어촌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 전개
- 도농교류협력사업: 농어촌체험사업, 농어촌 전통문화체험사업, 농어촌 재능기부 사업 등
- 농어촌체험관광정보 제공: 2005년부터 웰촌포털([www.welchon.com](http://www.welchon.com)) 개설
- 농어촌유학 활성화 지원
- Rural-20 프로젝트 추진: 명품마을 선정해 외국인 대상 체험 진행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평가 및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제 도입

1) 5개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은 다음과 같다: 녹색농촌체험마을,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아름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정보화마을, 산촌생태마을, 어촌체험마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문화역사마을, 으뜸마을, 희망마을, 행복마을, 향토산업마을, 새농촌건설운동 등이다.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보험 지원 및 종합자문 지원
- 도농교류 인적역량 강화: 마을대표, 마을사무장 등 핵심리더 육성
- 농어촌 인력양성 인증제: 농어촌마을해설사, 농어촌체험지도사 양성과정 운영 지원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협의체 지원: 도 단위 협의회 당 사무장 지원(2명) 및 역량강화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및 평가: 2006년부터 마을사무장 채용 지원
- 마을단위 농어촌축제 지원: 휴양과 놀이문화를 접목한 농어촌축제 지원

## 2) 농어촌관광사업 등급 결정사업 추진<sup>2)</sup>

앞서 설명했듯 우리나라 농어촌체험마을은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면서 2000년 이후 급속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한 반면, 질적으로는 편차가 심해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됐다. 어떤 마을들은 주민주도로 체험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마을주민들에게 소득향상의 기회를 가져다준 반면, 많은 마을에서는 체험마을을 조성했지만 주민들 간 갈등과 관리 부실로 유지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마을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어촌관광사업의 품질을 유지하고 도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농어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농어촌관광사업 등급 결정사업을 실시했다.

그 동안 추진 경과를 보면, 2009년 총리실 주관으로 농어촌체험마을에 대해 실태를 분석하고 후속조치로 체험휴양마을 인증제 도입을 지시했다. 2009년~2012년에는 체험마을을 여건 및 해외선진사례 등을 분석해 등급결정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했고, 2012년 12월에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제도를 도입했다. 2013년 4월에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지정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요령」을 고시(농식품부 고시 2013-01호)해 이와 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3차례 실시했다.

등급 대상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이며 등급 부문은 체험휴양마을의 경우, 경관 및 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등 4개 부문이고 관광농원과 농어촌민박은 경관 및 서비스와 숙박 등 2개 부문이다. 구체적인 평가영역은 아래와 같다.

2) 본 내용은 2013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실시한 <농어촌관광사업 등급 결정 현장심사위원교육 자료>를 참고함.

- ① 경관 및 서비스: 경관 및 지원, 고객응대 서비스
- ② 체험프로그램 운영, 실내체험장 관리, 실외 체험장 관리
- ③ 건물외관 및 주위 환경, 출입구 및 안전관리, 객실관리, 화장실 및 욕실관리
- ④ 음식: 음식의 전통성, 취식 및 조리시설 관리, 건물 내외관 관리

이러한 평가 기준에 근거해 2014년 농림부로부터 등급 결정 심사를 받은 마을은 총 285개에 달했고 그 가운데 충남의 경우 38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심사를 받았다. 현장 심사위원<sup>3)</sup>에 의한 심사 결과 4개 전 부문에 대해 1등급으로 심사된 마을은 15개소이고 모든 부문에서 등급 외로 평가된 마을은 8개소에 달했다. 또한, 각 부문별 1등급으로 심사된 내용을 보면, ‘경관 및 서비스’ 부문은 33%, ‘체험’ 15%, ‘숙박’ 37%, ‘음식’ 17%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별 현장심사 결과 1등급을 받은 현황은 다음 [표 2-2]와 같다.

[표 2-2] 2014년도 시도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 결정 대상 마을

구분 (합계)	인 천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대상 마을 (285개)	4	2	1	1	27	62	20	38	32	34	29	30	5

출처: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2014.10), 「2014년 농촌관광사업 등급 결정 심의위원회」 회의자료

2014년도 시도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현장심사 결과 부문별 1등급 마을 현황 가운데 충남도의 경우를 보면, ‘경관 및 서비스’ 6개, ‘체험’ 5개, ‘숙박’ 9개, ‘음식’ 2개 마을로 평가 대상 마을이 충남도보다 적은 전북과 전남에 비해 심사 결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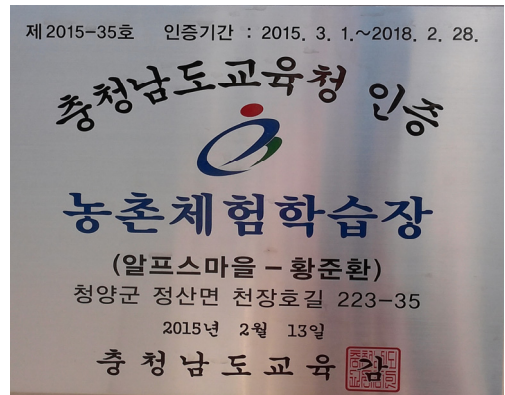
3) 2014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현장심사단은 현장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중에서 희망하는 참여 시기와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47개조로 구성됐다. 체험마을은 각 조별로 관광분야 4인, 위생 및 안전분야 1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총 45개조로 편성됐고, 민박은 각 조별로 관광분야 2인, 위생 및 안전분야 1인 등 총 3인으로 구성돼 총 2개조로 편성됐다. 2015년부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현장심사단 가운데 체험마을의 관광분야 심사단은 4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다.

[표 2-3] 2014년도 시도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현장심사 결과(1등급만 해당)

부문 (마을 수)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관/서비스 (285개)	3	2	-	-	5	24	5	6	12	13	11	11	3
체험 (285개)	1	2	-	-	3	9	2	5	8	5	2	7	-
숙박 (264개)	1	1	-	-	4	24	7	9	11	15	14	10	1
체험 (252개)	1	-	-	-	3	9	2	2	11	4	4	4	2

출처: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2014.10), 「2014년 농촌관광사업 등급 결정 심의위원회」 회의자료 재정리.

이처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가운데 분야별로 1등급 또는 일정 이상의 등급을 부여 받은 마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매체에 알려거나 농어촌체험관광 포털 사이트([www.welchon.com](http://www.welchon.com))에 게시해 홍보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공사에서는 등급 심사를 받은 모든 마을에 심사 결과를 알리는 표지판을 해당 마을에 보내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심사 결과는 2년 동안 유효하며 이후 신청에 의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농어촌체험휴양마을들은 자체적으로 끊임없이 품질을 높이는 작업이 요구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도시소비자들에게는 체험마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촌관광사업 등급 결정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향후 도농교류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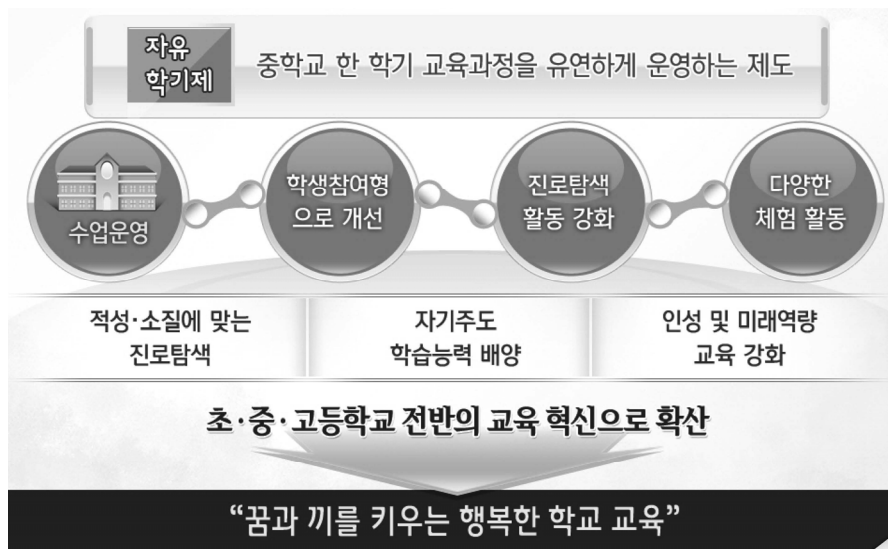


[그림 2-2] 경관/서비스, 숙박, 체험, 음식 등 네 분야에서 만점을 받은 청양알프스마을

### 3) 자유학기제 시행

정부는 2016학년도부터 중학교 2학년에 대해 자유학기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OECD 최고의 학업 성취도와 교육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만족도와 행복도는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지나친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장래에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탐색 기회가 적어 많은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타계하기 위해 2016년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홍보 자료를 보면,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되는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전체 교육체제의 우수성에 초점이 맞춰졌던 기존의 교육에서 앞으로는 개개인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으로 변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점수 위주의 교육에서 창의력과 인성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변화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교육에서는 자신에 대한 탐색과 고민의 시간이 부족했는데 앞으로는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탐색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라나는 청소년기 학생들이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유연한 교육과정을 통해 진로탐색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꿈과 끼를 키워나간다는 것이다.(<그림 2-3> 참조)



[그림 2-3] 자유학기제 실시 목적

출처: 교육부 자유학기제 홍보 자료(중학교 자유학기제 추진 계획, 2015)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향후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에는 다양한 종류의 직업이 존재하고 이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연과 더불어 농촌에서 유익한 직로 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농촌체험마을과 농장에서도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현재 현장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도농교류와 농촌체험 활동들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4)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반대로 시민의 의견을 정부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이 정책 실행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첫째, 협력적인 정부의 운영이다. 과거 관료가 모든 일을 기획하고 집행되는 사회에서는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즉 시민들의 협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가 되었다.

둘째, 접근의 편의성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정부도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자 다가가기 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다양한 입장과 주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기관이나 조직이 필요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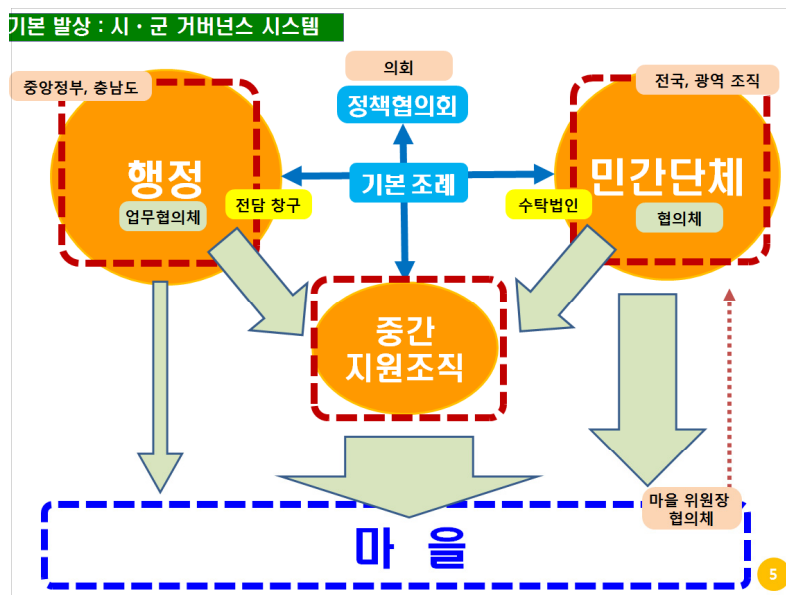
셋째, 업무의 효율성이다. 현재 기능별로 정부부처가 분산되어 있지만 사실 각 부처의 사업 중에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들이 많다. 이러한 사업들이 각 지방정부와 기관에 전달될 경우 하위 조직에서는 부서는 다르지만 비슷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비슷한 사업들을 하나의 조직에서 통합관리 및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이러한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넷째, 업무의 연속성이다. 관료제의 성격상 정부의 사업들은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관료의 잦은 자리이동으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현재 공무원들이 한번 사업부서에 부임을 하면 보통 2년 정도 사업을 담당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수없이 많다. 이렇게 잦은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민간에서 꼭 필요하고 시급성을 원하는 사업들이 지체내지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이러한 사업들이 폐지가 되어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의 사업이 일관되고 해당 관료들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 중간지원조직의 구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현재 계속해서 조직되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도의 경우 현재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충남도는 중앙정부의 다양한 사업들 가운데 비슷한 정책은 하나로 묶어 집행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충남도 자체적인 정책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 사업이다. 현재 중앙부처와 충남도에서 진행 중인 마을관련 사업들, 예를 들어 희망마을만들기,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두레기업), 도시재생, 귀농귀촌, 도농교류, 농촌체험관광 등 다양한 정책들 가운데 비슷한 사업들은 하나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현장까지 집행될 수 있는 방안으로 중간지원조직의 구축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현재 충남도 차원에서는 이러한 마을만들기 관련 여러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우선 충남도 내 5개 시·군(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홍성군, 예산군)에서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고 2016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이를 적극 강구하고 있다.



[그림 2-4]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관한 개념도

출처: 구자인(2015), 주민 주도 상향식의 마을만들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아산시 제1회 마을학교 5차 종합토론회 발표자료

따라서 이러한 정책 기조에 맞춰 각 시·군에서도 도농교류와 농촌체험관광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구축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을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며 지속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구자인, 2015)의 고민처럼 우리가 어떻게 체험마을과 체험농장을 지원하는 것이 도농교류와 농촌체험관광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미 양평군의 “농촌나드리”가 도농교류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써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고 충남도에서는 현재 홍성군의 농어촌체험관광협의회와 농어촌체험관광지원센터가 조직되어 있고 청양군의 도농교류센터인 “칠갑마중”이 비교적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중간지원조직의 모델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제3장 충남도 도농교류 현황 및 문제점

### 1. 충남도 도농교류 정책 현황

도농교류의 대표 사업인 농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2년 이전부터 충남도는 이미 농어촌체험학습과 관광이 미래 농촌마을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임을 인지하고 농어촌체험마을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충남도의 농어촌체험마을 가운데에는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마을이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최초로 오리농법을 도입하는 등 친환경농업과 농촌체험 활동을 선도하고 현재는 농업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홍성의 문당친환경농업마을, 마을의 전통자원과 문화를 활용해 체험과 관광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 아산의 외암민속마을과 홍성의 거북이마을, 생태와 환경 그리고 바다 자원을 활용해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는 태안의 뱃가리마을, 오지의 불리한 자연환경을 맑고 낭만적인 이미지로 역이용해 체험과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청양의 알프스마을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청양의 알프스마을은 어린이들에게 ‘청양군’은 모르지만 ‘청양 알프스마을’하면 다 알 정도로 인지도와 마을브랜드 가치가 높은 마을이다.<sup>4)</sup>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3농혁신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민선5기(2011~2014) 기간 동안 도농교류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민선6기(2015~2018)의 사업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민선 5기 도농교류사업의 현황과 성과

충남도는 지난 민선 5기 때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농 소득 격차의 심화, 지방개방과 경쟁력 약화, 식량자급률의 하락 등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현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정의 제1 목표로 3농혁신을 추진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농어업인,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공무원 등 민·관·학 협력 모델이 3농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4) 박경철(2013). 충남도 농어촌체험마을의 운영 현황과 과제. 『충남경제』 11월호.

3농혁신위원회는 5단 18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2011~2014년 기간 동안인 1단계 사업 추진 방향으로 친환경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마을가꾸기, 도농교류, 인재육성 등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핵심 30대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추진했다. 이 가운데 도농교류사업은 도농교류사업단의 농어촌체험관광팀과 농어촌사랑운동팀이 담당했으며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첫 번째는 즐겁고 안전한 농어촌체험관광마을 건설, 두 번째는 범사회적 농어촌사랑운동 추진이었다. 이를 통해 민선 5기 도농교류의 성과는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즐겁고 안전한 농어촌체험관광마을을 육성했다. 충남도는 신규 농어촌체험마을 10개소를 지정하고 18개 체험마을에 대해 체험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시설을 개보수해 체험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구축했다.

둘째, 체험마을 자생력 확보를 위한 민간 자치 역량을 강화했다. 24개 농어촌체험마을의 리더와 관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 마을 컨설팅을 실시했다.

셋째, 사회 전체적으로 농어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농어촌사랑운동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민간조직을 육성했다. 2012년 4월 농어촌사랑운동본부가 발족됐으며 1사1촌 자매결연 건수도 9,900회에 달했다. 또한 2013년 5월 전국 최초로 ((사)충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설립되어 행정과 체험마을 중간에서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조정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넷째, 차별화된 홍보와 협력을 강화했다. 충남도, 관광공사, 코레일, 충남농어촌체험마을협의회가 2012년 4월 협약을 체결해 「고향마실 기차여행」 프로그램('13년 5월)을 운영했고, 충남도와 한국관광공사가 2013년 6월에 협약을 맺고 대학생인턴 활용 체험마을 홍보사업을 전개했다. 또한 농어촌 체험학습과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충청권 3개 시도가 2014년 7월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2014년 8월에는 충남도와 도 교육청 간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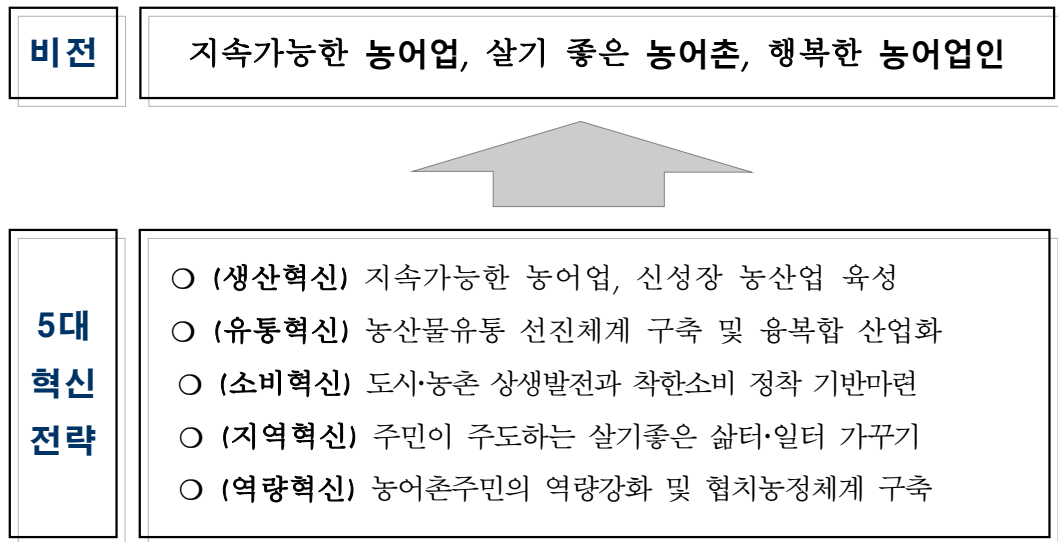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그동안 충남도는 도농교류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와 도농 상생발전 촉진을 위한 농촌체험휴양마을<sup>5)</sup> 조성을 통해 2011년 청양 알프

5) 정부에서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도농교류촉진법’)을 제정해 기존의 체험마을 가운데 자기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해 체험활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에 대해 시장·군수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하고 이들 마을이 각 지자체 단위에서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5년 10월 기준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충남도 마을은 127개(실질적으로는 120)이다.

스마일, 2013년 홍성 거북이마을, 2014년 청양 칠갑산산꽃마을, 2015년 청양 알프스마을이 전국 단위 농촌마을대상과 도농교류대상을 연거푸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14년에 충남도, 대전광역시, 세종시 등 충청권 3개 시도가 참여하는 도농교류 박람회인 「고향마실 페스티벌」은 해를 거듭할수록 열기를 더해가고 있어 현재는 전국적 모델로 타 시도에 벤치마킹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11년 14개교에서 시작된 도심 속의 학교농 만들기 사업은 2014년 101개교로 확대될 만큼 도시학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의 추진 내용과 성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 2) 민선 6기 도농교류사업의 정책 방향

충남도는 민선6기에 들어서면서 민선 5기 3농혁신을 기반으로 2단계(2015~2018) 3농혁신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그동안 1단계의 3농혁신이 하드파워와 행정주도였다면 2단계에서는 소프트파워와 협치농정을 중시하고, 대외경쟁력 중심에서 협동과 연대, 지역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외부 의존형 발전에서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도모하고, 생산기반 위주의 지원 정책에서 가공·유통·마케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농어업은 가치증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육성하고, 농어촌은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며, 농어업인은 농어업인이 주체가 되는 협치농정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대 혁신 전략을 수립했다.(<그림 3-1> 참조)



[그림 3-1] 민선 6기 3농혁신의 비전과 5대 혁신 전략

참고자료: 충남도청 농정국, 2015 3농혁신 추진상황 보고, 2015. 08.

구체적인 전략 내용을 보면, 첫째,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신성장 농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생산혁신, 둘째, 농산물유통 선진체계 구축 및 융복합 산업화를 위한 유통혁신, 셋째, 도시·농촌 상생발전과 착한소비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소비혁신,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좋은 삶터·일터를 가꾸는 지역혁신, 마지막으로 농어촌주민의 역량강화 및 협치농정체제를 구축하는 역량혁신 등이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 행복한 농어업인을 실현하는 것이다.(<그림 3-1>, <그림 3-2> 참조)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사실은 민선 5기 3농혁신 정책에서 도농교류사업은 도농교류추진단에서 추진했으나 민선 6기에서는 소비혁신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소비혁신을 통해 도시민이 농어업과 농어촌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꾀하고 결과적으로 착한 소비풍토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림 3-2] 민선 6기 3농혁신 <소비혁신> 추진 개념도

참고자료: 충남도청 농정국, 2015 3농혁신 추진상황 보고, 2015. 08.

이를 위해 민선 6기 2단계 3농혁신에서는 다음 [그림 3-3]과 같이 도농 상생발전과 착한 소비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2대 과제, 8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될 계획이다. 2대 과제 가운데 첫 번째 과제는 공정팜핑에 기초한 도농 쌍방향적 교류 활성화이며 여기에는 4개 중점 사업, 즉 1)충남형 「3味프로젝트」 추진, 2)생활형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3)도농교류 활성화 시스템 구축, 4)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로컬푸드 운동 확산 등이 있다. 소비혁신의 두 번째 과제는 농업가치 교육 및 농촌어메니티 활성화사업으로 여기에도 4개 중점 과제, 즉 1)농업의 가치 이해 및 농촌체험 활동, 2)바른 식생활 실천, 3)농업·농촌 가치 확산 프로젝트, 4)도시농업 활성화 기반 구축 등이 있다.

도시·농촌 상생발전과 착한 소비 정착 기반 마련 (2대 과제 8개 중점사업)	
소 비 혁 신	<div>1.도농교류</div> <div> <b>【과제1】 공정팜핑에 기초한 도농 쌍방향적 교류 활성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충남형 「3味프로젝트」 추진</li> <li>② 생활형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li> <li>③ 도농교류 활성화 시스템 구축</li> <li>④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로컬푸드 운동 확산</li> </ul> </div>
	<div>2.농어업·농어촌 가치증진</div> <div> <b>【과제2】 농업가치 교육 및 농촌어메니티 활성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농업의 가치 이해 및 농촌체험 활동</li> <li>② 전통식문화 계승보급 및 바른 식생활 실천</li> <li>③ 농업·농촌 가치 확산 프로젝트</li> <li>④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구축</li> </ul> </div>

참고자료: 충남도청 농정국, 2015 3농혁신 추진상황 보고( 2015. 08) 내용 재정리

### [그림 3-3] 2단계 3농혁신 정책의 소비혁신 과제와 중점사업

위와 같이 2단계 3농혁신 정책 가운데 소비혁신을 통해 충남도는 도농교류 분야에서 다음과 같이 3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첫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방문 체험객을 2014년 135만 명에서 2018년 200만 명으로 확대하고, 둘째,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도농교류 전문인력을 2014년 100명에서 2018년 500명까지 육성할 계획이며, 세 번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매출액을 2014년 120억 원에서 2018년까지 200억 원으로 증대해 농촌관광의 고부가가치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2. 충남 농촌체험마을 운영 현황

### 1) 농어촌체험마을 지정 현황

도농교류의 거점이 되는 농촌체험마을(어촌체험마을 포함)은 2002년 농림부가 처음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지정한 이후 정부 각 부처에서 다양한 형태의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해왔다.

각 정부부처별 농촌체험마을 형태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녹색농촌체험마을과 마을종합개발사업권역사업을,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마을을, 행정자치부는 아름마을과 정보화마을을, 환경부는 자연생태마을을, 농촌진흥청은 전통테마마을을, 산림청은 산촌생태마을과 숲가꾸기마을을 지정해 육성·관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각기 농촌체험마을을 지정해 육성·관리하고 있다.

이렇듯 농촌체험마을은 정부 각 부처의 경쟁적 지원과 다양한 사업으로 양적으로는 급속하게 팽창되어 왔으나 그 실질적 운영 측면에서는 부실하다는 비판이 대두되면서 최근 들어 농촌체험마을은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 즉, 그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내실을 기해온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반면, 지정만 받고 실질적 활동이 없는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등록을 보류하거나 취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 [표 3-1]을 보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2015년 현재 전국의 농어촌체험마을은 1,259개로 전년 대비 713개 감소했다. 불과 2년 만에 36.2%가 감소한 것이다. 특히, 어촌체험마을과 산촌생태마을은 약 1/3로 감소됐다. 마찬가지로 충남도의 경우 2015년 11월 기준 농어촌체험마을 등록마을 수는 171개로 전년 대비 84개가 감소해 감소폭도 33.0%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감소폭은 전국 대비 낮은 편이어서 충남도의 농어촌체험마을 비중은 12.9%에서 13.6%로 다소 상승했다.

[표 3-1] 전국 대비 충남도 농어촌체험마을 지정 현황

단위: 개, %

조성 유형		전국 마을 수		충남도 마을 수		충남도/전국(%)	
		2013년	2015년	2013년	2015년	2013년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녹색농촌체험마을	588	457	80	63	13.6	13.8
	마을종합개발사업권역	208	150	38	23	18.3	15.3
해양수산부	어촌체험마을	111	34	10	6	9.0	17.6
행정자치부	아름마을	21	12	2	3	9.5	25.0
	정보화마을	258	124	27	16	10.5	12.9
환경부	자연생태마을	45	47	2	3	4.4	6.4
농촌진흥청	전통테마마을	172	115	36	25	20.9	21.7
산림청	산촌생태마을	313	107	31	14	9.9	13.1
	숲가꾸기마을	16	14	1	1	6.3	7.1
시·군지정	기타(시·군)	85	79	8	3	9.4	3.8
	기타(시·도)	155	120	20	14	12.9	11.7
계		1972	1259	255	171	12.9	13.6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체험마을관리시스템(www.ruocs.com) 통계자료 재정리(2013. 10/ 2015. 11).

농어촌체험마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육성·관리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은 2015년 11월 현재 전국적으로 901개가 있으며 그 중에서 충남도는 127개 14.1%로, 강원도 167개로 18.5%, 전남 129개로 14.3%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표 3-2> 참조)

[표 3-2] 전국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2015)

단위: 개, %

지역	마을 수(%)	지역	마을 수(%)
인천	5(0.6)	충남	127(14.1)
대전	5(0.6)	전북	94(10.4)
울산	6(0.7)	전남	129(14.3)
세종	4(0.4)	경북	95(10.5)
경기	96(10.7)	경남	102(11.3)
강원	167(18.5)	제주	13(1.4)
충북	58(6.4)	총계	901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체험마을관리시스템(www.rucos.com) 통계자료(2015. 11).

##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방문 목적 및 체류 유형

최근 3년간 충남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방문 목적별 방문 인원을 보면, 2013년에는 전체 1,002,985명에 달했다. 이를 당해 연도 RUCOS에 등록된 83개 마을로 나눌 경우 평균 마을당 12,08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사건이 있었던 2014년 방문한 인원을 보면, 전체 방문 인원은 1,091,402명에 달하고 이를 등록된 99개 마을로 나눌 경우 마을당 11,0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세월호사건으로 마을당 평균 방문 인원은 약 천 명이 줄어들었으나 예상보다 큰 감소폭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3-3> 참조)

2015년 10월 기준으로 체험객의 방문 목적별 방문 인원을 보면, 전체 891,696명 가운데 휴양/체험이 514,229명으로 전체의 과반이 넘는 57.7%를 차지했고, 다음이 단순 방문객으로 30.5%를 차지했으며, 1사1촌이 8.4%, 교육/연구가 3.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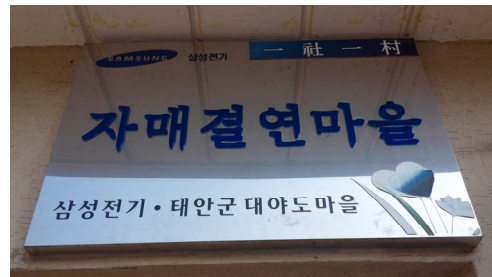
[표 3-3] 충남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방문 목적별 방문 인원

단위: 개, 명

년도(등록마을 수)	방문 목적별 방문인원(명)				
	합계	휴양/체험	교육/연수	1사1촌	단순방문객
2013(83개)	1,002,985	597,267	48,958	99,277	257,483
2014(99개)	1,091,402	552,231	32,584	88,996	417,591
2015(106개)	891,696	514,229	30,278	75,255	271,934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체험마을 관리시스템(www.ruocos.com) 통계자료 재정리(2015. 11).

주: 2015년 수치는 10월까지 RUOOS에 등록된 수치임(이하 동일)



[그림 3-4] 1사1촌을 통해 자매결연을 체결한 마을의 예(태안군 대야도마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류 목적별 방문 인원을 보면, 2014년 기준 전체 방문 인원 1,091,402명 가운데 당일 방문이 481,685명으로 전체의 44.1%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단순 방문객이 417,591명으로 38.3%, 숙박은 121,784명으로 11.2%, 마지막으로 기타가 70,342명으로 6.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참조)

[표 3-4] 충남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체류 목적별 방문 인원

단위: 개, 명

년도(등록마을 수)	체류 유형별 방문인원(명)				
	합계	당일	숙박	단순방문객	기타
2013(83개)	1,002,985	559,067	128,771	257,483	57,664
2014(99개)	1,091,402	481,685	121,784	417,591	70,342
2015(106개)	891,696	475,479	90,666	271,934	53,617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체험마을 관리시스템(www.ruocos.com) 통계자료 재정리(2015. 11).

###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매출액 현황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운영 목표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마을주민의 소득 증대이다. 체험마을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득이 향상되지 않으면 체험마을도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최근 들어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 번째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농촌체험과 관련해 마을단위, 혹은 농가단위 체험활동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는 최근 들어, 2013년 야생진드기사건, 2014년 세월호사건, 2015년 메르스사태와 같이 돌발적 사건이 매해 발생한 것이다. 농어촌체험 활동은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 타격은 체험마을과 농장에 직접적으로 과급되는 것이다.

2013년 RUCOS에 등록된 83개 마을의 전체 매출액은 8,160백만 원에 달하고 이를 마을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98.3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유형별 매출액을 보면, 체험이 3,018백만 원, 마을당 평균 98.3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음식이 1,928백만 원(마을당 평균 23.2백만 원), 농산물판매 1,669백만 원(마을당 평균 20.1백만 원), 숙박이 971백만 원(마을당 평균 11.7백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표 3-5> 참조)

전체적으로 보면, 2013년보다 2014년 평균 매출액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나 체험 수익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역을 보면, 특히 음식의 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체험마을당 음식의 평균 매출액은 23.2백만 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12.3%로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표 3-5] 충남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수입 유형별 매출액

년도 (등록마을 수)	매출액(백만 원)							
	합계	체험	숙박	음식	농산물 판매	시설임 대	주민개 별판매	기타
2013(83개) (마을당 평균)	8,160 (98.3)	3,018 (36.4)	971 (11.7)	1,928 (23.2)	1,669 (20.1)	134 (1.6)	25 (0.3)	414 (5.0)
2014(99개) (마을당 평균)	9,083 (91.7)	4,107 (41.5)	1,072 (10.8)	1,220 (12.3)	1,859 (18.8)	128 (1.3)	18 (0.2)	678 (6.8)
2015(106) (마을당 평균)	7,635 (72.0)	3,420 (32.3)	809 (7.6)	1,153 (10.9)	1,691 (16.0)	80 (0.8)	9 (0.1)	477 (4.5)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체험마을 관리시스템(www.rucos.com) 통계자료 재정리(2015. 11).

주: 2015년 수치는 10월까지 RUCOS에 등록된 수치임.

### 3. 개별 농촌체험마을의 운영 현황

#### 1) 개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방문 목적 및 체류 유형

앞서 충남도 전체 농어촌체험마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충남도의 개별 사례 농어촌체험마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사례 마을은 4곳이다. 충남의 남부 해안지역인 보령, 중부인 중남부의 공주, 중부인 청양, 북부의 아산지역에서 각각 일반 체험마을 한 곳을 선정해 각기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개별 농어촌체험휴양마을별 방문 인원 및 체류 유형을 보면, 첫 번째 체험마을인 공주 Y체험마을의 경우 2012년에 6,0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야생진드기사건과 세월호사건을 거치면서 다소 감소하다 2015년 10월 현재 원래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 Y체험마을은 2013년과 2014년 1사1촌을 통해 3,000~4,000여 명이 찾아올 정도로 1사1촌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5년 10월까지의 475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1사1촌을 통한 안정적 방문객 유치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체험마을인 보령 S체험마을의 경우 2013년까지 1,000명 이하의 방문객이 찾아왔으나 세월호사건이 있었던 2014년에는 오히려 3855명으로 전년에 비해 약 4배 증가했다. 그러나 다음 해인 2015년에는 전년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세 번째 체험마을인 아산 N체험마을의 경우 2011년 7,343명에 달했으나 그 이후 대폭 감소해 1,000~2,000여 명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마을의 방문목적별 방문 인원을 보면 체험/휴양을 위한 방문객은 1,000여 명으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1사1촌은 2011년 0명에서 2012년 78명, 2013년 490명, 2014년 963명, 2015년 1,014명으로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마을의 경우 1사1촌을 통해 안정적인 방문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양의 L체험마을의 경우 2011년 592명에서 2012년 1,470명, 2013년 2,304명으로 증가하였고 세월호사건이 발생한 2014년에도 3,699명으로 증가했다. 2015년 10월까지 3,284명이 방문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증가원인을 보면, 체류형 방문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체류형 숙박인원은 645명에서 2014년에는 1,523명, 2015년에는 1,647명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원인은 교육/연수를 위한 방문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2013년 교육/연수를 위한 방문 인원은 23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533명, 2015년에는 966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이 기간에 1사1촌을 통한 방문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험휴양마을로써의 안정적 경영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상 4곳의 체험마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첫째, 2014년 세월호사건과 2015년 메르스사태로 인해 일반적으로 방문객이 감소하긴 했지만 청양 L체험마을처럼 꼭 그렇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사례 체험마을이 방문객을 유치하는 방법도 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공주 Y체험마을과 아산 N체험마을은 1사1촌을 통해 안정적으로 방문객을 유치하고, 보령 S체험마을은 체험/휴양을 통해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청양 L체험마을은 교육/연수 그리고 1사1촌을 통해 안정적으로 방문객을 유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마을의 여건을 활용한 방문객 유치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표 3-6> 참조)

[표 3-6] 개별 농어촌체험휴양마을별 방문 인원 및 체류 유형

마을명	기간	방문목적별 방문인원(명)					체류유형별 방문인원(명)				
	년도	합계	휴양/체험	교육/연수	1사1촌	단순방문객	합계	당일	숙박	단순방문객	기타
공주 Y체험 마을	2011	1,553	218	0	1335		1,553	1,504	49		0
	2012	6,094	2,701	90	3303		6,094	6,094	0		0
	2013	5,554	1,100	72	4382		5,554	1,322	12		4,220
	2014	4,463	1,178	10	3275		4,463	4,463	0		0
	2015	5,890	3,819	1,596	475		5,890	2,968	1,211		1711
보령 S체험 마을	2011	937	864	0	73		937	882	20		35
	2012	450	362	88	0		450	342	78		30
	2013	904	780	59	65		904	615	254		35
	2014	3,855	3,851	0	4		3,855	3,555	300		0
	2015	1,595	1,158	347	90		1,595	918	677		0
아산 N체험 마을	2011	7,343	7,343	0	0		7,343	1,306	5,500		537
	2012	1,447	1,123	246	78		1,447	1,405	41		1
	2013	2,020	1,270	167	490	93	2,020	1,307	550	93	70
	2014	2,398	1,200	235	963		2,398	2,091	292		15
	2015	2,122	1,067	41	1,014		2,122	1,848	187		87

청양 L체험 마을	2011	592	621	19	-48		592	279	179		134
	2012	1,470	937	0	533		1,470	1,142	316		12
	2013	2,304	1,359	23	599	323	2,304	1,336	645	323	0
	2014	3,699	2,193	533	810	163	3,699	2,013	1,523	163	0
	2015	3,284	1,507	966	766	45	3,284	1,592	1647	45	0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체험마을 관리시스템([www.rucos.com](http://www.rucos.com)) 통계자료 재정리(2015. 11).

## 2) 개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매출액 현황

개별 농어촌체험휴양마을별 매출액 현황을 보면, 첫 번째 공주 Y체험마을의 경우 체험과 음식을 통해 매년 60,000~80,000천여 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올렸다.

두 번째 보령 S체험마을의 경우 2011년에는 43,007천 원이었다가 2012년에는 7,725천 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격년으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세 번째 아산 N체험마을의 경우 2011년에는 매출액에서 69,088천 원으로 높은 매출액을 보이다 이후 10,000~20,000천여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매출 내역을 보면, 체험, 숙박, 음식, 농산물판매, 시설임대 등이 매년 다르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L체험마을의 경우 2013년을 제외하면 매출액은 매년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세부 매출 내역을 보면, 체험은 점점 감소 추세에 있으나 숙박과 음식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상 네 개 체험마을의 매출액 현황을 분석하면, 마을마다 각기 다른 매출 통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주 Y체험마을은 체험 위주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아산 N체험마을은 숙박과 음식을, 청양 L체험마을은 숙박, 음식, 농산물판매 등으로 나타났다. (<표 3-7> 참조)

[표 3-7] 개별 농어촌체험휴양마을별 매출액 현황

마을명	매출액(천 원)								
	년도	합계	체험	숙박	음식	농산물 판매	시설 임대	주민 개별 판매	기타
공주 Y체험 마을	2011	74,579	73,455	0	1,124	0	0		0
	2012	80,844	75,702	0	5,142	0	0		0
	2013	89,298	84,290	0	5,008	0	0		
	2014	67,050	59,139	0	7,911	0	0		
	2015	73,892	61,471	1,050	11,371	0	0		0
보령 S체험 마을	2011	43,007	2,210	400	1,244	39,153	300		-300
	2012	7,725	3,308	500	2,117	1,200	500		100
	2013	82,203	9,631	2,780	5,432	64,160	200		0
	2014	13,417	5,834	1,550	1,955	3,928	150		0
	2015	39,042	24,810	1,000	8,971	4,261	0		0
아산 N체험 마을	2011	69,088	7,280	60,300	1,288	220	0		0
	2012	11,468	4,210	850	3,947	55	50		2,356
	2013	22,512	5,695	8,510	6,085	1,822	30		370
	2014	21,962	3,740	6,720	7,712	3,623	167		0
	2015	13,460	7,059	2,820	1,599	1,982	0		0
청양 L체험 마을	2011	17,208	5,226	2,535	4,675	4,772	1,890		-1,890
	2012	35,469	7,039	2,500	9,314	16,086	530		0
	2013	24,712	7,041	5,200	5,833	5,588	1,050		
	2014	40,542	7,100	18,370	10,597	1,395	3,080		0
	2015	47,993	3,324	25,670	10,431	6,488	2,080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체험마을 관리시스템([www.ruocs.com](http://www.ruocs.com)) 통계자료 재정리(2015. 11).

## 제4장 도농교류 중간지원조직 현황과 과제

### 1.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및 역할

#### 1) 개념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역마다 출현 배경이 다르다 보니 개념 또한 다르게 정의된다. 우리나라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1)은 “중간지원조직은 기획력과 전문성, 마케팅 능력 등을 갖춘 에이전시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및 연구 등을 통해 활동기반 및 전문지식을 구축하고 공동의 ‘핵심목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력과 정보제공, 인재육성 등을 실행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한 반면, 일본 내각부(2002)는 “다원적 사회에서 공생과 협력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NPO의 변화와 요구를 파악하여 이에 필요한 자원(인재, 자금, 정보)을 제공하고, NPO간 네트워크를 촉진하며, 가치창출(정책제언, 조사연구)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송두범 2011, 재인용)

또한, 중간지원조직이 등장하게 된 배경도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중심의 각종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추진하면서 정부와 민간 간 협력적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체로서의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해 등장하게 되었고, 일본에서는 1995년 고베 대지진 이후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조직된 다양한 시민단체가 만들어졌고 이후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재난관리와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특히, NPO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서는 관련 지원법을 제정하고 인력과 재정을 지원해 왔다.

## 2) 역할과 기능

앞서 설명했듯이 중간지원조직은 국가와 지역의 상황에 따라 그 출현 배경이 따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중간지원조직이 활성화됐던 미국 등 유럽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과 이를 감시하는 차원에서 중간지원조직이 활성화됐고, 일본은 재난 대비와 재난 후 사회복지 차원에서 중간지원조직이 발달했다. 비교적 뒤늦은 논의와 도입이 이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전달 차원에서 중간지원조직이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그 배경이 제각각 다른 상황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은 다를 수밖에 없다.

송두범(2011)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2002)가 규정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은 1)정보의 수발신, 2)자원과 기술의 중개, 3)인재 육성, 4)상담 및 컨설팅, 5)네트워크 및 교류촉진, 6)평가, 7)정책 제안, 8)조사연구 등 모두 8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충남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을 크게 4가지로 규정했다. 즉, 첫째,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제공, 둘째, 조사교육연구 및 정책개발, 셋째, 사회적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경영지원, 넷째, 네트워크 및 교류촉진이다.

도농교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첫째, 일상적인 마을 상담 및 컨설팅, 둘째, 찾아가는 마을주민 교육 등 맞춤형 교육 실시, 셋째,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상담과 프로그램 지원, 넷째, 마을조사 및 분석과 정보 수집 및 정리, 마지막으로 소식지 제작 및 배포, 홈페이지 및 SNS 관리 등이다. 하지만 중간지원조직이 지역의 여건에 따라 그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도농교류, 농촌관광, 농업6차산업, 귀농귀촌과 같은 농촌지역사회개발의 전 영역이고, 둘째는 주민자치, 평생학습, 청년창업 등 사회적경제의 영역이다.(박경철 등, 2015b) 이처럼 다양한 농촌지역사회개발과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중간지원조직은 어느 정도 공통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그 확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 2. 도농교류 관련 충남도 중간지원조직의 현황

### 1) (사)충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 (1) 조직 현황

지금의 사단법인 충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03년에 성립이 되었지만 이 협의회가 처음 조직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이다. 이 때 처음으로 충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해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선출하고 이듬해 10월 법인등기를 마쳤다. 이어서 충남도청, 충남도교육청 등과의 MOU 체결, 휴양마을 스마트폰 앱 개발, 시범사업(DB 구축, 프로그램 개발 및 책잡 발간, BI, CI 개발)을 실시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 2011년까지 모두 50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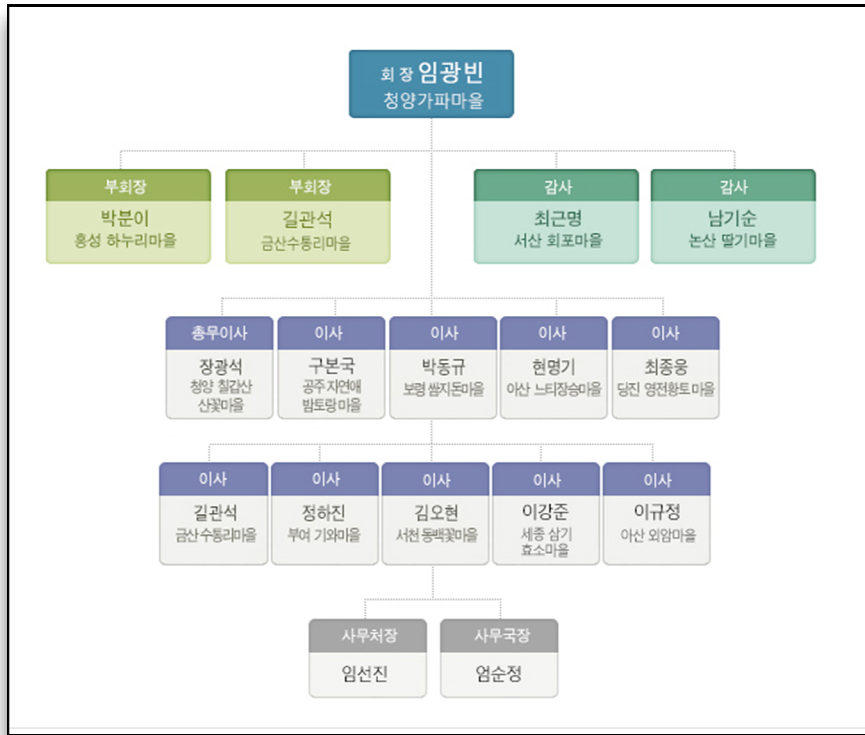
2012년부터는 철도이동을 활용한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충남도, 충청남도 교육청,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한국관광공사 충청권협력단,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와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2012년 6월 28일~7월 1일까지 처음으로 여름휴가 페스티벌을 운영했고, 휴양마을을 소개하는 만화책자와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전국체험휴양마을 사무장 교육 등을 진행했다.

이후 2013년에는 총 85개 마을이, 2014년에는 총 93개 마을이 도 협의회에 회원으로 등록했다. 이를 위해 도 협의회에서는 체험프로그램 경진대회, 사무장 초급 및 중급교육, 고향마실 상표등록, 선진지 견학 등의 사업을 진했다. 특히, 2014년에는 중부권 최초이자 최대의 도농교류 행사인 <고향마실 페스티벌>을 대전시에서 개최해 마스크와 도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충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의 조직 현황을 보면, 회장(1명), 부회장(2명), 감사(2명), 총무이사(1명), 이사(10명), 사무국장(1명), 사무처장(1명)으로 구성됐다. 이사 이상의 임원진은 충남도 각 시·군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충남도 15개 시·군 가운데 현재까지 11개 시·군 체험마을협의회 대표들<sup>6)</sup>이 참여하고 있다.(<그림 4-1> 참

6) 11개 시·군 체험마을협의회는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등이

조)



[그림 4-1] 충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조직도

출처: 고향마실(<http://www.ghmasil.co.kr/>)

## (2) 주요 활동 내용

2009년 처음 조직된 충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는 그동안 행정과 마을에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정보 전달, 회원마을 관리, 마을지도자 및 관리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및 안내책자 개발과 홍보 등 많은 일을 수행해 왔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되는 사업은 <고향마실 페스티벌>이다. 이 행사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서울과 경기도민을 상대로 진행되어 왔던 기존의 도농교류 행사를 탈피해 중부권의 도시민을 상대로 한 최초이자 최대의 도농교류 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며 충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대표는 청양가파마을위원장인 임광빈 회장이다.

2014년 처음으로 대전시에서 개최된 데 이어 2015년에는 세종시에서 개최되었다.(<그림 4-2> 참조) 이 행사는 충청도와 대전시, 세종시, 그리고 충북도가 함께 개최하고 충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주관했으며 충남 64개 마을, 대전 5개 마을, 세종 4개 마을, 충북 4개 마을 등 모두 77개 우수 체험마을이 이 행사에 참여해 개별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소개하기도 했다. 체험프로그램은 수박밭체험, 고구마·감자캐기, 한과만들기, 천연염색, 떡메치기, 모심기, 물고기잡기, 나비 전시 등 모두 130여 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해 도시민들에게 제공했으며 2014년 대전시에서 개최될 때는 빠졌던 지역 산 농산물 판매를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 판매함으로써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행사는 충청권 주요 도시를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진행될 예정이며 2016년 행사는 아산시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그림 4-2] 고향마실페스티벌 개최 현황

## 2)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 (1) 조직 현황

((사)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이하 “충남친농연”)는 그동안 각 시·군에서 산발적으로 조직되어오던 조직을 2011년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서천군, 청양군 친환경농업인조직이 연합해 충남도를 친환경유기농 생산 유통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설립한 조직이다. 이 단체의 주요 목표<sup>7)</sup>는 1)안전한 농축산물 생산과 건강한 공급, 2)친환경 학교급식과 공급 급식의 핵심주체로서의 역할, 3)광역브랜드 구축을 통한 유기농의 메카로 자리매김, 4)친환경농업 자조금 조성, 5)전국적인 친환경 농업의 선도와 먹거리 기본권 노력 등이다.

충남친농연은 2011년 처음 결성된 첫 해부터 「도심 속 학교농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다. 첫해에는 공주, 보령, 서산, 논산, 서천, 청양 등 6개 시·군의 친환경농업인단체가 참여했고 다음해에는 천안시와 계룡시를 제외한 13개 시·군 친환경농업인단체가 참여했으며 2013년부터는 계룡시를 제외한 전 시·군의 친환경농업인단체가 「도심 속 학교농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사무국은 예산군 소재 충남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내에 설치되어 있다.

### (2) 주요 활동 내용

충남도의 도농교류사업 중에 타 지역에서는 시도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 「도심 속 학교농 만들기」이다. 이 사업은 기존의 도농교류사업에서 농촌체험 활동들이 농촌에서만 진행될 수 있다는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농민들이 자매지역 학교에 찾아가 도시 속 아이들과 함께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다.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2011년에 처음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학교 14곳(서울 10곳, 대전 6곳)을 찾아가 학교 내 생태학습농장을 조성하고 봄에 아이들과 함께 모내기를 하고 가을에는 함께 추수행사를 벌여 도시 속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그림 4-3,4> 참조)

이후 2012년부터는 학교 수가 100곳으로 대폭 늘어나 도농교류 활동도 크게 증가했다. 학교도 서울 54곳, 대전 25곳, 충남 21곳으로 서울과 대전뿐만 아니라 천안 등 충남도 내 도시

7) 2015년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진대회 결의문 내용: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881633&thread=09r02>

학교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100곳의 학교는 이후에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처음 14곳에서 100곳으로 증가하다보니 농업인들의 업무량도 늘어나 더 이상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심 속 학교논 만들기」 사업이 농번기 철에 이뤄지다보니 농업인들이 활동을 확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2013년 한 해만 모내기과 벼베기, 탈곡체험 등 「도심 속 학교논 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초·중·고학생은 약 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도심 속의 아이들에게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며 자매결연을 체결한 학교와 학부모들에게는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학교급식 납품과 판매 등으로 도농교류의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

「도심 속 학교논 만들기」 사업은 이처럼 여러 가지 성과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촌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인성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농부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들었어요.” “시골 외할머니가 생각났어요!

모심기에서 벼베기 그리고 탈곡 등 벼의 생육과 결실의 과정을 체험한 한 학생이 친환경농업인단체에 보내온 편지에서 알 수 있듯이 영농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정서가 풍부해짐을 알 수 있다. 2011년 충남도 친환경농업사업단에서 처음 실시했던 「도심 속 학교논 만들기」 사업은 2013년부터 충남체험휴양마을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다 현재는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남산초등학교의 모내기행사는 흥성친환경작목회와 함께 진행한다. 흥성의 농부들은 바로 학교 논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던 장본인들. 작목회 주형로 회장은 2년 전 처음 학교 논 만들기를 기획했고, 지금까지 학교 논 프로젝트를 이끌어오고 있다.

남산초등학교의 모내기 행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작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끼리 했으니 농부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하는 모내기 행사는 올해가 처음인 셈이다. 남산초등학교 최미경 선생님은 흥성에서 농부님들이 직접 오셔서 함께 하니까 정말 제대로 된 공부가 되었다며 흥성 농부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최미경 교장선생님은 생태·농사 교육에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였다.

“요즘은 아이들이 형제자매가 많지 않다 보니까 누구를 돌보고 보살피는 경험이 부족해서 남에 대한 배려를 배우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명을 가꾸고 보살피는 경험을 통해 남을 배려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태도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봐요. 급식지도를 할 때 영양사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벼를 길렀던 경험을 환기시키면서 쌀 한 톨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시간과 노력을 이야기하면 밥을 남기고 흘리던 아이들이 태도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서울 남산초등학교 최미경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부터 아이들까지 남산초등학교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학교 논이 벼는 싹싹 자라게 될 것이다.

출처: 녹색교육 달팽이통신(<http://blog.naver.com/snailcomm?Redirect=Log&logNo=50152398763>)

### [그림 4-3] 충남도 「도심 속 학교는 만들기」 활동 모습



### [그림 4-4] 충남도 도심 속 학교는 만들기 보도 자료

출처: 중도일보 2015년 10월 13일자 보도

### 3. 각 시·군의 현황

#### 1) 사)홍성군농촌체험관광협의회

##### (1) 조직 현황

홍성농촌체험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역 내 마을 혹은 농가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농촌체험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협력해 지역 내 농촌체험 방문객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1년에 설립된 영농조합이다. 여기에는 농·산·어촌 체험관광 마을 및 농가로서 일정 규모의 농장이나 시설을 갖추고 군 또는 중앙단위에서 실시하는 농촌체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는 녹색농촌, 정보화, 전통테마, 권역사업 등 네 가지 부문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 설립 초기에는 21개 체험마을과 농장이 참여했으나 현재는 점차 증가해 40여 개 마을과 농장이 참여하고 있다.(<표 4-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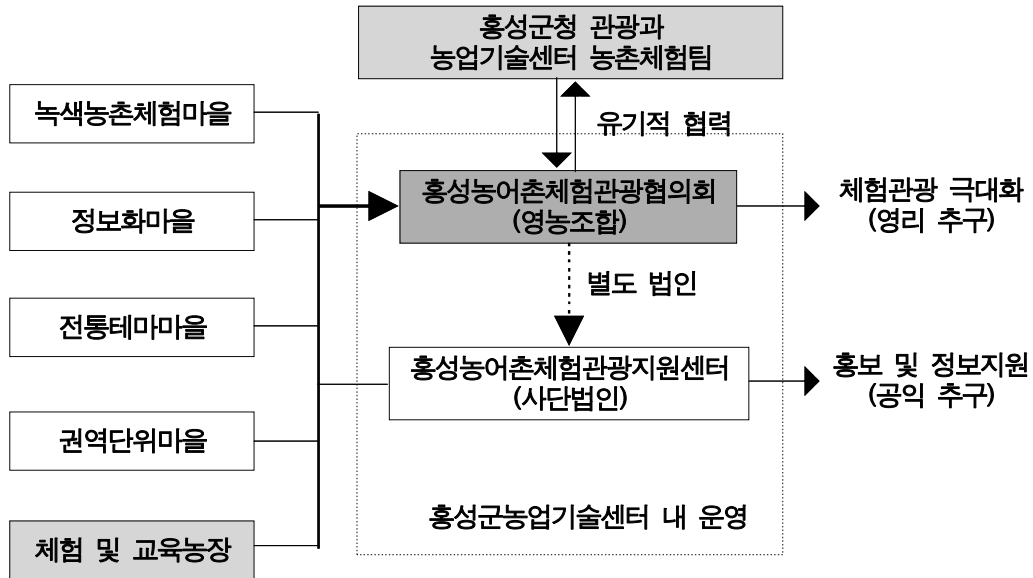
**[표 4-1] 홍성농어촌체험협의회의 체험마을 및 농장 참여 현황**

	체험마을	체험농장	교육농장
세부 마을	거북이마을, 고미당마을, 느리실마을, 속동갯벌마을, 오서산상당마을, 한솔기권역, 용봉산 체험마을, 문당환경농업마을, 봉암마을, 하누리마을, 왕대골농촌체험마을	은퇴농장, 갈산토기, 내포양생화, 남당부화체험농장, 크로바목장, 산수가족, 솔꽃마루농원, 신동리주말(체험)농장, 은실네농장, 순희네농장, 참굴도예, 경석이네딸기체험농장, 블루베리농원 해마루, 여래해농장, 예당큰집, 오누이농장, 용봉산캠핑장, 인양양초장, 한결농장, 홍성의동쪽, 황산벌꿀벌농장	논학교발학교, 정다운농장, 농부이반의 농장, 세아유농장
합계	11개	22개	4개

출처: 홍성농어촌체험관광지원센터(홍성군농업기술센터 내 설치 2015년 11월 기준)

이러한 협의회는 체험마을과 체험농가의 자발적 참여와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협의회가 만들어지기까지는 행정의 도움도 컸다. 특히, 홍성군농업기술센터는 협의회가 만들어진 초기단계부터 협력했으며 시·군 자치단체 조직으로는 드물게 농업기술센터 내 기술개발과 소속의 농촌체험계를 만들어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현재 영농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홍성농어

촌체험관광협의회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홍성농어촌관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별도로 설립했다.(<그림 4-5> 참조)



[그림 4-5] 홍성군 농어촌체험관광 중간지원조직의 현황도(2015. 10)

지원센터는 지역 주민들 스스로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자체 역량을 바탕으로 농촌관광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발생한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1차, 2차, 3차 산업의 융복합 및 건강한 지역경제 순환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체험마을과 체험농장 등 회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내에 사무실이 설치되어 행정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현재 협의회와 지원센터에는 거북이마을, 하누리마을 등 모두 11개 체험마을, 은퇴농장, 한결농장 등 모두 22개 체험농장, 논학교밭학교, 농부이반의 농장 등 모두 2개의 교육농장 등 모두 37개 체험마을과 농장이 참여하고 있다.



[표 4-2] 홍성농어촌체험관광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및 내용

주요 사업	세부 내용
지역의 자원과 커뮤니티를 활용한 지역순환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 협력, 책임, 공감, 가치 이해</li> </ul>
농어촌체험관광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li> <li>■ 선진사례지 견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li> <li>■ 농촌관광 워크숍 기획 및 운영</li> <li>■ 핵심 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li> <li>■ 콘텐츠 및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재정비</li> </ul>
그린 네트워크 지역조사 및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유무형의 다양한 자원 조사 및 콘텐츠 발굴</li> <li>■ 농어촌체험관광자원 발굴 및 콘텐츠 운영 컨설팅</li> <li>■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상품 개발</li> </ul>
협력 및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체험관광 정착을 위한 홍보</li> <li>■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서포터즈 운영</li> <li>■ 행정 및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li> </ul>
지역의 특별한 즐거움 알려주는 맞춤형 여행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자와 자연이 공유하는 여행</li> <li>■ 여행자가 스스로 디자인하는 여행</li> <li>■ 즐거운 불편함이 있는 여행</li> <li>■ 지역의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 가는 여행</li> <li>■ 자연과 지역과 여행자가 함께하는 공정여행</li> <li>■ 지역에 장기 체류하며 공감하는 생활여행</li> </ul>

출처: 홍성농어촌체험관광지원센터([http://greentour.hongseong.go.kr/greentour/sub01\\_02.do](http://greentour.hongseong.go.kr/greentour/sub01_02.do)). 2015년 11월 기준.

하지만 홍성농촌체험관광협의회가 만들어진 과정은 쉽지 않았다. 11개의 체험휴양마을과 50여 개의 체험농장을 설득해 하나의 협의체로 통합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이다. 홍성 H체험마을 P대표는 이처럼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통합된 협의체를 만들 수 있었던 배경에는 통합과정에서 각 주체 간 ‘양보’와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구체적인 과정과 노력은 다음과 같다.

“이전에는 홍성군청 농산과에서 농어촌체험을 맡고 있었는데 3년 전부터 농업기술센터에 농어촌체험 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농어촌체험 부서에서 업무를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농어촌관광체험마을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체험농장이 50개가 넘습니다. 체험마을이 10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평등하게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 협의회의 농어촌체험마을 분과 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는데요, 전체 교

육농장, 체험마을 대표들이 모여서 협의회 회장으로 거북이마을 전\*\*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통합이 되는 것은 배려이고 양보입니다. 저희는 2003년도에 농어촌 체험마을 지정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홍동의 문당마을과 함께 두 마을로 시작해 모든 체험프로그램 행사에 참여했었습니다. 모든 체험프로그램을 맡아서요. 그 후 교육농장이 신설이 되고 체험마을 신설이 지정되고 하니까 저희만 그 체험프로그램을 다 할 수 없어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주고 양보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분과, 홍보, 유통 프로그램 다 맡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통합이 된 예입니다. 또 저희 개인농장이 영리농장인데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교육농장을 저희가 물러나서 마을 대표를 맡아 마을로 연계를 해서 마을 대표로서 마을에 봉사했습니다. 어떤 분은 체험마을에는 사무장님을 주시는데 교육농장은 개인농장입니다. 체험마을은 마을의 소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개인농장은 개인의 소득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저희 홍성군 농촌관광 체험협의회처럼 그렇게 통합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다 ‘배려’와 ‘양보’가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혼자가면 빨리 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외롭고 힘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2015년 10월 14일, 3농혁신대학 <도농교류 활성화과정>에서 홍성 H체험마을 P대표의 발언 내용)

위의 발언 내용과 같이 체험마을과 체험농장은 소유와 분배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 마을과 개인농장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지역 내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향후 도농교류 활성화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홍성군에서의 ‘배려’와 ‘양보’를 통한 주체 간 통합은 수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2) 주요 활동 내용

홍성농촌체험관광협의회가 체험마을과 체험농장을 아우르는 협의회를 만든 이후 가장 기대되는 성과는 체험활동에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규모와 범위의 경계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실현하고 있다.

첫째, 지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에 협의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홍성에는 홍성역사인물축제, 광촌토굴새우젓·광천김축제, 홍성남당항대하축제, 새조개축제 등 크고 작은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행사 때에 협의회에서도 조직적으로 참여해 행사를 원활히 지원하는 것이다. 민간단체가 자체적인 조직능력과 운영능력을 가지고 이런 축제에 참가할 경우 행정기관도 좀 더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윈-윈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다수의 체험객을 동시에 수용한다는 것이다. 홍성농어촌체험관광협의회처럼 지역 내 체험관광 마을과 농장을 조직화해 결사체를 만든다면 다수의 체험객이 오더라도 각각의 마을과 농장으로 적절히 분산 배치해 체험 활동을 유지시킬 수 있다. 최근 들어 지자체마다 코레일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수도권 학교에서 수학여행으로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수용할 체계를 갖추지 못한다면 체험객은 오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홍성에서와 같이 협의회를 통해 이러한 응대서비스체계를 갖춰 놓으면 일시에 많은 수의 체험객을 수용할 것이다.

세 번째는 지역 내 체험프로그램과 응대서비스의 수준을 균일화하고 전체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현재 체험마을과 체험농장 간에는 각기 경험과 환경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의 품질 또한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다. 체험객을 많이 맞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이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여 이들에게 재방문을 유도하거나 또는 이들이 주변에 홍보함으로써 더 많은 방문객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협의회에서는 체험마을과 농장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기도 하고 필요 시에는 직접 운영해 응대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프로그램의 매뉴얼을 만들어 직접 지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체험활동에 필요한 음식만들기의 경우 협의회에서 직접 음식만들기의 레시피와 매뉴얼을 체험마을과 농장에서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결제카드기가 없을 경우에는 결제카드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네 번째는 체험 진행 인력을 전문적으로 육성해 통합 관리한다는 것이다. 사실 농촌체험이 많이 이뤄지는 시기는 농번기와도 겹치는 시기다. 농민들은 봄철 모내기 등으로 바쁜 시기에 체험객을 맞이해야 하고 가을철 벼베기 등으로 바쁜 시기에 체험객을 맞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체험마을과 농장에서는 늘 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체험지도사 등 예비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일은 개별 체험마을이나 농장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협의회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체에서 가능하다. 홍성

군의 경우 읍내에는 고정된 직업은 갖고 있지 않지만 역량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정 기간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필요 시 농촌체험 인력으로 활용한다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체험은 지역별, 시기별, 인력별, 연령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처럼 변화된 환경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험지도 인력을 육성해 활용하는 것이 향후 도농교류와 농촌체험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내 귀농·귀촌자에게 적응과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농촌으로 내려오는 귀농·귀촌인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바로 농업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농촌에서 다른 일자리를 찾기도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협의회에서 이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체험활동 과정에서 필요 시 활용하기도 한다. 귀농·귀촌한 도시민 가운데에는 농사 능력은 비록 떨어지지만 전문지식과 고객응대에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을 잘 활용하면 의외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협의회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2) 청양군 칠갑마중

### (1) 조직 현황

청양군의 도농교류와 농촌체험마을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은 청양군 도농교류센터에서 하고 있다. 이 센터는 2014년 4월에 개소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센터에는 사무국장 1명, 체험해설사 1명 등 2명이 상근하고 있다. 본 사무실의 리모델링사업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 운영비는 청양군에서 지원하고 있다. 청양군과 도농교류센터는 지역의 체험마을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 도시민들을 유치하기 위해 공동브랜드인 “칠갑마중”을 만들었다. 현재 도농교류센터에서는 도시민 유치, 체험마을 공동 홍보 및 마케팅, 각종 지원사업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하고 있다.

청양군 도농교류센터 설립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시기는 2010년 청양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가 결성되면서부터이다. 이때 군내에 있는 13개 체험마을이 협의회에 참여하면서 공동관리와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후 2012년에는 청양군과 협의회는 지역 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듬해 청양군 도농교류센터 설치를 구체화했다. 청양군 의회에서도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표했다. 그 결과 2014년 4월에 청양군 도농교류센터를 개소할 수 있었다. 이후 도농교류센터에서는 공동 브랜드로 “칠갑마중”을 만들어 온라인과 다양한 행사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현재 칠갑마중에는 지역 내 총 14개 체험마을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체험마을은 각각 협의회에서 정한 출자금을 납부하고 도농교류센터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청양군이 다른 지역에 앞서 이처럼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써 “칠갑마중”을 만들어 내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그동안 14개 농촌체험마을, 행정, 기타 체험농장 간에 많은 협의와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쳤다. 그 구체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다.

“청양군에서는 2002년도부터 체험마을을 육성하기 시작해 현재는 16개의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체험휴양마을로 지정 받지 않은 2개 마을을 제외하면 14개 마을이 청양군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양군에는 체험농장이 약 30여 곳이 있으며 이들 농장들이 모여 역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농가협의회와 체험농장협의회 간 서로 교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협의회를 하나의 도농교류센터로 묶으려다 보니까 사업의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을단위 사업과 개별 농장 단위 사업을 각각 분리해서 따로 성장을 시킨 이후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방침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선 2012년도에 허브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16개의 체험마을 조직이 하나의 주축이 돼서 중간지원조직을 이끄는 것이죠. 저희 청양의 경우에는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 과정에서 행정의 도움이 많았습니다. 체험마을이나 체험농가나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금전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도움이 크게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4개의 체험마을이 청양군 도농교류센터를 구성해 저희를 뒷받침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데, 저희 도농교류센터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양군 도농교류센터라고 말하기도 하고 청양군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라기도 합니다. 현재 두 가지 이름을 같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청양군 도농교류센터라는 이름 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체험농가는 체험마을이든 관광지든 행정에서 볼 때에는 다 우리 국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농교류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모두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농교류센터를 실제로 만든 주체는

체험마을협의회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업무도 같이 봐야한다. 그래서 이름을 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12월 달에 처음 도농교류센터를 만들 때에는 13개 마을이 참여했죠. 그 때는 13개 마을이 도농교류센터를 한 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큰돈은 아니지만 100만 원씩 모아보자고 해서 실제로 100만 원씩 모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1,3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알프스마을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는 500만 원을 낸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에 옳지 않고 해서 사양했습니다. 형평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하자는 취지에서 전부 다 똑같이 100만 원씩 모아서 1,300만 원을 가지고 사무실 임대 보증금을 냈습니다. 그런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청양군에서도 아 정말로 이 협의회가 진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사무실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집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한 번 운영해 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사업이든지 운영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시설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지원하라고 군청에 부탁했는데 뜻밖에 청양군에서 100% 군비로 지금 사무국장인 저하고 체험해설사 두 분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두 명의 인력이 일 년 동안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도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센터를 만들 때에는 저희가 2년 동안만 지원을 받겠다고 했어요. 2년 안에 무언가 성과를 내겠다고 했어요. 참 무모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년 안에 무엇인가가 나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1년을 더 달라고 했어요. 올해는 솔직하게 1년을 더 달라고 하는 대신 내년부터는 우리 자체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좀 더 재원을 마련한 다음 계속해서 운영해 나아가겠다고 현재 행정에 요청한 상태입니다.”(청양군 도농교류센터 P사무국장의 설명 내용, 2015년 10월 24일)

이처럼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도농교류센터(칠갑마중)의 조직 과정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홍성군과는 달리 현재 체험마을 위주로 협의회가 구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체험농가와 어떻게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인가는 향후 과제이다. 그렇더라도 청양군 도농교류센터는 우선적으로 14개 체험마을이 평등한 입장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한 점, 행정과도 우호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 내실을 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2) 주요 사업 내용

중간지원조직인 청양군 도농교류센터는 청양군의 도농교류와 농촌체험마을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자체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행정지원은 크게 농업지원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건설도시과, 행정지원과,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등이고 이외도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하고 있다.(<그림 4-6> 참조) 도농교류센터가 설립된 지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약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일들에 관여하고 있다.



[그림 4-6] 청양군 도농교류센터 「칠갑마중」의 연계 현황

자료: 박준홍(2015). 명품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청양군 사례. 발표 자료

청양군 도농교류센터가 2014년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업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2014년 사업 내용>

- 청양군체험휴양마을협의회 주민교육 및 견학 추진
  - 청양군 내 체험마을의 추진위원장, 사무장,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선진지역 벤치마킹 견학을 통한 공동운영 및 홍보 활성화 방안 모색
- 농촌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 및 공동 홍보 지원
  - 충청남도 홍보관 내 청양군 부스 운영을 통해 청양군 체험마을과 관광지 홍보 및 이벤트 진행
- 충청남도 고향마실페스티벌 참가 및 공동 홍보 지원
  - 충청남도, 충남교육청, 대전MBC, 충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공동 주최 행사에 청양군 홍보 부스 운영
- 대전 로컬푸드 대축제 참가(대전MBC 50주년 기념)
  - 청양군 내 체험마을, 체험농가, 두레기업, 개인농가와 컨소시엄 형태로 참가해 홍보
- 2014 국제 관광전 참여 지원(문화체육관광과)
  - 국내 방문 여행객 대상 박람회 청양군 부스 운영 및 이벤트 진행. 농산물 유통 홍보
- 고추구기자축제 체험마을 참가 지원
  - 체험마을 참가 지원 및 부스 운영. 공동 홍보
- 청양군체험마을협의회 공동마케팅 CI 및 브랜드 개발
  - 통합브랜드 “칠갑마중” 선정 및 CI 개발. 통합 메일링 서비스 시스템 구축
- 청양군체험마을협의회 통합 운영 홍보용 웹사이트 제작
  - 칠갑마중 통합운영 웹사이트 오픈(<http://www.majoong.co.kr>), 홍보블로그 운영(1년). 청양군 내 관광자원의 공동 홍보 및 농산물 직거래 유통과 연계 진행
- 밤참캠프 기회 및 운영
  - 지천리 “밤과 참게가 있는 캠프” 기획 및 운영
- 한국미술협회 청양지부 “찾아가는 벚짚미술제” 행사 지원
  - 목면 안심리 주민과 함께하는 벚짚미술제 교육 지원 및 KBS 홍보영상 촬영 지원
- 청양군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2014년 마을사무장 평가 지원



- 사무장 평가 사전 준비, 상향평준화 목표지원: 우수 사무장 3개 마을 배출
- 도시민 유치 지원
  - 호수돈여중, 농협임직원, 유성주민자치위원회, 태권도선수단, 인하대학교 동아리 등 도  
    시민 유치 및 체험활동 지원
- 기업/기관 유치 홍보 활동
  - (주)코앤링크, (주)삼성아이마켓코리아, 강남구청 등 유치 및 교류협약 추진
- 백제문화제 공동기획(문화체육관광과)
  - 관광정책계와 공동기획,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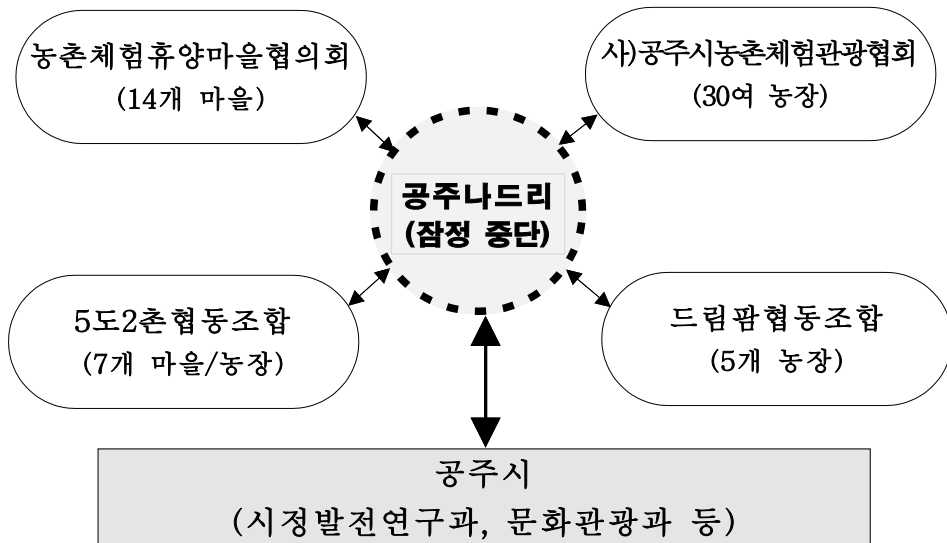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사업 내용은 도농교류센터가 2014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이다. 사업 내용을 보면, 체험마을과 관련한 홍보 활동이 주를 이루지만 그 외에도 지역 내 문화와 관광 활동 등 참여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2015년 상반기 활동들을 보면 청양군을 넘어 다른 지역과 폭넓게 네트워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1) 2015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 2) 청양군/아산시 체험휴양마을협의회 간 단합 대회 추진, 3) 청양군 도농교류센터-군포시 청소년수련원 간 업무협약 체결, 4) 도농교류 행사 『2015 군포시민 청양소풍』 추진, 5) 제1회 문화관광해설 경진대회 참가, 6) 대전어린이도서관협의회 주최 2015 다같이놀자캠프 진행, 7) 3농혁신대학 참여 등이다. 하반기에도 각종 박람회와 전시회, 축제와 이벤트 참가, 1사1촌의 지속적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처럼 많은 도농교류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도농교류센터의 가장 큰 숙원사업은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 센터를 법인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도농교류센터의 일반 운영비, 즉 인건비와 관리비를 거의 대부분 군청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업 내용의 대부분을 행정 지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도농교류센터는 2016년을 목표로 자립적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재원은 각종 공모사업과 관광상품 판매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도농교류센터는 행정 지원보다는 체험휴양마을과 농촌주민들에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3) 공주나드리센터

#### (1) 조직 현황

공주시는 충청도 내에서 가장 많은 체험휴양마을과 체험농장을 가지고 있다. 현재 공주시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은 모두 14개 곳이 달한다. 체험휴양마을 이외에도 공주시에는 충청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농촌교육농장과 우수체험농장 등 개별 농촌체험농장의 연합체인 사)공주시농촌체험관광협회가 구성되어 있다. 공주시 내 체험농장은 많을 때는 약 70여 곳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여 체험농장이 이 협회에 참여하고 있다. 공주시에는 또한 공주시 자체적으로 추진한 5도2촌마을의 연합체인 5도2촌협동조합이 있다. 여기에는 총 14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다. 그 외 공주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실시되는 관광두레사업의 일환으로 공주시드림팜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민선5기에 이들 단체와 행정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인 흥미진진 공주나드리센터가 개설되었으나 민선6기 들어서 중단된 상태이다. 공주시에서는 조만간 이 센터를 재정비해 개설을 계획하고 있다.(<그림 4-7> 참조)



[그림 4-7] 공주시 농촌체험관광 관련 단체와 중간지원조직 현황

## (2) 주요 사업 내용

앞서 공주시에는 역사문화도시답게 농업과 역사문화를 결합한 다양한 체험마을과 체험농장이 있고 다양한 협의체가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래서 민선5기 접어들면서 도농교류를 적극 추진한 행정 방침을 힘입어 공주시도 도농교류와 농촌체험관광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인 흥미진진 공주나드리센터를 개설해 운영했다.

하지만 민선6기에 들어서면서 공주시의 농촌체험관광을 담당했던 5도2촌과가 시정발전연구과로 개편되는 등 자체의 행정조직 개편과 맞물려 공주나드리센터도 재정비에 들어갔다. 따라서 현재 행정조직 간 원활한 소통을 촉진하고 협의체 간 종합적으로 네트워킹하고 협력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체는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다 2015년 7월, 공주와 부여의 백제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KTX공주역이 개설되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고 농촌체험과 관광에 대한 관심도 높아감에 따라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했다. 따라서 공주시는 공주나드리센터를 서둘러 재정비해 조만간 다시 개소할 예정이다.

공주시의 도농교류사업과 농촌체험관광 관련 단체 간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행정의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공주시는 민선5기에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청 내 5도2촌과를 설치하고 도농교류와 체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현대 도시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이 점점 전원생활을 지향해 감에 따라 역사·문화와 자연경관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공주시는 이를 적극 수용해 관련 사업들을 추진했다. 그 결과 공주시 “5도2촌”사업은 공주시를 대표하는 사업이 되었고 “5도2촌”도 하나의 브랜드 이미지로 정착되었다. 하지만 민선6기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5도2촌과를 시정발전연구과로 변경하면서 공주시가 그동안 기울여온 도농교류와 체험관광 관련 사업 이미지가 어느 정도 퇴색되었다. 또한 공주시 자체적으로 지정해 관리해온 5도2촌마을도 폐지되면서 지역 내 관련 농촌주민들은 도농교류와 체험관광사업들도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도농교류와 체험관광 관련 사업에 큰 변화는 없지만 5도2촌으로 쌓아온 브랜드 자체가 없어지고 그럼으로 인해 정체성과 구심점을 잃으면서 공주시의 도농교류와 농촌체험관광 관련 사업에 대해 관련 종사자들이 회의감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이다.

둘째, 공주나드리센터가 중단됨으로써 관련 단체 간 연계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공주시는 역사·문화의 고장이고 전국 지자체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곳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역 내 농촌체험관광과 관련한 다양한 자원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협의체들도 많이 만들어졌다. 앞서 소개했듯이, 14개 체험마을로 구성된 공주시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30여 체험농장과 교육농장으로 구성된 사)공주농촌체험관광협회가 있다. 개별 체험농장이 연합해 사단법인 협의체를 만든 것은 충남도 내에서 이 단체가 유일하다. 그 만큼 체험농장들 간에도 서로 협력해서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공주시 자체적으로 추진한 5도2촌마을사업의 마을 주체들이 연합해 만든 5도2촌협동조합도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에서는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두레사업을 공주시에서 처음 도입해 만든 공주드림팜협동조합도 선진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하면서도 많은 단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주나드리센터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과 관련 단체 간 소통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단체들 간에도 소통과 협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셋째, 협동조합을 통한 농장 간 연계는 획기적인 일이나 기존 조직과의 연계와 협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농촌체험마을과 체험농장이 시·군 단위로 협력하는 것은 사실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시·군 안에서도 지구별로 세분화하고 이를 연계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바람직하며 그 최상의 방법은 협동조합을 통한 연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선진국 농촌관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을 통해 체험마을 간 혹은 체험농장 간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와 운영, 그리고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와 성과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공주시에서도 세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주드림팜협동조합 설립은 바람직한 성과라고 평가될 수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기존 농촌체험관광협회와 충분한 소통의 부족과 오해로 인해 두 단체 간 거리가 생긴 것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상과 같이 현재 공주시의 도농교류와 농촌체험관광은 좋은 여건임에도 아직 제도적 뒷받침의 부족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으나 조만간 공주나드리센터가 재개설되고 이로 인해 협의체 간 협력이 도모된다면 공주시의 도농교류와 농촌체험관광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4. 중간지원조직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 1) 리더십문제

흔히 ‘한 마을을 관리하는 것’이 ‘한 나라를 관리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 그만큼 농촌마을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겉으로는 평화스러운 작은 마을일지라도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적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갈등들이 있다. 물론 사람관계에서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농촌마을의 경우에는 좀 특수하다고 할 수 있다. 한 마을에서 적게는 수대, 많게는 수십 대를 걸쳐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감정의 골과 깊이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마을사업들이 실패한 이유는 이러한 마을 내 복잡한 감정과 갈등의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정보 전달이 빠르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도 있고 지도자의 자질 부족으로 생기는 갈등도 있다.

그런데 시·군 내 농촌체험마을과 체험농장을 조직화하고 규칙을 만들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농민들 수준에서는 결코 쉽지 않는 일이다. 많은 연구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지역 내 농촌 체험관광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 등 마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지만 사실 지역 내 내적 갈등요인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중간지원조직모델일지라도 실패할 확률이 크다.

그렇다면 시·군 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을 이끄는 지도자의 리더십의 문제이다. 조사에 따르면, 농촌체험관광 중간지원조직 구성에서 필요한 리더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영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심이 없다는 것은 일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많은 마을개발사업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지도자의 사심에서 비롯한 욕심 때문이다. 자기 가족, 자기 인척, 자기 마을,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업과 혜택을 우선에 둬으로써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따라서 리더의 첫 번째 요건은 사심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공정심이라고 할 수 있다.<sup>8)</sup>

8) 2013년 3월, 충남도 3농혁신대학 「체험관광활성화」 과정에서 지역활성화센터 전인철 이사가 발표한 “체험마을 리더 역할과 성공 전략”에서 그는 체험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리더의 역할을 10가지로 요약했는데 이는 향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농촌마을공동사업의 목적을 이해한다. 농촌체험마을은 농촌마을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이지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고 교류를 증대

## 2) 경영능력의 문제

하나의 체험마을과 체험농장을 관리 및 운영하기도 쉬운 일은 아닌데 이를 통합한 지역 내 중간지원조직을 관리 및 운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험마을이나 체험농장의 경우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피해가 마을이나 개인에게 돌아가게 되지만 중간지원조직이 실패할 경우에는 지역 전체에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은 단순히 행정과 체험마을 및 농장의 중간에서 매개 역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체험관광 활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소득을 가져다 줘야하는 하나의 기업체와 같은 수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이 수익을 창출하는 하나의 회사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이를 관리 및 운영자는 회사의 CEO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역 내 체험마을과 농장을 이끄는 지도자 가운데 과연 시·군 전체 체험 관련 단체를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자기 자신의 마을과 농장도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전문적인 조직관리 마인드와 운영 능력을 가진 마을 지도자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시·군 지역 단위에서의 농촌체험관광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책임자는 농촌지역 현황도 어느 정도 알면서 조직 관리 능력이 있는 내부 지도자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유능한 외부 경영자를 영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중간지원조직을 영위할 이유는 크지 않다. 그렇지 못할 바에는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많은 주체들을 연결하고 협의하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 조직되는 중간지원

---

해 공익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농촌마을공동의 사업이라고 했다. 둘째, 문제요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 마을의 문제를 알아야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셋째, 삶의 가치추구 방향을 주민이 공감한다. 농촌마을의 가치추구는 크게 생활공동체문화의 함양과 주민의 여가문화 증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500년을 바라보는 농촌계획을 수립한다. 이는 단순히 500년이라는 수량적 단위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섯째, 농어촌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한다. 농업·농촌의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교육적 가치가 최근 강조되고 있다. 여섯째, 농촌마을에 대한 정책흐름을 이해한다. 최근 농정의 방향이 농업에서 농촌으로 변화되면서 농촌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는 정책이 증가하고 있다. 일곱째 주변 마을과 연계한다. 백화점식 마을 운영이 아니라 다른 마을에서 갖지 못한 특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여덟째, 농촌마을의 색깔을 찾는다. 체험형, 농산물 판매형, 귀농귀촌형, 관광지형 등 마을에서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은 특화한다. 아홉째, 주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마을 공동사업의 위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마을 공동사업이 순수하게 공익을 추구할 것인지 영리를 추구할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마을주민들의 참여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직을 이해하고 마을을 조직화한다. 어느 사업이나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화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는 농촌체험마을에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체험마을이 활성화된 마을들의 조직체계를 잘 파악해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조직이 그 자체로 존립하기 어려운 여건이 된다면 애초에 만들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sup>9)</sup>

### 3) 거버넌스문제

농어촌체험 관련 중간지원조직은 체험마을(농장)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치우침 없이 중간 역할을 해야겠지만 아직까지 조직이 안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초창기 행정기관에서의 지원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충남도 내 체험휴양마을을 대표하는 중간지원조직인 충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와 「도심 속 학교농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는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모두는 현재 충남도 농업기술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어느 정도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시·군 단위 현황을 보면, 홍성군의 경우 홍성군 내 농어촌체험마을과 체험농장을 통합해 영리를 추구하고자 결성된 홍성농어촌체험관광협의회와 이 조직 산하에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홍성농어촌체험관광지원센터는 현재 홍성군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어 그곳으로부터 행정적 편의 등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다. 청양군의 경우 농촌체험 관련 중간지원조직인 칠갑마중은 현재 사무실이 청양군 대치면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가건물로 설치되어 있는 이 건물은 청양군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국 직원 2명의 인건비는 현재 청양군에서 지원하고 있다.

홍성군과 청양군의 사례는 체험관광 관련 민관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라 여겨진다. 이러한 거버넌스체계는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높여 방문객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듯 행정의 지나친 간섭은 중간지원조직의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간지원조직도 행정기관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 적당한 거리와 자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현재 홍성군과 청양군 모두 이 문제에 대해 고민 중이나 현재 설립 초창기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의존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행정으로부터의 자율성 확보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9) 이러한 내용은 홍성농어촌체험관광협의회 전\*\* 대표와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중간지원조직을 직접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는 전 대표의 주장은 향후 중간지원조직의 조직화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4) 자율적 관리의 문제

현재 각 시군마다 체험마을 수는 편차가 많다. 천안시는 2개인 반면, 청양군은 14개에 이른다. 공주시의 경우 14개 체험마을에 개별 체험농장을 더하면 약 70여 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지역 내 많은 체험관광 관련 조직들을 행정기관에서 전부 관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체험관광 관련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이를 잘 실천하고 있는 곳이 홍성군의 사례이다. 홍성농어촌체험관광협의회가 처음 조직될 당시에는 6개 마을과 농장이 참여했지만 현재는 40여 마을과 농장이 참여하고 있다. 마을과 농장의 특성도 다양하고 그곳에서 진행되는 체험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도 가지각색이다.

사실 지역 내에서 체험마을과 체험농장을 다 끌고 가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체험마을과 농장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쪽은 현재 지역 내에 너무 많은 체험마을과 농장들이 있기 때문에 경영과 프로그램이 부실한 마을과 농장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경영과 프로그램은 부실하더라도 중간지원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체험마을과 농장에 대해서는 함께 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즉, 중간지원조직이 이들 마을과 농장에 개입해 경영과 프로그램을 개선한다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두 주장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 지역 내에서 체험마을과 농장에 대해 중간지원조직이 개입해 전체적인 수준을 높인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것이다.

첫째, 지역 내 체험활동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체험마을과 체험농장은 전체적으로 수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를 중간지원조직에서 적절히 지원해 보완해준다면 지역 내 체험활동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다. 특히, 현재 농촌체험 활동이 집단으로 이뤄지고 이에 대한 평가 또한 엄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험의 품질 관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체험마을과 농장주에게는 관리의 효율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체험마을과 농장의 관리는 크게 인력과 프로그램 개발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중간지원조직은 필요 시 인력을 지원하기도 하고 지역 내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기도 하고 필요 시 직접 진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은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외부적 환경과 체험마을과 농장의 내실화를 기하는 내부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5) 전문인력의 육성문제

농어촌체험마을의 주인은 기본적으로 마을의 농어민들이다. 하지만 체험마을을 이끄는 사람들은 마을의 위원장을 비롯한 소수의 마을리더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체험마을 위원장은 본인의 농사일 외에 마을의 전반적인 사무를 맡다보니 체험마을의 사무를 감당하기 어렵다. 체험마을도 하나의 회사처럼 경영체이다 보니 손익분기점을 맞추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더욱 체험마을 지도자들의 고충이 많다. 아래 인터뷰 내용도 그러한 체험마을 지도자의 고충을 토로한 내용이다.

“어릴 적 농사를 짓다가 어려워 서울로 무작정 올라갔어요. 지역에 있는 광산에서도 일을 했지만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단돈 1,000원을 들고 서울로 올라가 건설업을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러다 20년 전 고향으로 귀농을 했어요. 그런데 농촌 출신이지만 고향에 내려와 막상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 농사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도 노력해 최신행 하우스도 짓고 농사를 지었는데 계속 적자가 났어요. 근 10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 자금이 완전 고갈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니 15년째부터는 만회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연매출 1억 원의 소득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가 되다보니 마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마을 전체의 소득 향상을 위해 체험마을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내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고 체험을 통해 남는 이득은 시설 짓는 데 투자도 하고 마을의 노인들을 위해 경로잔치도 열어 드렸어요. 하지만 체험마을을 운영하다보니 한 달에 15~20일은 집안일을 못해요. 그래서 현재 소득도 반으로 줄었어요. 상황이 그러한테 앞으로 마을사무장 지원이 안 된다면 체험사업이 다시 추락할 것은 뻔할 겁니다. 마을사무장에 대한 지원을 한꺼번에 없애지 말고 적어도 기존의 50%만이라도 지원해준다면 그래도 마을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청양군 Y체험마을 위원장 인터뷰 내용, 2015. 7. 8)

이처럼 체험마을 지도자나 주민들이 전문적으로 체험을 담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도농교류촉진법」의 제정을 통해 2008년부터 마을사무장제도를 두어 국비와 지방비를 결합해 마을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충남도 내 120개 체험마을 가운데

에서 약 60여 개 체험마을이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마을에 들어온 사무장은 체험마을 위원장과 마을주민들을 도와가며 체험과 관련한 마을사무 전반을 관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마을사업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들도 도맡으면서 마을사무장의 역할은 체험마을 유지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8년 기간의 한시적 지원제도인 정부의 마을사무장제는 올해부터 8년 시한이 끝나면서 그동안 마을사무장을 지원받았던 마을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즉, 그동안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던 농촌체험마을은 8년 후 마을사무장의 인건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긴 것이다. 마을사무장 인건비는 120~150만 원으로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 수지타산을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농촌체험마을이 이러한 인건비를 매월 지급한다는 것은 몇몇 잘 운영되고 있는 체험마을을 빼고는 쉽지 않는 일이다. 따라서 향후 8년 시한을 넘겨 마을사무장에 대한 인건비가 중지될 경우 해당 농촌체험마을 가운데는 체험활동이 중단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마을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기더라도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러한 대책도 쉽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렇다할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우선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한 대응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는 어떤 측면에서는 지역 내 산재해 있는 체험마을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다. 필요시 인력을 지원할 수 있고 새로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할 수도 있다. 일부 체험마을에서는 모든 사무를 마을사무장에 맡겨 사무장의 업무가 과중해 사무장이 자주 바뀌는 경우도 많다. 마을사무장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마을은 역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마을 사무를 전적으로 마을사무장에게 맡기다 보니 마을사무장이 궤석이 되면 체험마을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향후 체험마을 지원정책은 개별 마을단위에 대한 지원보다는 지역 내 체험마을을 통합 운영하는 데 더 많은 비중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실제로도 현재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처럼 지역 내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역할이 커짐에 따라 향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해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행정과 마을의 중간단계에서 행정의 보조자로서의 역할, 마을 간 의견 수렴과 조정자 역할을 넘어 새로운 가치의 창조(인큐베이터) 기능으로써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즉,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지역 내와 지역 외 많은 자원을

연계해 체험마을을 활성화하는 한편, 체험활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농촌 내 부족한 인력자원을 어떻게 길러내느냐가 관건인 만큼 중간지원조직이 지역 내 필요한 인력자원을 길러내는 역할도 필요하다. 최근 귀농·귀촌자들이 늘고 있고 또 도시의 젊은 청년들이 어느 정도 여건이 가능한 경우 농촌으로 들어오려는 추세가 있어 지역 내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중간지원조직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6) 개선 과제

이상과 같이 현재 도농교류와 농촌체험관광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인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해 모색했다. 여기에서는 주로 홍성군과 청양군, 공주시 등 세 지역 사례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조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략적이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흔히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관광의 성공 요인으로 크게 5가지로 꼽는다. 첫째는 차별화된 테마, 둘째, 오락성과 교육성을 갖춘 체험프로그램, 셋째, 감동적 사후관리, 넷째, 적극적 마케팅, 마지막 다섯째는 전문성을 갖춘 진행자<sup>10)</sup>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전문성을 갖춘 진행자일 것이다. 보통 마을사무장이 담당하는 업무는 체험교육, 영농활동, 마을환경조성, 프로그램 개발, 체험관련 자원 개발, 체험도구 및 교재 개발, 현장학습 운영, 방문객 관리, 사후보고 및 정리, 회계 등등 그 역할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개별 마을단위에서 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군 단위 중간지원조직의 도움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물론 시·군단위에서 중간지원조직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지역의 규모와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는 지역도 있을 것이다. 다만, 지역에서 도농교류와 농촌체험관광 활동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해 지역을 찾는 방문객에게 더 높은 수준의 체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중간지원조직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10) 박희주(2013). “마을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3농혁신대학 「체험관광활성화」 과정』 자료. p.36.

또한 농촌체험마을과 체험농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단순히 체험관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또는 농장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농촌지역의 농산품을 직거래를 통해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추세가 증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역 차원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충남도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도농교류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비전과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고, 각 시·군은 어느 선까지 개입해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체험마을과 농장은 지역의 농촌체험마을과 체험농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전문인력을 키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제5장 체험마을 현황 및 담당자 의견 분석

### 1. 조사의 개요

#### 1) 조사 배경

현재 충남도 내 도농교류의 현황 및 담당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5년 10~11월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내용은 첫째, 충남도 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현황, 둘째,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성과 및 추진 상의 어려움, 세 번째는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방향에 관한 내용이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도농교류 주체로서 확실한 위상을 가지고 있고 도농교류의 현황과 성과 등이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 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대략 120개 마을이 있는데 이 가운데 ((사)충남도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마을은 약 97개 마을이 있다. 따라서 설문은 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위원장을 대상으로 했으며 위원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마을사무장이 대신했다.<sup>11)</sup> 설문방법은 체험휴양마을 위원장의 단체 교육이 있는 경우 직접 방문해 설문을 실시했으며, 체험마을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시·군 협의회 대표를 통해 각 시·군 체험휴양마을 위원장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후 설문지를 취합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설문응답이 많지 않아 각 시·군 체험휴양마을 위원장 혹은 사무장에게 전자메일로 설문의를뢰를 부탁한 다음 직접 전화 연락을 취해 전자메일로 설문지를 회수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는 59개 마을에서 설문지가 취합됐다.<sup>12)</sup> 설문대상 체험휴양마을에 관

11) 따라서 설문은 한 마을당 한 명에 한해 실시됐다.

12) 설문지 회수가 어려운 이유는 현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운영 현황과 관련이 있다. 체험휴양마을이 잘 운영되는 경우 설문회수가 비교적 쉬운 반면, 경영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설문회수가 어렵다. 최근 들어 특히 체험휴양마을들이 경영 부진으로 잠정 휴업인 상태인 경우도 많아 실질적으로 체험휴양마을을 전담하는 인력이 없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설문회수가 가능한 마을은 농촌체험관광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설문분석은 충남도 내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전체를 대표한다기보다는 체험관광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 마을 대표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임을 밝혀둔다.

한 정보는 ((사)충남도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로부터 제공받았다. 다음은 본 연구의 설문 조사에 관한 간략한 개요이다.

- 설문 목적: 도농교류의 현황 및 담당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방안 모색
- 조사기간: 2015년 10-11월
- 조사대상 수: 충청도내 59개 마을(위원장 또는 마을사무장)
- 조사자: 연구책임자
- 주요 조사내용: ① 체험휴양마을 현황, ② 성과 및 어려움, ③ 제도 개선 및 정책 방향

## 2) 조사 지역 현황

본 설문의 응답자 현황은 다음 <표 5-1>과 같다. 각 시·군별로 보면, 청양군이 11개 마을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주시 7개 마을, 서천군 6개 마을, 아산시와 부여군이 각각 5개로 나타났다. 나머지 시·군은 4개 마을 이하로 나타났다. 충청도 내에서 농촌체험마을 간 협력이 활발한 청양군에서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농촌체험마을 수가 적은 천안시와 계룡시의 경우 응답자(마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각 시·군 설문 응답자 현황

	빈도(체험마을 수)	퍼센트
공주시	7	11.9
보령시	2	3.4
아산시	5	8.5
서산시	4	6.8
논산시	4	6.8
당진시	2	3.4
금산군	4	6.8
부여군	5	8.5
서천군	6	10.2
청양군	11	18.6
홍성군	4	6.8
예산군	2	3.4
태안군	3	5.1
합계	5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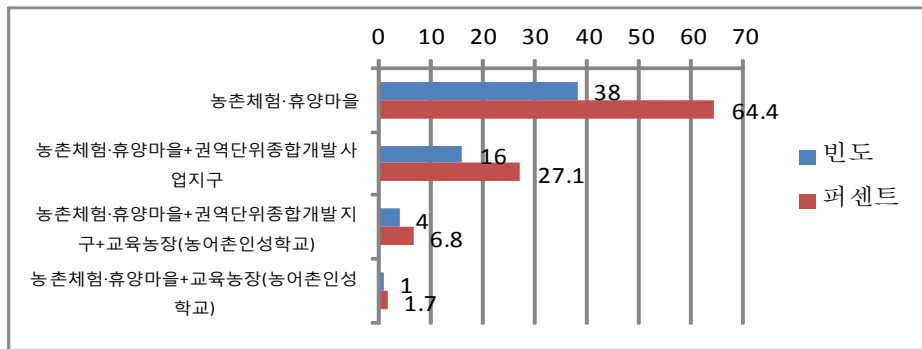
## 2. 주요 조사 결과

### 1) 기본 현황

#### (1) 응답자 및 마을 형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형태를 보면, 마을위원장이 36명으로 61.0%를 차지했고, 마을사무장은 23명으로 전체 39.0%를 차지했다.(<그림 5-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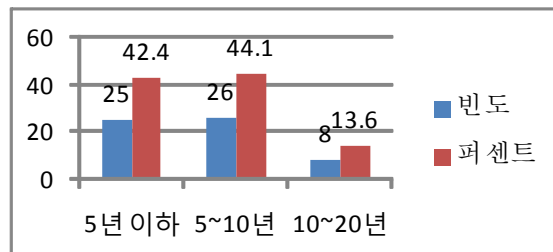
응답한 마을의 형태를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이 38개 마을로 전체 64.4%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지구’도 16개 마을 27.1% 차지했다.



[그림 5-1] 응답자 마을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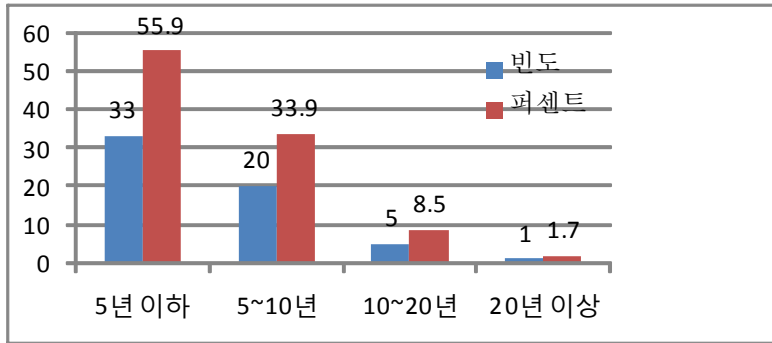
#### (2) 운영 기간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총 운영 기간을 보면, ‘5~10년’이 26개 마을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5년 이하’가 25개 마을로 42.4%를 차지했다. 10년 이상인 마을은 8개 마을로 13.6%를 차지했다.(<그림 5-2> 참조)



[그림 5-2] 체험마을 운영 기간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된 기간(중간 휴식기 제외)을 보면, ‘5년 이하’가 33개 마을로 55.9%를 차지했다. ‘5~10년’인 마을은 20개로 33.9%를 차지했다. ‘20년 이상’인 마을도 1곳으로 나타났다.(<그림 5-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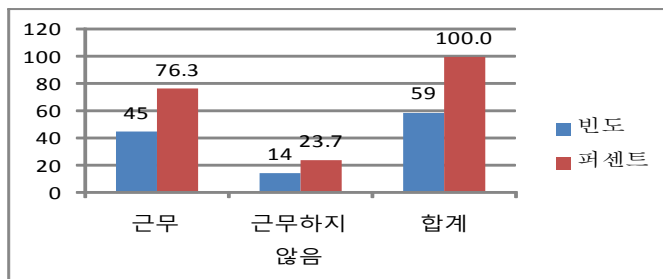


[그림 5-3] 체험마을 운영 기간 중 원활히 운영된 기간

## 2) 체험마을 인력 및 운영 현황

### (1) 마을사무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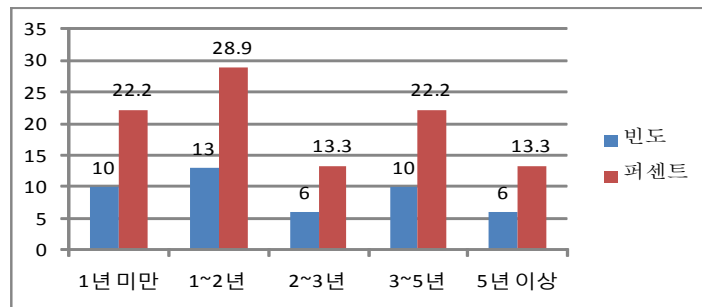
현재 마을사무장 근무 여부를 보면, ‘근무한다’가 45개 마을로 76.3%로 ‘안 한다’는 마을보다 약 3배 많게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체험 활동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 마을에는 마을사무장이 대부분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5-4> 참조)



[그림 5-4] 마을사무장 근무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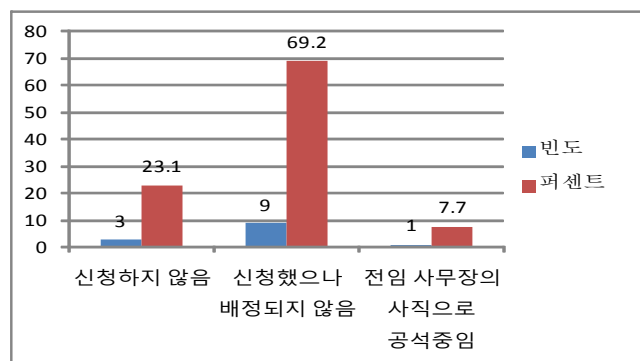
현재 마을사무장의 근무기간을 보면, '1~2년'이 13개 마을, 28.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년 미만'과 '3~5년'인 마을이 각각 10개 마을, 22.2%로 같았다. '5년 이상' 마을은 6개 마을로 13.3%를 차지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사무장의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가 절반을 차지하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3년 이상도 약 3분의 1을 차지해 체험마을사무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5-5> 참조)



[그림 5-5] 현 마을사무장의 근무 기간

사무장이 근무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보면 '신청했으나 배정되지 않음'이 9개 마을로 69.2%를 차지했고 '신청하지 않음'도 3개 마을, 23.1%로 나타났다. 사무장이 근무하지 않는 마을의 경우 사무장 배경을 신청했으나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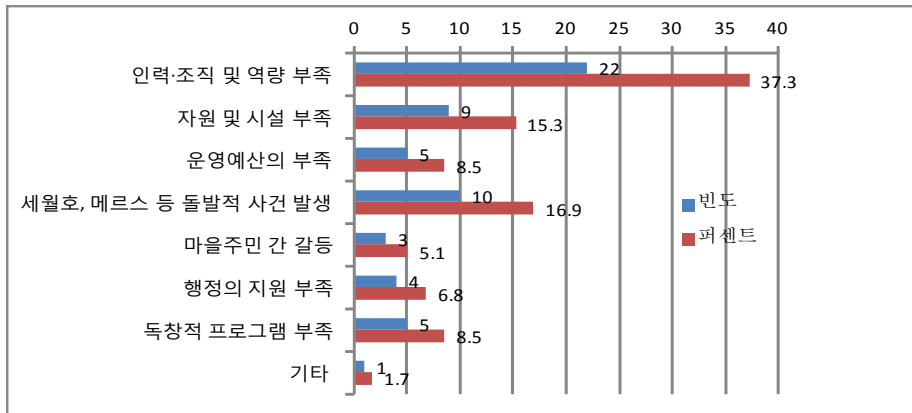
(<그림 5-6> 참조)



[그림 5-6] 마을사무장이 없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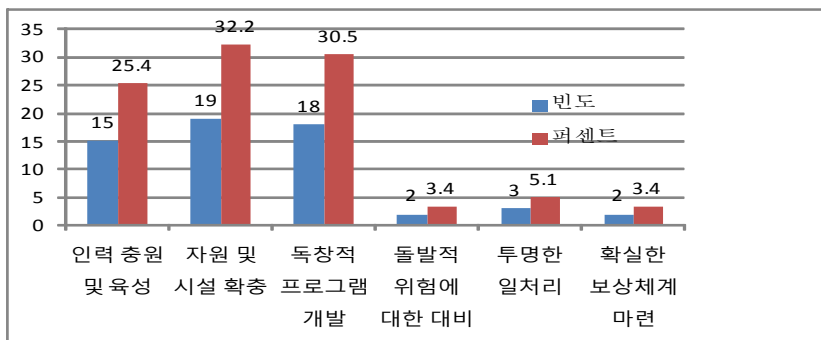
## (2) 체험마을 운영의 어려운 점 및 역점 사업

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점을 보면, 가장 높은 응답으로는 ‘인력·조직 및 역량 부족’이 22개 마을, 37.3%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세월호, 메르스 등 돌발적 사건 발생’이 10개 마을 16.9%로 나타났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돌발 사건에 대해 체험마을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어려운 점은 ‘자원 및 시설 부족’을 꼽았다. (<그림 5-7> 참조)



[그림 5-7] 체험휴양마을 운영의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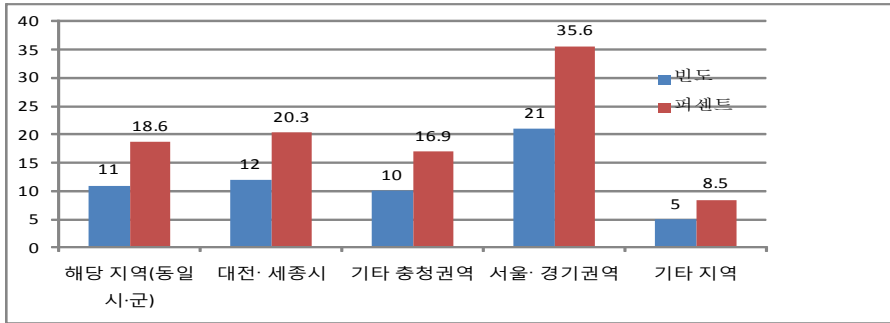
체험마을의 운영에서 가장 역점에 두고 있는 사항을 보면, ‘자원 및 시설 확충’, ‘창조적 프로그램 개발’이 각각 19개 마을, 18개 마을로 많았고 다음이 ‘인력 충원 및 육성’이 차지했다. (<그림 5-8> 참조)



[그림 5-8] 체험휴양마을의 역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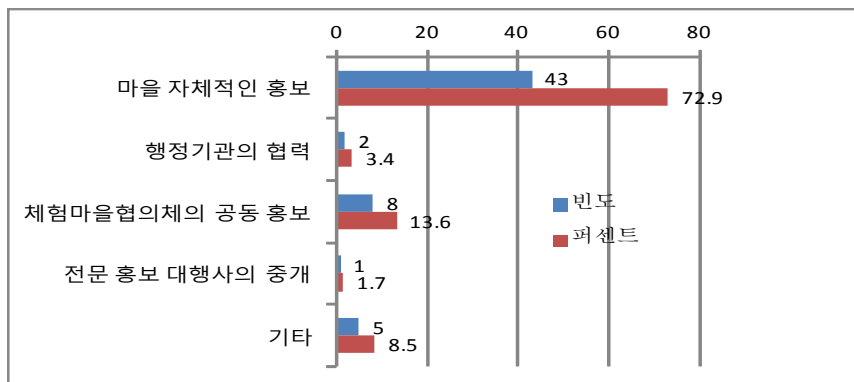
### (3) 체험객 거주지 및 홍보 방법

충남도에 오는 체험객의 거주지를 보면, ‘서울경기권역’이라는 응답이 21개 마을 35.6%로 ‘대전·세종시’, ‘해당 지역(동일 시·군)’보다 약 두 배 많았다.(<그림 5-9> 참조)



[그림 5-9] 체험객의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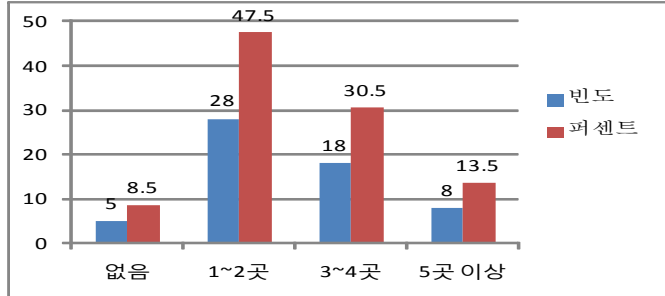
체험마을에서의 체험객 유치 방법을 보면, ‘마을 자체적인 홍보’가 43개 마을로 72.9%를 차지해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다른 기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체험마을협의체가 공동 홍보한다.’는 응답도 8개 마을, 13.6%를 차지했다. ‘행정기관의 협력’은 3.4%로 극히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10> 참조)



[그림 5-10] 체험객의 유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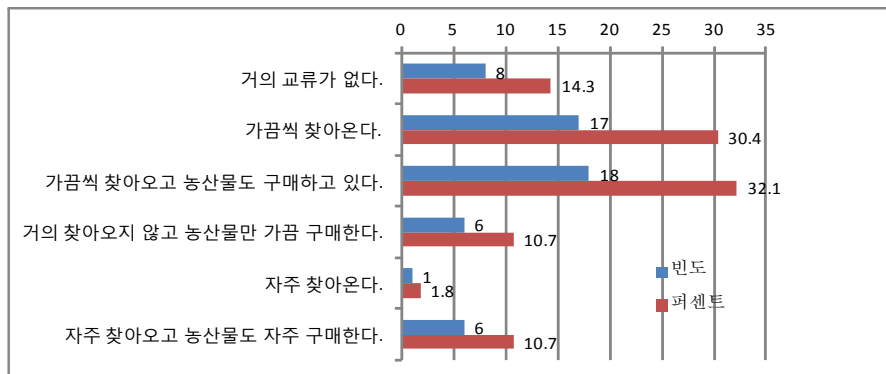
#### (4) 1사1촌 현황

현재 체험마을에서 1사1촌을 맺고 있는 기관(기업) 현황을 보면, ‘1~2곳’이라는 마을이 28개로 47.5%를 차지했다. 거의 절반의 체험마을에서는 한두 곳의 기관과 1사1촌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4곳’이 18개 마을, 30.5%를 차지했고 ‘5곳 이상’이라는 응답도 8개 마을로 13.5%로 나타났다. 1사1촌 자매결연이 없는 마을은 5개 마을 8.5%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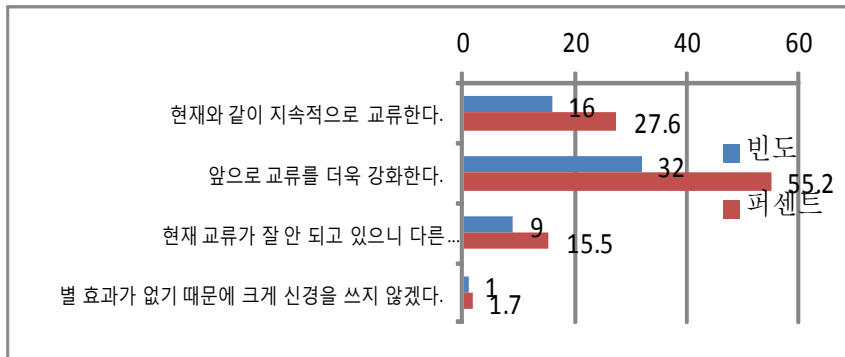
[그림 5-11] 체험휴양마을의 1사1촌 자매결연 현황

1사1촌을 맺고 있는 기관(기업)과의 최근 교류 현황을 보면, ‘가끔씩 찾아오고 농산물도 구매하고 있다.’가 18개 마을, 3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끔씩 찾아온다.’가 17개 마을로 30.4%를 차지했다. 이를 더하면 60.0% 이상의 마을에서 1사1촌을 통해 도시의 기관과 가끔씩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주 찾아오고 농산물도 자주 구매한다.’는 응답은 6개 마을, 10.7%인 것으로 조사됐다.(<그림 5-12> 참조)



[그림-12] 체험휴양마을의 1사1촌 교류 현황

체험마을의 향후 1사1촌 교류 계획에 관한 의견을 보면, ‘앞으로 교류를 더욱 강화한다.’가 32개 마을, 55.2%로 절반을 상회했으며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교류한다.’도 16개 마을, 27.6%를 차지해 대부분은 현재 상태 이상의 교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마을은 1곳에 불과했다.(<그림 5-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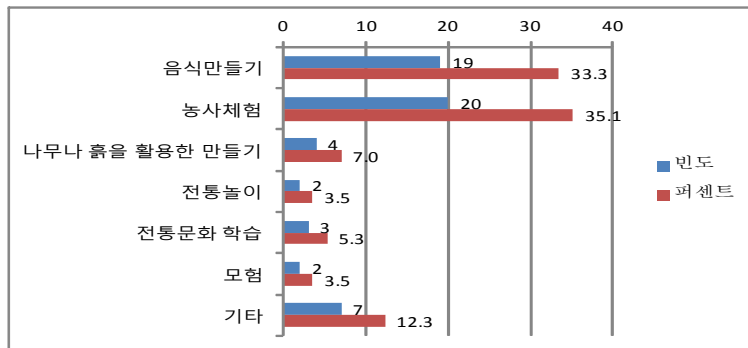


[그림 5-13] 체험휴양마을의 향후 1사1촌 교류 계획

#### (5) 체험프로그램 선호도와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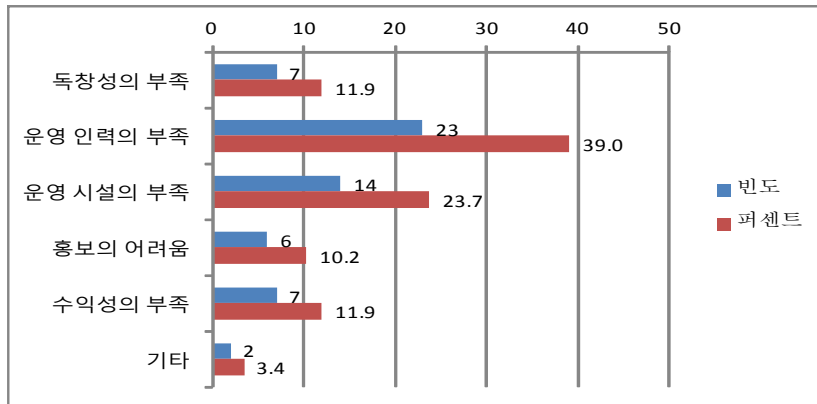
체험마을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 가운데 방문객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 유형을 보면, ‘농사체험’과 ‘음식만들기체험’이 각각 20개 마을, 19개 마을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타’도 7개 마을에서 응답했다. ‘기타’의 경우에는 갯벌이나 염전체험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4> 참조)



[그림 5-14] 체험프로그램의 선호도

또한, 체험마을의 체험프로그램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운영 인력의 부족’이 23개 마을, 39.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운영 시설의 부족’이 14개 마을, 23.7%를 차지했다. 즉, 인력과 시설 부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창성의 부족’, ‘홍보의 어려움’, ‘수익성의 부족’ 등은 10.% 내외로 비슷하게 나타났다.(<그림 5-15> 참조)



[그림 5-15] 체험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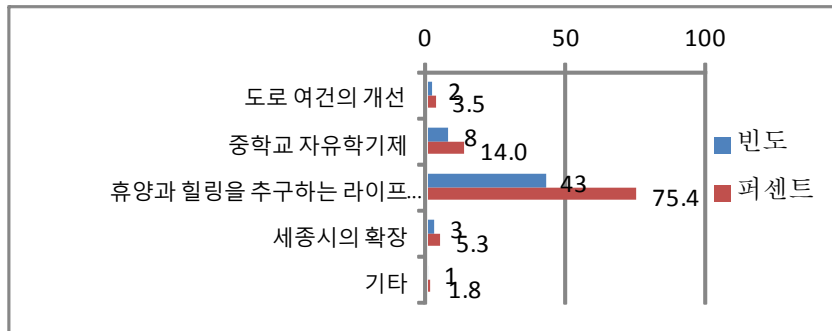
### 3) 도농교류 담당자의 의견

#### (1) 도농교류 영향 요인과 준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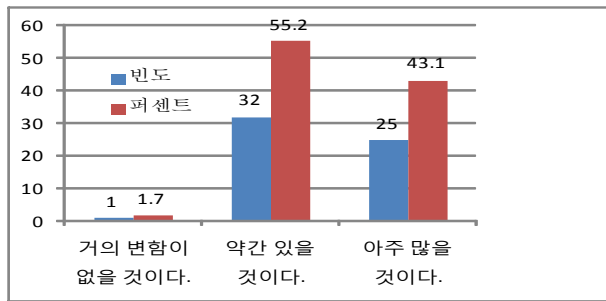
향후 해당 체험마을의 농촌체험활동에 가장 많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 요인으로 는 ‘휴양과 힐링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43개 마을, 75.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8개 마을, 14.0%로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확장’은 3개 마을로 큰 영향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6> 참조)

위와 같은 변화가 향후 해당 체험마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약간 있을 것이다.’와 ‘아주 많을 것이다.’가 각각 32개 마을과 25개 마을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즉, 휴양과 힐링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든 농촌체험관광 활동에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5-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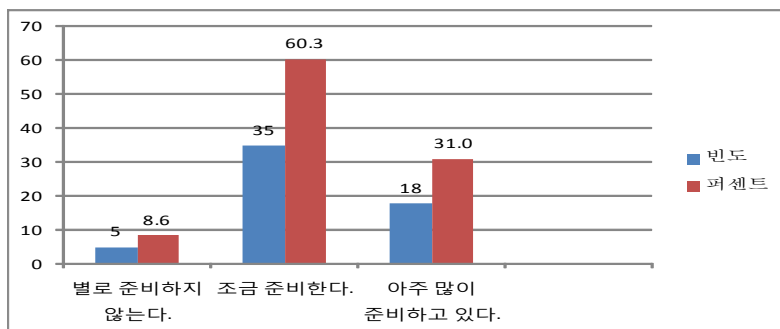


[그림 5-16] 도농교류의 영향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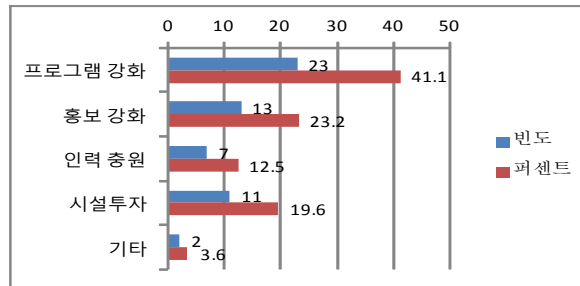
[그림 5-17] 도농교류 영향 요인의 향후 영향 정도

그렇다면 해당 체험마을은 위와 같은 변화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질문에 ‘조금 준비한다.’가 33개 마을, 60.3%이고 ‘아주 많이 준비하고 있다.’는 18개 마을, 31.0%로 대부분의 체험마을은 위와 같은 변화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18> 참조)



[그림 5-18] 향후 변화에 대한 준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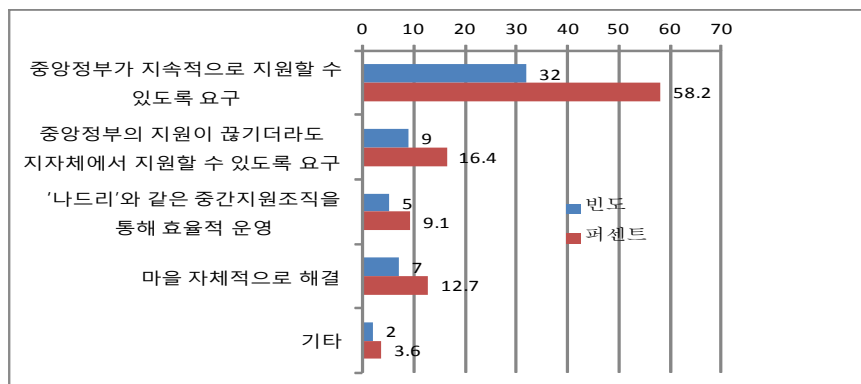
위와 같은 변화에 대비해 어느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준비하는지를 보면, 역시 ‘프로그램 강화’가 23개 마을, 41.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홍보 강화’가 13개 마을, 23.2%로 나타났다. ‘시설투자’를 준비한다는 마을도 11개 마을, 19.6%로 나타났다.(<그림 5-19> 참조)



[그림 5-19] 향후 변화에 대한 역점 준비 사업

## (2) 마을사무장제도 개선 방향

현재 마을사무장제도가 8년 일몰제로 인해 조만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축소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는 응답이 32개 마을, 58.2%로 과반수가 넘었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기더라도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는 9개 마을 16.4%로 나타났고,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응답도 7개 마을이었다. 반면, “‘농촌나드리’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효율적 운영”이라는 응답은 5개 마을, 9.1%에 불과했다.(<그림 5-2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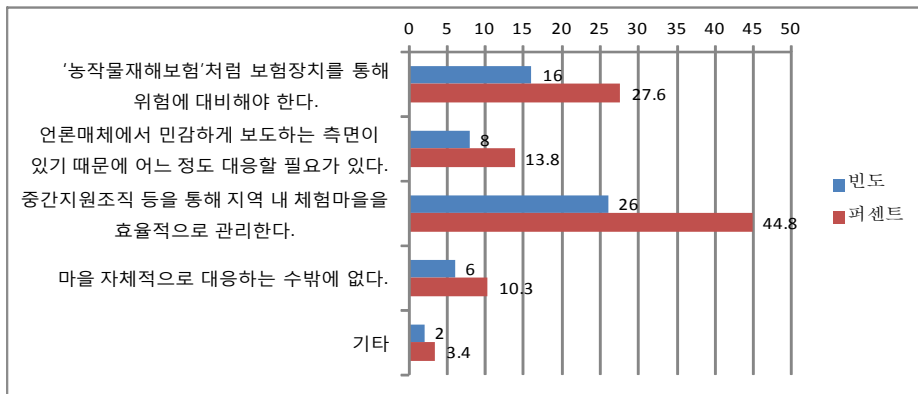


[그림 5-20] 마을사무장의 8년 일몰제에 대한 의견



### (3) 위기 대응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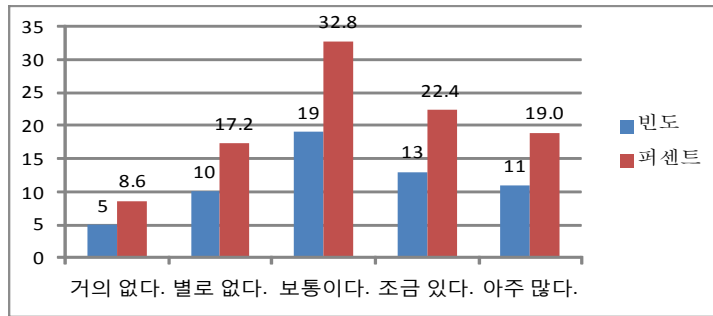
최근 몇 년 들어, 진드기, 세월호사건, 메르스사태 등으로 농촌체험활동이 상시적인 위험사태에 직면하면서 체험마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돌발적 위험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 ‘중간지원조직 등을 통해 지역 내 체험마을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가 26개 마을, 44.8%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농작물재해보험’처럼 보험장치를 통해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응답도 16개 마을, 27.6%로 나타났다. 그 외 ‘언론 과민 반응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개 마을, ‘마을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는 응답은 6개 마을로 나타났다.(<그림 5-21> 참조)



[그림 5-21] 세월호사건, 메르스사태와 같은 위기 대처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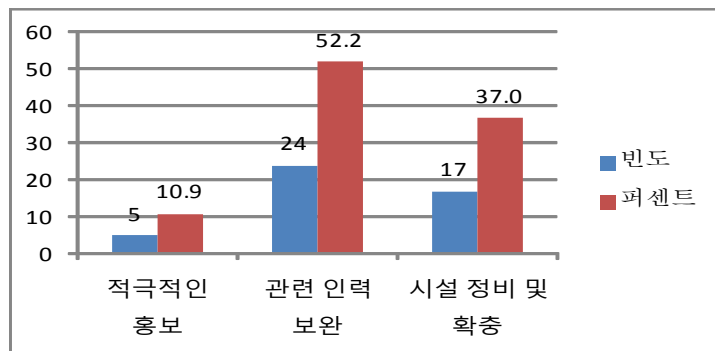
### (4) 중국관광객 유치 의향 및 준비 방향

최근 들어 농촌체험마을에서도 요우커(중국관광객)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체험마을의 중국 요우커 유치에 대한 관심 정도를 보면, ‘보통이다.’가 19개 마을, 32.8%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조금 있다.’와 ‘아주 많다.’가 각각 13개, 11개 마을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2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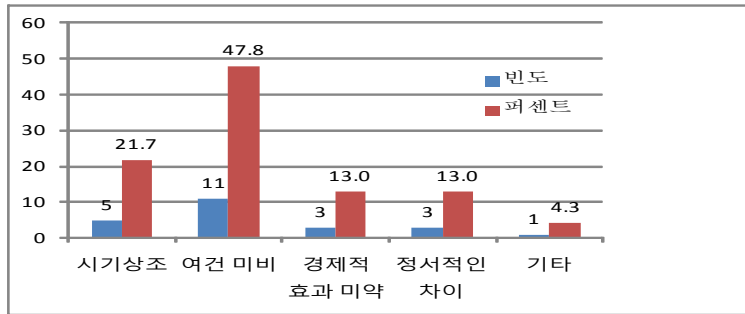
[그림 5-22] 중국 요우커의 유치에 대한 관심도

중국 요우커 유치에 관심이 있는 경우 어떤 방면의 준비가 가장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련 인력 보완’과 ‘시설 정비 및 확충’이 각각 24개 마을(52.2%), 17개 마을(37.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홍보 분야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그림 5-23> 참조)



[그림 5-23] 중국 요우커 유치를 위한 준비사업

요우커 유치에 관심이 없는 경우, 그 이유를 보면 ‘여건 미비’가 4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시기상조’가 21.7%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중국 요우커를 유치하기에는 아직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그림 5-2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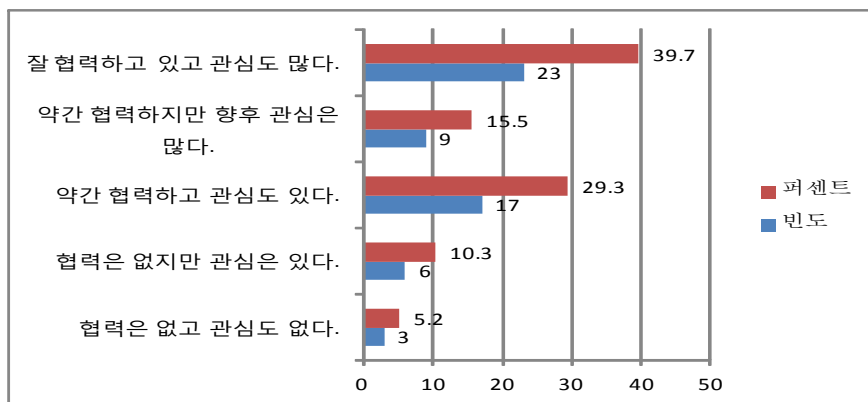


[그림 5-24] 중국 요우커 유치에 관심 없는 이유

#### 4) 중간지원조직화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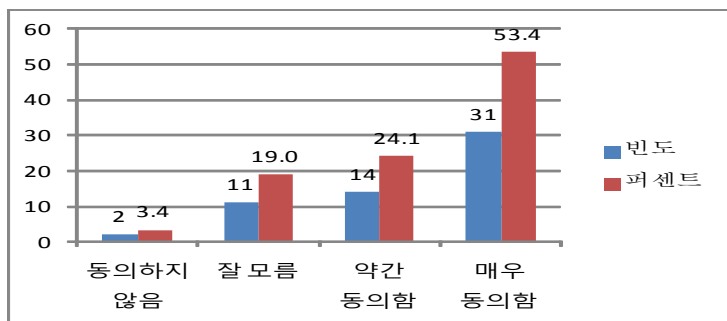
##### (1) 체험마을 간 협력과 중간지원조직의 필요 여부

해당 체험마을은 지역 내 다른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어느 정도 연계·협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심은 어떠한지를 보면, ‘잘 협력하고 있고 관심도 많다.’가 23개 마을, 39.7%로 가장 높았으며 ‘약간 협력하지만 향후 관심은 많다.’와 ‘약간 협력하지만 향후 관심은 많다.’가 각각 17개 마을(29.3%), 9개 마을(15.5%)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마을 간 협력을 하고 있고 체험마을 간 협력에 대해 관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25> 참조)



[그림 5-25] 체험휴양마을 간 협력 현황 및 의향

최근 ‘나드리’와 같이 지역 내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공동으로 관리·운영하는 중간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동의 여부를 보면, ‘매우 동의함’이 31개 마을, 53.4%를 차지했고, ‘약간 동의함’이 14개 마을, 24.1%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마을에서 중간지원 조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그림 5-26> 참조)



[그림 5-26]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여부

다음으로, 앞서 조사했듯이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표 5-2>와 같이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인 ‘인력·조직 및 역량 부족’에 응답한 22명 중에는 ‘약간 동의함’이 7명(31.8%), ‘매우 동의함’이 14명(63.6%)으로 나타나 전체 약 95%가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목인 ‘세월호, 메르스 등 돌발적 사건 발생’에 응답한 10명 가운데 7명이 동의했으며, 세 번째 항목인 ‘자원 및 시설 부족’에 대해 응답자 9명 가운데 7명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는 데 가장 어려운 사항인 ‘인력·조직 및 역량 부족’ 부분에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58개 농촌체험휴양마을 가운데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45개 마을(77.5%)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의 어려움별 중간지원조직 동의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동의 정도				전체
		동의하지 않음	잘 모름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인력·조직 및 역량 부족	빈도	0	1	7	14	22
	빈도 내 %	0.0%	4.5%	31.8%	63.6%	100.0%
	전체 %	0.0%	1.7%	12.1%	24.1%	37.9%
자원 및 시설 부족	빈도	0	2	2	5	9
	빈도 내 %	0.0%	22.2%	22.2%	55.6%	100.0%
	전체 %	0.0%	3.4%	3.4%	8.6%	15.5%
운영예산의 부족	빈도	0	2	0	3	5
	빈도 내 %	0.0%	40.0%	0.0%	60.0%	100.0%
	전체 %	0.0%	3.4%	0.0%	5.2%	8.6%
세월호, 메르스 등 돌발적 사건 발생	빈도	1	2	3	4	10
	빈도 내 %	10.0%	20.0%	30.0%	40.0%	100.0%
	전체 %	1.7%	3.4%	5.2%	6.9%	17.2%
마을주민 간 갈등	빈도	0	2	0	1	3
	빈도 내 %	0.0%	66.7%	0.0%	33.3%	100.0%
	전체 %	0.0%	3.4%	0.0%	1.7%	5.2%
행정의 지원 부족	빈도	0	0	1	2	3
	빈도 내 %	0.0%	0.0%	33.3%	66.7%	100.0%
	전체 %	0.0%	0.0%	1.7%	3.4%	5.2%
독창적 프로그램 부족	빈도	1	2	1	1	5
	빈도 내 %	20.0%	40.0%	20.0%	20.0%	100.0%
	전체 %	1.7%	3.4%	1.7%	1.7%	8.6%
기타	빈도	0	0	0	1	1
	빈도 내 %	0.0%	0.0%	0.0%	100.0%	100.0%
	전체 %	0.0%	0.0%	0.0%	1.7%	1.7%
전체	빈도	2	11	14	31	58
	빈도 내 %	3.4%	19.0%	24.1%	53.4%	100.0%
	전체 %	3.4%	19.0%	24.1%	53.4%	100.0%

마지막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주체와 마을사무장 근무 여부에 따른 중간지원조직 동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운영 주체인 마을위원장과 마을사무장을 비교해 보면(<표 5-3> 참조) , 설문에 응답한 총 35명의 마을위원장 가운데 25명(71.4%)이, 총 25명의 마을사무장 가운데 20명(86.9%)이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동의해 중간지원조직에 대해 마을사무장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마을사무장이 있는 마을과 없는 마을을 구분해 조사한 결과, 마을사무장이 근무한 마을 45곳 가운데 38곳(84.5%)이 동의했고, 근무하지 않는 마을 13곳 가운데 7곳(53.9%)이 동의해 마을사무장이 근무하는 마을에서 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원인은 보통 마을사무장이 있는 마을이 없는 마을보다 농촌체험이 활성화 됐고 마을사무장 간 교류도 많다보니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기간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동의 정도를 보면, 운영 기간이 5년 이하인 마을 32곳 중 25곳(78.1%)이 동의를 표했고, 5~10년인 마을 20곳 중 14곳(60%)이 동의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10년 이상인 6곳은 모두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 초기에 있는 마을에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주체와 상황에 따른 중간지원조직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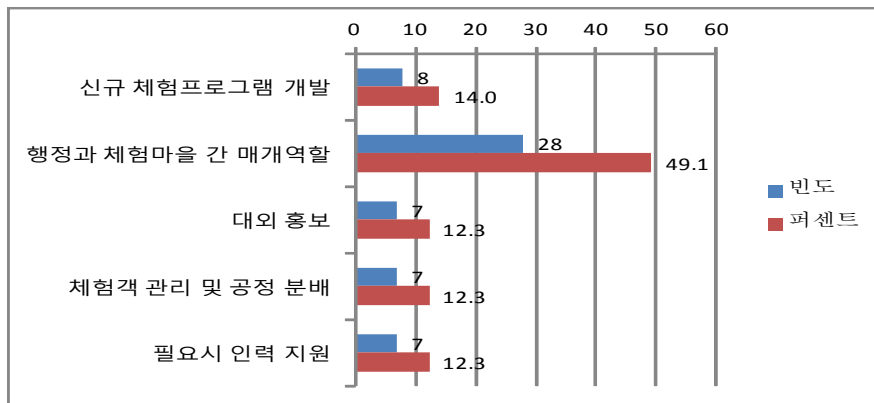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동의 정도				전체
			동의하지 않음	잘 모름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마을 내 역할	마을위원장	빈도	2	8	7	18	35
		빈도 내 %	5.7%	22.9%	20.0%	51.4%	100.0%
		전체 %	3.4%	13.8%	12.1%	31.0%	60.3%
	마을사무장	빈도	0	3	7	13	23
		빈도 내 %	0.0%	13.0%	30.4%	56.5%	100.0%
		전체 %	0.0%	5.2%	12.1%	22.4%	39.7%
마을사무 장 근무 여부	근무	빈도	1	6	12	26	45
		빈도 내 %	2.2%	13.3%	26.7%	57.8%	100.0%
		전체 %	1.7%	10.3%	20.7%	44.8%	77.6%
	근무하지 않음	빈도	1	5	2	5	13
		빈도 내 %	7.7%	38.5%	15.4%	38.5%	100.0%

		전체 %	1.7%	8.6%	3.4%	8.6%	22.4%
체험마을 운영 기간	5년 이하	빈도	1	6	7	18	32
		빈도 내 %	3.1%	18.8%	21.9%	56.3%	100.0%
	5~10년	빈도	1	5	5	9	20
		빈도 내 %	5.0%	25.0%	25.0%	45.0%	100.0%
	10년 이상	빈도	0	0	2	4	6
		빈도 내 %	0.0%	0.0%	33.3%	66.7%	100.0%

## (2)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시·군 내 ‘나드리’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진다면(이미 만든 지역 포함)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행정과 체험마을 간 매개역할’이 28개 마을, 49.1%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신규 체험프로그램 개발’이 8개 마을, 14.0%로 나타났다. 나머지 ‘대외 홍보’, ‘체험객 관리 및 공정 분배’, ‘필요시 인력 지원’ 등은 각각 7개 마을로 동일하게 나타났다.(<그림 5-27> 참조)



[그림 5-27]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역할

다음으로 마을 내 역할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역할을 보면, 마을위원장과 마을사무장 모두 각각 46.1%, 52.2%로 중간지원조직의 가장 큰 역할은 ‘행정과 체험마을 간 매개 역할’

이라고 응답했지만 그 다음 역할을 보면, 마을위원장은 ‘신규 체험프로그램 개발’, ‘대외홍보’, ‘체험객 관리 및 공정 분배’를 중요시 했고, 마을사무장은 ‘필요시 인력 지원’을 중요시 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행정과 체험마을 간 매개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역할은 거의 비슷하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4> 참조)

[표 5-4] 마을 내 역할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역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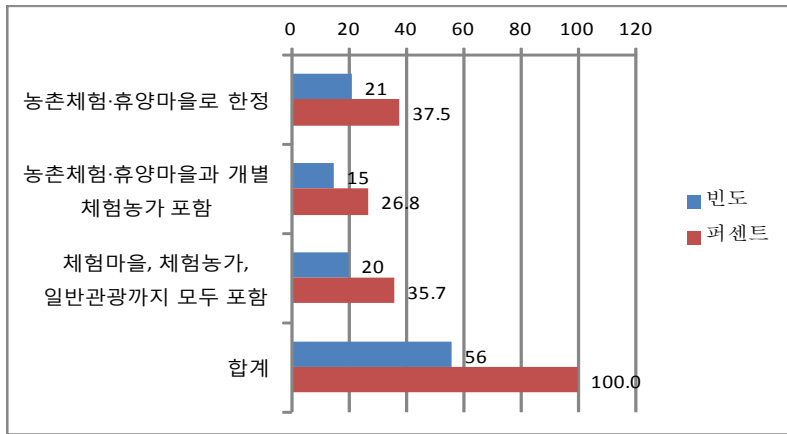
구 분		빈 도	주요 역할					전체
			신규 체험프로그램 개발	행정과 체험마을 간 매개역할	대외 홍보	체험객 관리 및 공정 분배	필요시 인력 지원	
마을 내 역할	마을 위원장	빈도	6	16	5	5	2	34
		빈도 내 %	17.6%	47.1%	14.7%	14.7%	5.9%	100.0%
	마을 사무장	빈도	2	12	2	2	5	23
		빈도 내 %	8.7%	52.2%	8.7%	8.7%	21.7%	100.0%
전체		빈도	8	28	7	7	7	57
		빈도 내 %	14.0%	49.1%	12.3%	12.3%	12.3%	100.0%

### (3)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방식

만약 시·군 내 ‘농촌나드리’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진다면(이미 만든 지역 포함) 그 범위는 어디까지가 적당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농촌체험·휴양마을로 한정’과 ‘체험마을, 체험농가, 일반관광까지 모두 포함’이 각각 21개 마을, 20개 마을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고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개별 체험농가 포함’은 15개 마을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세 유형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그림 5-2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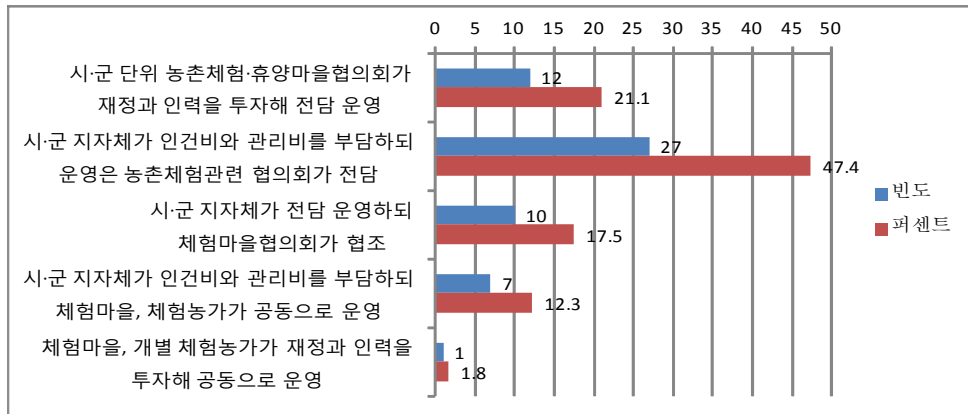
또한, 만약 시·군 내 ‘농촌나드리’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진다면(이미 만든 지역 포함)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해, ‘시·군 지자체가 인건비와 관리비를 부담하되 운영은 농촌체험관련 협의회가 전담’이 27개 마을, 47.4%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시·군 단위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재정과 인력을 투자해 전담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12개 마을, 21.1%로 나타났다.(<그림 5-29> 참조) ‘시·군 지자체가 전담 운영하되 체험마을협의회가 협조’와 ‘시·군 지자체가 인건비와 관리비를 부담하되 체험마을, 체험농가가 공동으로 운영’은 각각 10개 마을, 7개 마을로 낮았으며 ‘체험마을, 개별 체험농가가 재정과 인력을 투자해 공동으로 운영’은 1개 마을로 극히 적었다.





[그림 5-28] 중간지원조직 참여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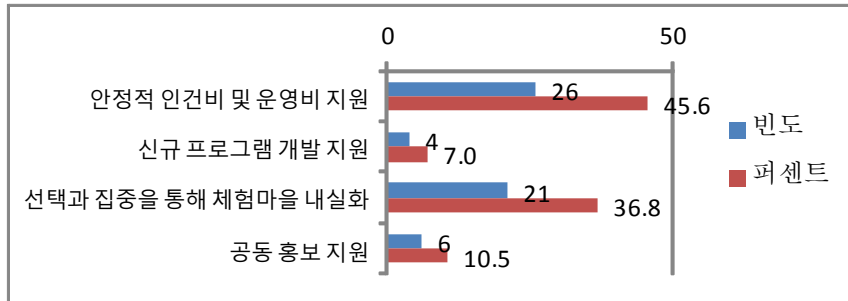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보면, 시·군 단위 지자체가 인건비와 관리비를 지원하되 협의회 혹은 중간지원조직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9] 중간지원조직의 적합한 운영 방식

마지막으로 ‘농촌나드리’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진다면 충남도와 각 시·군에서 가장 역점에 두어야 할 사항을 보면, 역시나 ‘안정적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26개 마을, 4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험마을 내실화’라는 응답은 21개 마을, 36.8%로 나타났다. ‘공동 홍보 지원’과 ‘신규 프로그램 개발 지원’은 각각 6개 마을, 4개 마을로 나타났다.

즉, 사람에 대한 투자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체험마을의 내실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5-30> 참조)



[그림 5-30]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관의 지원 방향

구체적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마을 내 역할과 운영기간에 따른 중간지원조직 지원 방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마을위원장은 ‘안정적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전체 34곳 중 18곳(52.9%)으로 가장 많은 반면, 마을사무장은 23곳 가운데 11곳(47.8%)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체험마을 내실화’를 꼽았다.(<표 5-5> 참조) 또한 체험마을 운영기간별 보면, 운영 초기라고 할 수 있는 5년 이하 마을 32곳 중 16곳(50.0%)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체험마을 내실화’를 꼽았고, 5~10년, 10년 이상은 각각 12곳(63.2%), 3곳(50.0%)으로 ‘안정적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꼽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체험마을 운영기간이 오래 될수록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줬다.

[표 5-5] 마을 내 역할과 체험마을 운영기간에 따른 중간지원조직 지원 방향

구 분		빈도	세부 지원 방향				전체
			안정적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신규 프로그램 개발 지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험마을 내실화	공동 홍보 지원	
마을 내 역할	마을위원장	빈도	18	2	10	4	34
		빈도 내 %	52.9%	5.9%	29.4%	11.8%	100.0%
	마을사무장	빈도	8	2	11	2	23
		빈도 내 %	34.8%	8.7%	47.8%	8.7%	100.0%
체험마을 운영기간	5년 이하	빈도	11	2	16	3	32
		빈도 내 %	34.4%	6.3%	50.0%	9.4%	100.0%

	5~10년	빈도	12	1	3	3	19
		빈도 내 %	63.2%	5.3%	15.8%	15.8%	100.0%
	10년 이상	빈도	3	1	2	0	6
		빈도 내 %	50.0%	16.7%	33.3%	0.0%	100.0%
전체		빈도	26	4	21	6	57
		빈도 내 %	45.6%	7.0%	36.8%	10.5%	100.0%

### 3. 요약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충남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담당자 59명을 대상으로 도농교류 현황, 어려움,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의견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인력과 조직 그리고 역량 부족을 꼽았다. 또한 세월호사건, 메르스사태 등 돌발적 사건 발생으로 인한 어려움을 그 다음으로 꼽았다. 현재 대부분의 체험마을에서 상시적으로 느끼는 인력 및 역량 부족 외에 최근에 발생하는 돌발적 사태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돌발적 사태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중간지원조직 등을 통해 지역 내 체험마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과 농작물 재해보험처럼 보험장치를 통해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둘째,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31개 마을(53.4%)이 매우 동의한다고 했고, 14개 마을(24.1%)이 약간 동의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농촌체험휴양마을 담당자들은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의 주요한 역할로는 행정과 체험마을 간 매개 역할이라고 응답한 마을은 28개 마을(49.1%)로 절반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신규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꼽았다.

셋째, 중간지원조직의 참여 범위에 관한 질문에 농촌체험휴양마을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체험마을, 체험농가, 일반관광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21개 마을(37.5%), 20개 마을(35.7%)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참여 범위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범위로 한정하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 내 체험관광을 주관하는 모든 조직과 단체로 할 것인지 선택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간지원조직의 적합한 운영 방식으로는 시·군 지자체가 인건비와 관리비를

부담하되 운영은 농촌체험 관련 협의회가 전담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꼽았고(27개 마을, 47.4%), 다음으로는 시·군 단위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재정과 인력을 투자해 전담하는 방식을 꼽았다(12개 마을, 21.1%).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된다면 충남도와 각 시·군에서 역점에 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안정적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고(26개 마을, 45.6%), 다음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험마을 내실화를 꼽았다(21개 마을, 36.8%). 즉,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나 현재 지나치게 육성된 체험마을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평가 등을 통해 차등 지원하는 등 내실화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 제6장 결론

###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충남도가 3농혁신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30대 과제 중의 하나인 도농교류 활성화사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본 연구의 제1장에서는 연구 필요성과 목적, 연구 범위, 연구 방법, 분석틀과 연구 흐름도를 설명했다. 연구 필요성과 목적은 앞서 설명했듯이 도농교류 및 농어촌체험관광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의 제시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개별 체험마을과 농장에 대한 지원 정책보다는 각 시·군 단위에서 어떻게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행정과 현장을 연결해 도농교류와 체험관광을 활성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 연구의 범위는 충남도와 각 시·군이며 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도자와 실무진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 통계자료 분석, 인터뷰조사,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어촌체험마을 관리시스템(RUCOS) 내에 구축되어 있는 체험마을 데이터를 활용해 충남도 농촌체험마을의 방문객 및 경영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충남도 내 농촌체험휴양마을 지도자와 실무진을 대상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와 정책 동향을 분석했다. 선행 연구는 크게, 농어촌체험, 도농교류, 중간지원조직, 농특산물 판매, 그리고 외국 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양평군의 농촌나드리에 대해 분석한 이차희 등(2014) 등의 연구를 분석했다. 또한, 도농교류와 농촌체험관광 관련 정부정책 내용과 기조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향후 도농교류사업에 영향을 줄 정책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심사제, 자유학기제와 중간지원조직 관련한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충남도 도농교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했다. 여기에서는 충남도 3농혁신정책에서 도농교류사업의 내용과 목표를 살펴보았고, 도농교류 현황과 성과는 주로 한국농어촌공

사 농촌체험마을관리시스템(RUCOS) 내 통계자료를 활용해 충남도 농촌체험마을의 방문객 추이, 소득 추이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충남도 도농교류와 농촌체험관광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했다.

제4장에서는 도농교류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충남도 차원의 중간지원조직인 (사)충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와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조직현황과 사업 추진 내용을 살펴봤다. (사)충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충남도내 120개 농어촌체험마을을 통합 관리 지원하는 조직이며 충남도의 대표적인 도농교류사업인 <고향마실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도심 속 학교농 만들기>사업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각 시·군의 경우, 홍성군의 홍성농어촌체험관광협회와 홍성농어촌체험관광지원센터의 현황과 사업 추진 내용을 살펴봤으며, 청양군의 경우, 시·군 도농교류사업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모델로 평가되고 있는 청양군 도농교류센터 <칠갑마중>의 조직현황과 사업 추진 내용을 살펴왔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 현황을 통해 중간지원조직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제5장에서는 충남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재 체험휴양마을의 운영현황과 어려운 점, 향후 운영 방향과 계획에 관한 의견을 조사해 분석했다. 현재 충남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120개 마을 가운데 총 59개 마을의 지도자와 사무장이 응답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체험마을 담당자들은 현재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인력과 시설 면에서 가장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도농교류는 앞으로 계속 강화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체험마을 간 어떤 식으로든 협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협력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농촌나드리’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충남도와 각 시·군에서 운영비와 관리비의 지원은 필요하되 운영은 각 시·군 협의회가 주도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제6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고 향후 도농교류와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구축 및 역할과 관련해 정책적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적 방안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충남도 도농교류 전반적인 상황에서의 정책 제안이고, 나머지 하나는 본 연구에서 목적으로 했던 도농교류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구축과 역할에 관한 정책적 제안이다. 이를 통해 현재 충남도와 각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시사점도 제시했다.

## 2. 정책적 제언

충남도의 도농교류와 농어촌 체험관광은 최근 들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국토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산, 강, 바다, 평원, 산촌, 역사문화 등이 골고루 갖추고 있어 농어촌 체험관광 자원이 풍부한 충남도는 최근 공주와 부여의 백제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KTX공주역이 개통이 되면서 농어촌체험관광의 여건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세종특별자치시 내 정부기관과 각급 공공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역사문화가 풍부하고 생태와 자연환경이 잘 갖춰진 충남도 농어촌을 찾는 도시민들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충남도는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에도 3농혁신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도농교류 활성화사업과 농어촌사랑응원사업을 선정해 도시민에게는 재충전의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 농어민들에게는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2011년 162개였던 농어촌 체험관광마을을 2020년까지 200개 마을로 확대하고 그동안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 사업에서 탈피해 소프트웨어 중심의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분야 종사자의 인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충남의 농어촌체험관광은 충남도와 ((사)충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농협충남지역본부, 한국관광공사충청권협력단, 충남친환경농업연합회, 코레일대전충남본부, 충남교육청,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하에서 추진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체험관광이 농촌지역 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심 속의 아이들에게 직접 찾아가 아이들이 도심 속에서도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심 속의 학교 논 만들기」 사업을 실시해왔다. 이 사업은 현재 농촌체험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인성교육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되어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sup>13)</sup>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농교류사업 전반에는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 핵심주제는 첫째, 도농교류와 농어촌 체험관광을 통해 어떻게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것인가 이고, 둘째, 이러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 내 도농교류사업을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

13) 이상의 내용은 본 연구자가 『충남경제』 (2013년 11월호)에 “충남도 농어촌체험마을의 운영 현황과 과제”에서 쓴 글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정리했다.

따라서 앞서 몇몇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농교류와 농어촌체험관광 관련 중간지원조직 사례를 소개했듯이 이러한 통합적 관리 방식인 중간지원조직이 향후 도농교류와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정책에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도농교류와 농어촌 체험을 통한 지역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1)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방안

앞서 제2장에서 소개한 정책 변화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이 중학교 자유학기제이다. 체험마을과 농장의 방문객이 학생들인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물론 체험마을과 농장에는 학생들만이 오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들도 많이 찾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 체험마을과 농장 운영에 있어 개별 방문객이 점점 줄고, 1사1촌이나 기관 간 결연을 통한 방문도 줄고 있는 상태에서 향후 학교와 연계한 도농교류 활동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체험활동은 가급적 학습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선호한다. 일례로 공주시의 한 농장에서는 농촌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국제무역 거래와 관련한 게임을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단순한 농사체험으로는 한계가 있다.

둘째, 학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스토리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 마을이야기 등 스토리텔링은 일반 마을주민 수준이 아니라 전문적인 해설사 수준의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숙박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은 가급적 줄인다. 사실 농촌주변에 좋은 숙박 시설들은 많다. 현재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관광은 주로 단일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에 지나친 투자는 낭비일 수 있다. 숙박시설보다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과 이를 채울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

넷째, 체험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직접 찾아가는 체험활동 프로그램 행사의 확대도 필요하다. 2014년 대전에서, 2015년 세종시에 개최됐던 <고향마실페스티벌>은 현재 중부권 최대이자 최고의 도농교류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서울과 대전, 천안 등 충남의 친환경농업인들이 도시



의 학교로 직접 찾아가 진행하고 있는 <도심 속 학교는 만들기>는 도심의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이러한 행사는 유지내지 확대 진행할 필요가 있다.

## 2) 도농교류 및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축 방안

본 연구의 제4장에서 주로 설명했듯이 현재 충남도와 각 시·군에서는 도농교류와 농어촌체험관광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점도 제기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의 구축을 통한 도농교류와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충남도가 추진 중인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과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충남도는 현재 충남도 전체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하는 한편, 각 시·군의 중간지원조직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도 도농교류 및 농어촌체험관광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은 이와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각 지역의 형편에 맞는 중간지원조직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충남도에는 11개의 시·군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있는데 그 운영 형태는 각각 다르다. 또한 현재 도농교류 및 농어촌체험관광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구축되어 있는 시·군은 홍성군과 청양군 두 곳이고 구축됐다가 중단된 시·군은 공주시이다. 이들 세 지역의 중간지원조직 형태는 모두 다르며 운영 방식 또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할 경우 하나의 모델보다는 지역의 사정에 맞는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모든 시·군이 양평농촌나드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셋째, 앞으로 도농교류 및 농어촌체험관광사업은 개별 마을단위 지원에서 시·군 단위로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시·군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 사실 그동안 정부 정책으로 인해 농어촌체험관광마을과 시설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마을사무장 지원이 8년을 끝으로 축소됨에 따라 개별 마을들은 자구책을 강구해야 하나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마을은 사무장 등 기타 지원을 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마을들에 대해 일일이 지원하기

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체험마을들은 자동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별 마을에 대한 지원보다는 시·군 차원에서 도농교류 및 체험관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확대와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민간의 중간에서 단순한 업무 지원 및 조정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내 체험해설사를 키우고 젊은 인력들이 지역 내로 들어와 지역에서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내지 멘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 내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의 육성이 필요하다. 반드시 각 시·군 단위 중간지원조직 일 필요는 없다. 체험마을 단위, 체험농장 단위, 구역 단위 협의 및 협력체의 구축이 필요하다. 공주시에서 시도되고 있는 구역 단위 체험농가 간 협업체인 공주드림팜협동조합도 하나의 좋은 모델이다. 물론 새로운 협력체를 만들 경우에는 기존 관련 조직과의 협력과 협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간지원조직의 구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수한 인력과 재정 확보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조직의 운영원리이기도 하다. 하나의 조직이 활성화되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가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재정이 있어야 한다. 현재 유행중인 중간지원조직은 어떤 면에서는 전시 및 성과주의 행정의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도농교류와 농어촌체험관광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처럼 중요한 중간지원조직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일정 부분의 재정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중간지원조직 자체도 행정과 회원들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사업개발 혹은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통해 자립적인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구자인. 2015. 주민 주도 상향식의 마을만들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민간네트워크 구축 방안. 아산시 제1회 마을학교 5차 종합토론회 발표 자료.
- 김기흥·구자인·박주석·황바람. 2015a. 예산군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설립. 충남연구원.
- 김기흥·구자인·박주석·황바람. 2015b. 홍성군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설립. 충남연구원.
- 김두환. 2013. “낙후농촌의 지속적 수익 창출 위한 도농교류활동 개발 전개과정과 특징: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칠갑산권역 천장리(알프스마을)를 사례로” 『농촌계획』 제19권 제2호: 35-49.
- 김재현·태유리·이효정·임운정. 2013.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3년 농어촌관광사업 등급 결정 현장심사위원교육」 자료. \_\_\_\_\_, 「2014년 농촌관광사업 등급 결정 심의위원회」 자료.
- 다이웨이·곽춘려. 2014. “중국 농촌체험관광 요인이 농특산물 구매 및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Tourism Research』 제39권 제3호: 1-23.
- 마상진. 2011. 사회적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육성과 네트워크 활성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640-2.
- 박경철. 2013. “충남도 농어촌체험마을의 운영 현황과 과제”. 『충남경제』 10월호: 18-25.
- 박경철·구자인·박주석·황바람. 2015a. 천안시 마을만들기 지원협력시스템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설립 연구. 충남연구원.
- \_\_\_\_\_. 2015b. 아산시 마을만들기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충남연구원
- 배중남. 2010. “지속적인 도농교류의 조건에 관한 고찰: 일본의 세타가야구(世田谷區)와 가와바촌(川場村)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계획』 제16권 제1호: 73-80.
- 손재영. 2014.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활성화를 통한 농어촌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Volume 28, Number11: 95-107.

- 송두범. 2011. “충남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열린충남』 가을호: 31-39.
- 송두범·유정규·정환영. 2010.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추진실태 및 발전 방안. 충남연구원 기본연구 2012-12.
- 송완구·박정화·조용현. 2011. “농촌관광 체험요인이 지속적인 교류의사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제35권 제5호: 255-276.
- 안태영·김창근. 2010. “도농교류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 유통 전략: 곡성군 사례를 중심으로”. 『유통경영학회지』 제13권 제1호: 47-67.
- 엄형식·마상진. 2011. 유럽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현황과 시사점.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학열·이영옥·조영재·윤정미. 2012. 어린이 농산어촌체험형 교육체험 활성화 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전략연구 201207.
- 윤유식·지경배. 2008. “농촌체험마을 방문객 선호체험프로그램과 방문만족도 및 성과에 관한 연구: 강원도 농촌관광마을 방문객을 중심으로”. 『호텔관광연구』 제10권 제1호: 327-251.
- 이상호. 2007. “유형별 특성에 기반한 경북지역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방안”. 『농업경영·정책연구』 제34권 제1호: 109-126.
- 이승곤·오민재. 2007. “농촌관광 목적지 속성에 따른 관광객 유형별 동기 및 체험 분석”. 『관광연구저널』 21(4): 19-33.
- 이인배·강신겸·최영국. 2005. 충청남도 농촌체험관광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기본연구과제.
- 이차화·탁영란·김민서·손용훈. 2014. “농촌체험관광 중간지원조직 역할에 관한 근거이론적 분석: 양평군·이천시 농촌나드리 비교를 중심으로”. 『농촌계획』 20(3): 75-88.
- 일본 전국취농상담센터 지음·충남발전연구원 옮김. 2008. 일본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정책 사례집. CDI 번역서 2008-01.
- 정구조·진현정·설봉식. 2009. “농촌체험관광이 농특산물 구매 및 직거래에 미치는 영향”. 『농촌계획』 제32권 제4호: 35-56.
- 정석호·정환영. 2012. “일본의 지역주민에 의한 도농교류: 일본 야마가타현 카네야마읍 타니구치 지구를 사례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22권 제1호: 133-142.
- 정영일. 2015. “지금 왜 도·농협력인가?”, 『농정연구』 제55권 가을호: 11-17.
- 조영재·구자인·박주석·황바람. 2015. 논산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 연구용역.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2013.21-22. 「3농혁신대학 『체험관광활성화』 과정 」 자료.

충청남도, 2013.8. 「3농혁신 추진 상황 점검 및 신규 시책 구상을 위한 도농교류  
사업단 TF팀 합동 회의」 자료.

충청남도, 2015. 10. 13-14 「3농혁신대학 도농교류활성화 과정」 자료.



# 부 록

부록 1 충남도 농촌체험마을 현황

부록 2 충남도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마을 담당자 설문조사표





부록 1 : 충청남도 농어촌체험마을 명단

(2015년 10월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체험마을 관리시스템 등록 기준)

지역	마을명	주소	지정연도
천안	대동마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장송죽계길189	2014
	숫대마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양곡2길3	2014
공주	계룡산상신마을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상하신길396	2013
	구난이 약나무 마을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강삿골길25	2011
	꽃내미풀꽃이랑마을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고성1길250-34	2011
	달빛영근마을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쌍달길160	2012
	도담골호반마을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강백년길29	2013
	무르실고추마을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무르실길 17 17	2013
	밤톨이마을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북계새뜸길61	2013
	산수박마을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구계연종길703	2011
	소랭이마을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마곡사로396	2013
	예울림둘레방아마을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무재길23-6	2015
	예하지마을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요당길324-1	2012
	자연애밤도랑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허수아비길257-8	2011
	장익는 마을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선근리1길34	2011
	천탑마을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유구마곡사로979	2012
보령	방자마을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홍보로765-17	2011
	빙도마을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빙도길170	2012
	신현(쌔지돈)마을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삼산농현길147-17	2010
	오서산산촌생태마을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넙티로513-6	2012
	은행마을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오서산길150-65	2011
	이천(야생화)마을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폭포길 118 (명천동)	2011
	토정마을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윗장골길113	2011
아산	강당골마을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강당로187-8	2011
	거산골마을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로196번길5	2012
	기쁨두배마을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석곡길101	2011
	꽃가꾸는 대통령마을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충무로604번길106-20	2011
	피골성마을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304	2013
	내이랑마을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신봉길248	2012
	느티장승마을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종곡길96번길1	2012
	다라미자운영마을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평촌길107-9	2011
	오돌개마을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송악로112	2012
	외암마을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길42-7	2010
	희안마을	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8번길 39 (방축동)	2012
서산	꽃송아리마을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서각산길59-29	2010
	방길동마을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팔봉산로122	2011

	별마을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오학별마을길30-2	2011
	빛들마을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마룡십포길77-7	2011
	솔마당마을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성리동산길73	2011
	중리마을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중왕2길1	2013
	초록꿈틀마을	충청남도 서산시 읍암면 두치로371	2013
	회포마을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운산나루터길37-16	2010
논산	덕곡마을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수락로237번길20	2011
	덕바위마을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604번길46-20	2011
	도정마을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황산벌로380번길15	2012
	떨기마을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논산평야로1119번길125	2011
	사월1리마을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논산평야로1080	2011
	삼태미마을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호월로387-3	2011
	시골애마을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장마루로516번길18-3	2011
	참살이마을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고정1길34-15	2010
	평매마을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산노3길45-25	2012
	포전마을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우곤3길66-1	2011
	햇빛촌바랑산마을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바랑산2길60	2011
	황산벌동지마을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신양길167-8	2014
계룡	계룡정보화마을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광석향한길43-8	2015
당진	당나루물꽃승마마을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성출재길7-1	2011
	백석마을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매실로246	2014
	영전황토마을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황토마을로141	2010
	왕매실마을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매실로398	2013
	푸레기마을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초락1로147	2010
금산	닥실마을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닥실길27	2011
	두곡마을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무금로1650	2011
	막현리마을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하막현길77	2011
	바리실마을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바리실길187	2010
	수통1리 마을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수통1길17	2011
	조팝꽃피는마을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길곡길8	2012
부여	고추골술바람마을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응추로110-9	2015
	구레울체험마을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홍내로천보길144-1	2013
	백제인동마을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지천로539-3	2010
	부여기와마을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월함로277	2009
	부여양송이마을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금백로403번길26	2014
	송죽마을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원문로53-6	2010
	신암전통테마마을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신암로178	2011
	친환경까치마을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진호로2	2014
서천	갈숲마을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신성로283	2012

	고살매갈꽃체험마을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삼산남길129	2011
	달고개 모시마을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화한로504번길5	2011
	동백꽃마을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합전길77	2011
	동자북문화역사마을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신성로36-31	2011
	들꽃동산마을	충청남도 서천군 시초면 선암길132번길49	2011
	선도리갯벌체험마을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갯벌체험로428-13	2011
	월하성어촌체험마을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하성길96	2011
	이색체험마을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화출길42번길2-10	2008
	행복마을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남당길63번길24	2010
	황새마을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계동길46번길36	2011
청양	가파마을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가파로564-5	2010
	고인돌마을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고인돌길37	2011
	까치내마을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지천로1240-1	2011
	꽃피마을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상지길39	2010
	물여울마을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산당로441	2014
	바둑골마을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면암로288-184	2011
	백곡리마을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백곡길154	2013
	사자산마을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배미길29	2010
	알프스마을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천장호길223-35	2010
	용꿈꾸는마을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돌보길70	2010
	은골구기자마을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은골길124	2010
	장곡마을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103-7	2010
	칠갑사니마을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판동길260	2012
	칠갑산산꽃마을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까치내로1063-1	2010
홍성	거북이마을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거북로422-23	2011
	고미당마을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무한로987	2015
	느리실마을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서부서길621	2013
	문당마을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문당길141	2010
	봉암마을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봉수산로418번길91	2013
	상리마을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매죽헌길423	2014
	오서산광제마을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장곡길416번길21	2009
	오서산삼담마을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오서길351번길8-13	2015
	왕대골마을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구항길240번길17	2013
	용봉산돌바위마을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이응노로307	2015
	하누리마을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매현1길2	2011
	하리철새마을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 면남당항로849	2015
예산	가야한티마을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윤봉길로366-27	2011
	꽃피는갈막마을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상향방산로106	2011
	신장리사과체험마을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국사봉로442	2012

	알토란사과마을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운곡길88	2011
태안	갈두천권역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대기길12-20	2013
	길우지마을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길우지길332-46	2015
	노을지는 갯마을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법산길274-7	2012
	대야도 마을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대야로349	2010
	만대마을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원이로2462-9	2012
	매화뚝방마을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동해길 301-41 매화뚝방마을	2011
	법산연꽃마을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마금로255-114	2011
	벗가리마을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벗가리길62	2010
	병술만마을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라암로877-154	2011
	용신마을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용도로470-91	2012
	조개부리마을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옷점길122-13	2011
	해비알마을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해안관광로44-13	2015

부록 2 : 설문조사표

**충남도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마을 담당자 설문조사표**

일련번호		조사일	월	일
------	--	-----	---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현재 우리 연구원 전략과제인 <충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충남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조사에 성실히 임해주신다면 **향후 충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설문에서 취득한 정보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남연구원장

2015. 11

♣ 문의: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박경철 책임연구원(H·P: )314-140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 Tel: 041-840-1206, E-mail: [kcpark@cdi.re.kr](mailto:kcpark@cdi.re.kr)

**I 기본 현황**

※ 각 항목에 하나씩만 체크✓ 또는 번호를 기입 바랍니다.

1. 체험마을 소재지: \_\_\_\_\_시·군 \_\_\_\_\_읍·면 \_\_\_\_\_농촌체험·휴양마을

2. 귀하의 현재 마을 내 역할은 무엇입니까? (     )

① 마을위원장    ② 마을사무장 (성명: \_\_\_\_\_ / 연락처: 010 - \_\_\_\_\_ - \_\_\_\_\_)

3. 귀 마을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 )

- ① 농촌체험·휴양마을    ② 농촌체험·휴양마을+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지구
- ③ 농촌체험·휴양마을+권역단위종합개발지구+교육농장(농어촌인성학교)
- ④ 농촌체험·휴양마을+교육농장(농어촌인성학교)
- ⑤ 기타 \_\_\_\_\_

4. 농촌체험·휴양마을 총 운영 기간: 총 \_\_\_\_\_년 ( )

- ① 5년 이하            ② 5~10년            ③ 10~20년            ④ 20년 이상

5.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된 기간(중간 휴식기 제외): 총 \_\_\_\_\_년 ( )

- ① 5년 이하            ② 5~10년            ③ 10~20년            ④ 20년 이상

## II 체험마을 운영 관련

1. 현재 마을사무장 근무 여부 ( )

- ① 근무            ② 근무하지 않음

1.1. (근무할 경우) 현재 사무장의 근무기간은 총 얼마나 됩니까? ( )

- ① 1년 미만    ② 1~2년    ③ 2~3년    ④ 3~5년    ⑤ 5년 이상

1.2. (근무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인가요? ( )

- ① 신청하지 않음    ② 신청했으나 배정되지 않음
- ③ 전임 사무장의 사직으로 공석중임    ④ 적격자를 찾지 못하고 있음

2. 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

- ① 인력·조직 및 역량 부족    ② 자원 및 시설 부족    ③ 운영예산의 부족

- ④ 세월호, 메르스 등 돌발적 사건 발생    ⑤ 마을주민 간 갈등
- ⑥ 행정의 지원 부족    ⑦ 독창적 프로그램 부족    ⑧기타\_\_\_\_\_
3. 귀 마을의 운영에서 **가장 역점에 두고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
- ① 인력 충원 및 육성    ② 자원 및 시설 확충    ③ 독창적 프로그램 개발
- ④ 돌발적 위험에 대한 대비    ⑤ 투명한 일처리    ⑥ 확실한 보상체계 마련
- ⑦ 기타\_\_\_\_\_
4. 귀 마을의 체험객은 **주로 어디에서 가장 많이 찾아옵니까?** (    )
- ① 해당 지역(동일 시·군)    ② 대전·세종시    ③ 기타 충청권역
- ④ 서울·경기권역    ⑤ 기타 지역
5. 귀 마을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방문 및 체험객을 유치하십니까?** (    )
- ① 마을 자체적인 홍보    ② 행정기관의 협력
- ③ 체험마을협의체의 공동 홍보    ④ 전문 홍보 대행사의 중개
- ⑤ 기타\_\_\_\_\_
6. 현재 귀 마을과 **1사1촌을 맺고 있는 기관(기업)**은 몇 개입니까? (    )
- ① 없음    ② 1~2곳    ③ 3~4곳    ④ 5곳 이상
7. 귀 마을과 **1사1촌을 맺고 있는 기관(기업)과의 최근 교류 현황**은 어떻습니까? (    )
- ① 거의 교류가 없다.    ② 가끔씩 찾아온다.
- ③ 가끔씩 찾아오고 농산물도 구매하고 있다.
- ④ 거의 찾아오지 않고 농산물만 가끔 구매한다.
- ⑤ 자주 찾아온다.    ⑥ 자주 찾아오고 농산물도 자주 구매한다.

8. 귀 마을은 향후 1사1촌을 맺고 있는 기관(기업)과 어떻게 교류를 진행할 계획입니까? ( )

- ①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교류한다.    ② 앞으로 교류를 더욱 강화한다.  
 ③ 현재 교류가 잘 안 되고 있으니 다른 기관(기업)을 찾아볼 계획이다.  
 ④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겠다.  
 ⑤ 기타 \_\_\_\_\_

9. 귀 마을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 가운데 방문객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 유형을 아래에서 찾아 그 번호를 찾아 순서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_\_\_\_\_ (2) \_\_\_\_\_ (3) \_\_\_\_\_

- |         |           |                  |         |
|---------|-----------|------------------|---------|
| ① 음식만들기 | ② 농사체험    | ③ 나무나 흙을 활용한 만들기 | ④ 농기계타기 |
| ⑤ 전통놀이  | ⑥ 전통문화 학습 | ⑦ 모험             | ⑧ 염색    |
| ⑨ 일반 게임 | ⑩ 기타      |                  |         |

10. 귀 마을의 체험프로그램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

- ① 독창성의 부족    ② 운영 인력의 부족    ③ 운영 시설의 부족  
 ④ 홍보의 어려움    ⑤ 수익성의 부족    ⑥ 기타 \_\_\_\_\_

### III 교류담당자의 의견

1. 귀하는 향후 본인 마을의 농촌체험활동에 가장 많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 ① 도로 여건의 개선    ②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  
 ③ 중학교 자유학기제    ④ 휴양과 힐링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⑤ 세종시의 확장    ⑥ 기타 \_\_\_\_\_

2. 위와 같은 변화가 향후 귀하의 마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 ① 거의 변함이 없을 것이다.    ② 약간 있을 것이다.    ③ 아주 많을 것이다.



3. 귀 마을은 위와 같은 변화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

- ① 별로 준비하지 않는다.      ② 조금 준비한다.  
③ 아주 많이 준비하고 있다.

3-1. 귀 마을은 위와 같은 변화에 대비해 어느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준비하십니까?

- ① 프로그램 강화      ② 홍보 강화      ③ 인력 충원  
④ 시설투자      ⑤ 기타\_\_\_\_\_

4. 현재 마을사무장제도가 8년 일몰제로 인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중단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  
②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기더라도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  
③ '나드리'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효율적 운영  
④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      ⑤ 기타\_\_\_\_\_

5. 최근 몇 년 들어, 진드기, 세월호사건, 메르스사태 등으로 농촌체험활동이 상시적인 위험사태에 직면하면서 체험마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돌발적 위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농작물재해보험'처럼 보험장치를 통해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② 언론매체에서 민감하게 보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③ 중간지원조직 등을 통해 지역 내 체험마을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④ 마을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⑤ 기타\_\_\_\_\_

6. 최근 들어 농촌체험마을에서도 요우커(중국관광객)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귀 마을은 요우커 유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 )

- ① 거의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있다.      ⑤ 아주 많다.

6.1. (관심이 있는 경우) 어떤 방면의 준비가 가장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되십니까? ( )

- ① 적극적인 홍보      ② 관련 인력 보완  
③ 시설 정비 및 확충      ④ 기타 \_\_\_\_\_

6.2. (관심이 없는 경우) 왜 그렇다고 생각되십니까? ( )

- ① 시기상조                      ② 여건 미비                      ③ 경제적 효과 미약  
④ 정서적인 차이                ⑤ 기타 \_\_\_\_\_

#### IV 중간지원조직화에 관한 의견

1. 귀 마을은 지역 내 다른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어느 정도 연계·협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심은 어떻습니까? ( )

- ① 협력은 없고 관심도 없다.                      ② 협력은 없지만 관심은 있다.  
③ 약간 협력하고 관심도 있다.                      ④ 약간 협력하지만 향후 관심은 많다.  
⑤ 잘 협력하고 있고 관심도 많다.                      ⑥ 기타 \_\_\_\_\_

2. 최근 '나드리'와 같이 지역 내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공동으로 관리·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 )

- ① 동의하지 않음                      ② 잘 모름                      ③ 약간 동의함                      ④ 매우 동의함

3. 시·군 내 '나드리'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진다면(이미 만든 지역 포함)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신규 체험프로그램 개발                      ② 행정과 체험마을 간 매개역할  
③ 대외 홍보    ④ 체험객 관리 및 공정 분배  
⑤ 필요시 인력 지원    ⑥ 기타 \_\_\_\_\_

4. 시·군 내 '나드리'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진다면(이미 만든 지역 포함) 그 범위는 어디까지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 ① 농촌체험·휴양마을로 한정  
②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개별 체험농가 포함  
③ 체험마을, 체험농가, 일반관광까지 모두 포함  
④ 기타 \_\_\_\_\_

5. 시·군 내 ‘나드리’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진다면(이미 만든 지역 포함)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은 무엇입니까? ( )

- ① 시·군 단위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재정과 인력을 투자해 전담 운영
- ② 시·군 지자체가 인건비와 관리비를 부담하되 운영은 농촌체험관련 협의회가 전담
- ③ 시·군 지자체가 전담 운영하되 체험마을협의회가 협조
- ④ 시·군 지자체가 인건비와 관리비를 부담하되 체험마을, 체험농가가 공동으로 운영
- ⑤ 체험마을, 개별 체험농가가 재정과 인력을 투자해 공동으로 운영
- ⑥ 기타 \_\_\_\_\_

6. ‘나드리’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진다면 **충남도**와 각 시·군에서 가장 **역점에 두어야 할 사항**을 무엇입니까? ( )

- ① 안정적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② 신규 프로그램 개발 지원  
③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험마을 내실화            ④ 공동 홍보 지원  
⑤ 기타 \_\_\_\_\_

7. 끝으로 충남도의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참고 의견 및 제안**은 무엇입니까?

- ▶ 연구자에 대한 요구
- ▶ 충남도 및 각 시·군에 대한 요구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집 필 자 ■

연구책임 ·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 조영재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전략연구 2015-33 ·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글쓴이 · 박경철, 조영재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5년 12월 31일 / 발행 · 2015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14-140)

전화 · 041-840-1206(농촌·농업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320-9 03350

<http://www.cni.re.kr>

© 2015.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